



大韓民國學術院通信

Monthly Newsletter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Republic of Korea

발행인 : 대한민국학술원 회장 / 06579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7길 59 / <http://www.nas.go.kr> / T.3400-5250 F.535-8836 / 편집 : 학술진흥과



제22차 아시아학술회의의 학술대회 개최(2023.10.19.)

이달의 주요기사

회 원 기 고	학문과 전공, 어느 외로운 노학(老學)의 독백 (상)	朴秉濠 會員 2면
분과 및 학계 동향	인문·사회 제3분과 학술활동	金永植 會員 6면
학술원 집담회	2023년도 제3차 집담회 보고서: “문명의 위기와 인문학의 사명”	張敬烈 會員 11면
학 술 교 류	제15회 한·일학술포럼 참가기	李榮純 會員 19면
	ICIAM 2023 참가기	奇宇恒·金道漢 會員 31면
서 평	UNESCO CIPSH 철학 및 인문학 국제학술회의 참가기	趙東一·李廷玟 會員 36면
	김철수 선생님을 통해 본 헌법 진리의 빛 -서평: 헌법을 말한다:금강 김철수 선생 90세 기념 및 추모논문집 / 김효전 편-	趙柄倫 教授 43면
추 모 사	영적 휴머니스트 길희성 선생님의 삶과 학문	程京日 理事 51면
학 술 원 상 수상자 기고	재만 조선인 문학 연구에 바친 40년	吳養鎬 教授 56면
	한국 사례를 토대로 한 ‘작은복지국가론’의 일반화	梁在振 教授 61면
학술원 소식	회의 및 행사 안내	66면

[회원기고]

학문과 전공, 어느 외로운 노학(老學)의 독백 (상)

朴秉濠 會員(한국법제사)



영터리 법학사

1950년 6월 10일 서울대 법대 입학식이 있었고 바로 강의가 시작되었다. 교재를 출판한 교수는 강론식 강의였으나 교재가 없는 교수들은 30분 필기할 수 있도록 천천히 강의록 원고를 읽고 강론하고 또다시 필기와 강의를 반복했다. 신기하게 느껴졌으나 대학강의는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듣고 고소를 금치 못했다. 유기천 교수의 형법 강의가 “형법의 효력”을 필기·강론하는 방식이어서 한 시간의 강의 분량은 적었다. 영어수필 강의의 양주동 선생은 여요전주(麗謠箋注)의 선전과 영어·불어의 권위자임을 한 시간 동안 자기 자랑으로 종시했다. 신기하지도 않은 강의가 북괴의 도발로 중단되고 대학의 맛도 못 보고 광주로 피난하여 숨어지내며 고문진보(古文眞寶)를 보고 외웠다. 중학교 6학년 때 배운 고등한문 교재가 고문진보를 주로 편집했음을 알고 놀랐다. 국군이 진주한 후 광주전시연합대학이 개교되어 수강했는데 영어·독일어·인문학 계통의 과목이 대부분이고 법률과목은 민법·형법의 총론 강의가 있었다. 여기서 수강한 과목은 전공과목 학점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여 서양철학사가 법철학으로, 서양사가 로마법, 영어는 영어원서강독으로 인정받았다. 1년 휴학 후 부산에 가서 법률과목을 신청했는데 민사소송법은 강사가 자기의 저서를 30분은 필기, 30분은 강의하는 방식으로 반복 강의함을 보고 크게 실망했고 동경제대 출신이라는 변호사의 형사연습은 수강생을 부산지법 형사법정으로 데려가서 변론하는 것을 듣게 했다. 고소를 금치 못했으나 처음으로 형사법정을 구경했다. 부산 동대신동(東大新洞)의 법과대학 강의도 뜻에 차지 않았다. 서울 수복 후에 법대를 통산 1년 다녔는데 교수마다 10여분 늦게 와서 혼자 중얼거리고 30분 전에 강의를 끝냈다. 당시 제대로 강의한 교수는 정광현·유기천·김중환·박관숙 교수였다. 그런데 또 새로운 전시대학 교육정책이 시행되었으니, 1955년

졸업예정자 전원을 광주보병학교에 입교시켜 을종간부(乙種幹部) 후보생으로 전반기 훈련 10주를 훈련시킨 후 예비역 일등병으로 하는 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당시 문교부 장관 이선근 박사의 제안이었고 그해 한차례에 그쳤다. 나도 1년을 휴학했던 터라 1년 후배와 함께 9월 6일 광주보병학교 제8중대에 입대하여 10주의 장교 전반기 훈련을 받고 11월 20일 일등병으로 제대했는데 후에 1주의 재훈련을 받았다. 12월 초에 상경하여 한 학기 동안 강의를 신청한 과목의 졸업시험을 치렀는데 한 시간도 듣지 않던 터라 감독교수의 묵인하에 무릎 위에 교재를 놓고 요령있게 베껴써서 시험지를 제출하여 학점을 취득했다. 이렇게 5년을 허송세월하고 법학사가 되었으니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제대로 법학을 배워보기로 마음먹었다. 나의 동기생들은 1944년에 중학교에 입학하여 1년 6개월 만에 해방을 맞이한, 그 어수선한 속에서도 중학교 교육을 제대로 우수하게 받은 수재들이었으나 대학 생활은 엉망이었다.

대학원 진학과 전공강제

1955년 3월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했다. 민법을 전공하기로 하고 4월 하순경에 민법 중 재산법을 담당하던 김기선 선생을 연구실로 찾아뵙고 나의 뜻을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나를 물끄러미 보시던 선생은 자네가 법대를 나왔느냐,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시며 별로 탐탁하지 않은 표정이셨다. 나도 멀썩해지고 자존심도 상했던 터라 말없이 연구실을 나왔다. 서울대학교가 부산에서 서울로 복귀한 뒤 1년간 김선생의 강의를 듣고 학점도 땀이나 뛰어나지도 않은 학생이 기억나실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퇴짜를 맞고 나니 형법이나 상법을 전공할까도 생각해 보았으나 애초에 마음먹은 민법을 떠나기 싫어서 민법 중 친족상속법을 담당하시는 정

광현 선생 문하로 들어가기로 했다.

당시 정선생은 중앙도서관장의 보직을 맡고 계셨고 또한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이셨다. 선생을 도서관장실로 찾아뵈었더니 선뜻 문하생으로 받아주시겠다고 쾌락하셨다. 재산법을 전공하지 못하게 되어 아쉽기는 하였으나 바로 그날부터 관장실 옆의 넓은 회의실에서 대학원 선후배 동료들과 마주하며 공부하게 되었다. 당시 대학원생들은 거의 대부분 중·고교나 은행에 취직하고 있거나 대학의 시간강사나 전임으로 있었기 때문에 강의 시간 외에는 연구실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그 넓은 방을 나 혼자 차지하는 셈이었다. 나는 날마다 나와서 책을 읽곤 했는데 정선생께서는 그러한 나를 기특하게 여기셨는지 원고정리나 자료조사를 하명하시고 시일이 지날수록 연구비서처럼 삼으셨다. 급기야는 청탁원고의 초고작성까지 맡게 되니 하루도 빠짐없이 연구실을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하나의 중요한 과제를 성취해 드리면 반드시 일제 때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발간한 책을 사 주셨다. 이렇게 되니 사제간의 정이 점점 끈끈해지고 선생께서도 내가 없으면 논문을 쓰기 어렵게 되었으니, 특히 선생의 깨알같은 자가류초서(自家流草書)를 나만이 해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급할 때는 일요일에도 사람을 내게 보내어 택으로 오게 하여 일을 시키셨다.

1957년 봄부터는 서서히 석사논문을 준비하며 내가 생각하는 논제를 정리하여 정선생께 말씀드렸다. 그러더니 물끄러미 보시다가 자네는 친족상속법으로 논문을 쓰지 말고 한국법제사로 전공을 바꾸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정말로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었다. 더욱이 나는 1956년 봄에 결혼을 하고 첫딸을 가진 가장이면서 별이 없는 처지라 처자를 부모 곁에 두고 신혼부부가 방학 때나 만나는 신세였기 때문에 나의 이러한 딱한 사정을 말씀드리고 빨리 석사학위를 취득하여 취직을 해야 되겠다고 장남이니 책임도 크다고 말씀드리며 애원하였다. 선생께서는 그것은 박군의 개인사정이지 학문의 세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히 엄명을 거역하겠다면 당장 연구실을 나가고 만약 친족상속법이나 다른 전공을 택하여 논문을 제출하면 주임교수로 있는 한 절대로 논문을 통과시켜 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냥 물러나와 며칠 후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하였다. 단단히 마음먹고 시도해 보았으나 역시 허사였다. 이렇게 된 것은 옛 법전이나 보고 고문서에 관심을 가진 나의 잘못에서 말미암은 업보였다.

대학원을 집어치우고 은행에 취직을 해볼 생각이 없지 않았으나 단념하고 엄명에 따르기로 하였다. 그러나 남들은 2년에 마치는데 나는 1년을 더 매달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나의 신세가 가련해지고 부모와 처자에게 어떻게 변명을 할지 난감하였다. 그런 뒤 십여 일이 지나서 이왕에 공부하였던 가족법사를 택하면 많은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듯 싶어서 이를 말씀드렸더니 가족법사가 현행법인데 결국은 친족상속법을 하게 되는 셈이니 그것도 안된다고 잘라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또 여러 날을 고민한 끝에 부동산 소유권의 역사를 해보기로 하고 「李朝時代의 不動產物權에 관한 研究」로 제목을 정하여 말씀드렸더니 승낙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된 연유를 후에 알게 되었는데 당시 대학원에서 한국법제사 특수연구라는 강좌를 담당하시던 전봉덕 선생이 전광현 선생께 한국법제사의 전공자가 있어야 하는데 박모가 제법 고전을 읽고 새길 줄 아는 학생이니 전공하게 하라고 강하게 권유했기 때문이었다. 자업자득이다.

법제사학에의 문진(問津)

한국법제사로 전공을 바꾸게 되니 1957년의 반년과 1958년의 1년을 미지의 세계인 한국법제사의 학문적 실체가 무엇인지를 터득해야 하나, 선생도 없고 동학도 없고 모르는 것을 물을 데도 없다. 더구나 내가 숙식을 하고 있는 친척댁(재당숙)은 대식구인데다 나는 식비도 내지 못하고 기식하는 형편이고 앞으로 1년 이상을 더 신세져야 하는 처지가 되니 막막하였다. 넓은 한양 천지에 친척과 지인이 없어 여러 날을 고민하고 궁리한 끝에 앞으로 6개월간은 아침밥을 배불리 먹고 점심·저녁은 굶기로 작정하고 날마다 숙소인 북아현동 꼭대기에서 종로 5가 동숭동 서울대 도서관까지 도보로 왕래함으로써 교통비를 아끼기로 결정하였다. 그 반년 동안 도서관에서 동서양 법제사 문헌을 모두 통관하고 시대구분·다루는

분야·사료비판의 방법 등등에 대해 독일법제사·영국법제사·프랑스법제사·중국법제사·일본법제사 교과서들을 참고자료로 만들었다. 우리 법제사에 관한 일본학자의 글은 처음부터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한국의 근대화는 본질적으로 가족의 재구성과 사적 소유권의 확립에 기초하며 따라서 친족 및 토지소유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여 그 두 분야에 한정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1일1식과 도보왕래는 처음에는 힘들었으나 십여 일이 지나니 견딜 만 했고 구멍가게 중에는 한두잔의 소주를 파는 곳이 있어서 가끔 들러 35도 소주 두잔에 떨치나 풋고추, 열무김치 한 가닥으로 요기했다. 일제 때 초중고에서 배워 되뇌이던 인고단련(忍苦鍛鍊)을 작은 소리로 되뇌이며 처자를 생각하며 희망을 우려했다. 이 반년에 걸친 심신단련은 구십 중반에도 심신의 건강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된 것으로 믿는다.

1957년 말에 석사논문이 통과되고 1958년 봄에 역사상 최초의 한국법제사 전공의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런데 한국법제사라는 과목은 당시 서울법대에만 있을 뿐이어서 강사자리 얻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장지태 선생이 고문서 정리를 하게 된 것은 당시 대학원장이던 이병도 선생이 5만여장이나 되는 고문서가 방치되어 있는데 장선생이 정리적임자이므로 정리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도서관장께 하시어 정리를 착수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듣고 이왕 버린 몸이니 고문서 정리를 해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희망을 정선생께 말씀드렸더니 석사학위를 받은 후에 추진해 보겠다는 내락을 받았다. 드디어 1958년 1월에 대학 총장의 명의로 도서관 고문서 정리 촉탁의 발령을 받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도서관의 커다란 방을 배정받고 정식으로 ‘古文書整理室’이라는 표찰을 걸게 되고 장지태 선생과 고문서 정리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매달 일정한 촉탁월급이 지급되었으므로 처자를 불러 올려서 결혼 2년 만에 청량리 마부집의 구석방에 세들어 비로소 세 식구가 말을 벗삼아 신선 살림을 시작하였다. 겸하여 이병도 대학원장을 찾아뵙고 고문서 정리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자, 법학 전공자가 고문서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인데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니 용기가 샘솟았다.

고문서 정리 중, 특히 1960년 봄으로 기억되는데 뭉치 속에서 크고 두툼한 두루마리가 나왔다. 펴 보니 난초(亂草)로 쓴 것이어서 장선생의 해독으로 내용을 알고 보니 현종 2년(1661)의 한성부에서 내린 결송입안(決訟立案: 민사판결문)이었다. 폭이 42.5cm, 길이가 10m 30cm, 6,800여 자로 된 것으로서 흥분을 가눌 수 없었으며 그 후 10여종의 입안이 나왔다. 나는 이것을 분석하고 해설을 곁들여 『鄉土서울』 17호에 소개하였다. 1959년 봄에는 당시 한국연구도서관(후에 한국연구원으로 개칭)에서 연구비 지급공모가 있어서 기대하지도 않으면서 고문서를 자료로 하여 「韓國法制史特殊研究-李朝時代の不動產賣買法 및 擔保法-」이라는 제목으로 응모하였는데 다행히 받아들여져서 1년 후에 결과를 보고하였는 바, 심사에 통과되어 『한국연구총서』 제4집으로 1960년 7월에 단행본으로 출판해 주었다. 나에게는 최초의 저서이고 동시에 광복 후 한국법제사에 관한 최초의 연구업적이 되었다. 동시에 박모는 한국법제사 전공자로 못이 박혀 버렸다. 더욱이 1959년부터는 강사이신 전봉덕 선생이 장기간 미국에 가시게 되었으므로 내가 그 후임으로 모교에서 한국법제사를 강사로서 강의하게 되었으니 하늘의 별따기였다. 나의 학문적 운명은 정광현 선생이 바라시던 대로 이루어진 셈이다.

고문서 정리를 하면서 강의도 하는 동안 애초에 기획했던 토지소유와 가족제도에 관한 논문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1960년 7월에 「李朝時代の不動產訴訟法小考」를 작성하여 서울대 법학지 2권 1호에 게재하였다. 이는 토지소유의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것이 소유냐 점유이냐를 밝히기 위한 논문이었다. 다음으로 1961년 7월에 「李朝末葉의 承嫡慣行과 生前養子」를 법학지 3권 1호에 게재하였고, 1962년 12월에 「奉婿婚俗에 유래하는 親族과 禁婚範圍」를 법학지 4권 2호에 게재하였다. 시간강사 신분, 조교 신분으로 매번 논문게재를 신청한다고 눈총도 받았다. 토지소유에 관해서는 1963년 3월 전임이 된 후 법학지에 3회 연재하는 큰 논문이라, 이 또한 전임강사로서 욕심부린다는 편찬을 받았다. 조교의 신분으로 연구총서 1책과 3편의 논문을 작성한 것으로 나의 전공에 대한 빛을 갠 셈이고 스스로 만족하고 몇 몇하였다.

고문서 정리는 드디어 1962년 초에 5만여장의 정리를 완료하였고 5월에는 장선생이 작고하시어 혼자만 남게 되었는데 정광현 선생도 5월 11일 도서관장직을 사임하였다. 햇수로 5년간 심혈을 기울여 고문서 정리를 완료하였으니 공헌을 한 것이 뿌듯하게 느껴지기도 했으나 만 가지 감회에 젖어 선뜻 발길을 돌릴 수 없었다. 그 5년 동안, 때로는 법학석사가 엉뚱하게 고문서를 정리한다고 하여 후배와 동료로부터 멸시당하는 수모도 겪었고 고문서를 필사해 두었던 원고 봉치를 과음 끝에 잃어버리는 창피스런 실수도 있었다. 고문서와의 본격적인 만남은 우리 역사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열어 주며 일깨워 주었고 나의 평생을 통하여 가장 값진 시간이었으니 오직 겸허히 감사할 따름이다.

1963년 3월 1일자로 법과대학 전임교수가 되고, 1996년 8월 30일 정년퇴임하였다. 끝으로 법사학회 창립 당시 내가 작성하여 채택된 법사학회 창립 발기 취지문을 소개한다.

“오늘날 우리 법학계는 꾸준하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점차 한국적 법학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으며 법학 각 분야의 학회가 자못 활발한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은 학문의 발전을 위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

다. 실로 학문의 발전은 고립된 개개인의 연구활동에 의하기보다는 유기적 연관을 가지면서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공통의 목표와 관심 하에 끊임없는 공동연구를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은 자명한 바입니다.

더욱이 실정법은 대부분 서구의 근대법 체계를 수용하여 제도적 충족성을 기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흉수처럼 밀어닥치는 외래법문화의 실효적·타장적 수용을 위해서는 외래법의 사적 발전과정의 연구와 동시에 한국의 고유법·법제도의 과학적 연구가 기초작업으로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사학은 그것이 사학의 한 분야임과 동시에 한편으로 실용성 없는 기초법학이라는 인식 때문에 연구인력의 희소성을 면할 길이 없었고 따라서 학문적 기여도가 적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국적 법학 수립을 위한 자각과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 오늘날을 맞이하여 때늦은 감이 있으나 법사학은 과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나아가서는 미래를 위한 학문으로서의 본질과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재천명하면서 고립에서 벗어나 협동을, 정체에서 벗어나 발전을 지향하며 한국법학의 발전에 한 부분을 담당하고자 이에 본 학회 창립을 발기하는 바입니다. 1973년 3월 3일.”

[분과 및 학계 동향]

인문·사회 제3분과 학술활동

金永植 會員(역사학/과학사)



인문사회 제3분과는 역사학의 여러 분야들 이외에 고고학, 민속학, 지리학, 문화인류학 등의 분야들을 포함하고 있어 이들 모든 분야의 학술 활동을 제대로 파악하고 “학계의 동향”을 정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와 같이 불가능한 작업을 시도하는 대신 지난 1년간 인문사회 3분과 회원들의 활동을 요약 정리하고자 한다. 인문사회 3분과는 회원 정원이 13명이지만 그동안 1명이 궐원인 채 12명을 유지해 오다가 금년 7월에 고동환 회원이 새로 들어옴으로써 13명이 모두 채워졌다. 다만 다수의 회원들이 고령으로 활동이 줄어들기도 했고 그 외에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회원들도 있어 일부 회원들은 활동 내용이 실리지 못하게 되었다.

차하순 회원은 초판이 나온 지 40년이 된 책 2권의 개정판을 금년 1월 출간했다. 한 권은 『형평의 연구』(탐구당, 2023년 1월)로 1983년 일조각에서 초판이 나왔던 저서이다. 이 책에서 차하순 회원은 ‘정의의 원칙과 일치한 평등’이나 ‘자유로운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말하는 형평에 대해, 특히 형평 또는 형평성이 합리화되는 근거-평등에 기초한 불평등이나 혹은 불평등 속의 평등이라는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합리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다른 한 권, 『존재의 대연쇄』(탐구당, 2023년 1월)는 1936년에 출간되어 이제는 유럽 지성사의 고전이 된 아서 O. 러브조이(Arthur O. Lovejoy)의 책(원제: *The Great chain of being: a study of the history of an idea*)의 번역서이다. 차하순 회원은 유럽 지성사에서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반복적인 ‘존재’라는 단위관념의 역사과정을 다룬 이 책의 번역판 초판을 1984년에 탐구당에서 출간했었는데 이번에 개역하여 내놓은 것이다.

이기석 회원은 금년 8월 31일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로부터 헐버트(Homer B. Hulbert)박사 연구에 남긴 공적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이기석 회원이 1969년에 발표한 “스민필지에 관한 일고찰”이 헐버트박사 연구에 선구적 업적으로 오늘날에도 매우 유용하고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는 학술적 업적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태진 회원은 두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했다. 먼저 “역사학자가 본 한국의 근현대사, 경제발전과 민주화 관점에서”는 NEAR재단 편저, 『한국의 새길을 찾다』(2023년 1월 11일, 청림출판), 83~143쪽으로 발표했다. 이 책은 니어재단이 한국의 ‘원로’ 15인을 초빙하여 “근현대사가 가르쳐준 교훈과 다가올 미래”의 새 길을 모색하는 기획으로 제1부의 논문 편에 실린 이태진 회원의 글은 근대(고종시대)의 주요 지향을 먼저 서술한 다음 일제 강점기에 그 발전 지향의 역사가 크게 침해된 뒤 광복 후 이를 만회하는 방향에서 추구된 현대사의 주요한 흐름을 짚었다. 전체 5개의 장 설정으로 다루어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근현대사 오류와 진실 명세서: 나라 잃은 진정한 사연, 일본의 ‘기획 침략주의’, 국민 창출의 근대사 출발, 대한제국의 경제발전 성과,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제 평화운동에 건 기대, 해방정국 반미사상의 오류.
2.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출발: 미군정과 임시정부 환국, 연합국 신탁통치안의 내력,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렬과 남한 단독정부 수립, 한국전쟁과 이승만 정권의 행로, 미국의 원조 경제와 전쟁 이후 변화, 정당 역사로 본 1950년대와 이승만 정권의 종말.
3. 1960년대 이후 경제 개발과 사회변동,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련: 1960~1970년대 박정희의 경제 개발 정책과 독재, 1980년대 신군부 집권과 민주화운동, 1987년 ‘민주화’ 개정헌법과 제6공화국 시대

4. 1990년대 이후 '진보세력'과 중도지향 세력의 등장: 진보세력의 부상과 좌경화, 시민단체의 등장과 부침, 중도지향 세력의 등장과 보수 정치의 행로.
5. 우리가 이룬 것과 잃은 것에서 배우다.

영문 논문, “From People as Foundation (*Minbon*) to Concept of a Republic (*Minkuk*): Tracing Neo-Confucianism in Korean History”, *Cultural and Religious Studies*, Vol. 11 No. 3 (David Publishing Company, March 2023), pp. 105~117은 조선 시대 유교(신유학)의 주요한 경향을 정리한 글이다. 2003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태진 회원이 미국 하버드대학 동아시아 언어문화학과 강의 담당 교수로 초청받아 한 학기 재직 중에 같은 학과 중국 송나라 시대사 전공의 피터 볼(Peter Bol) 교수가 중국사 전공 대학원생들을 위해 한국 신유학사 연구 현황에 관한 특강을 요청하여 하바드-옌칭 연구소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강연 원고를 바탕으로 했고 아래 7개 주제로 구성되었다.

1. 사상보다 사회경제 배경에 관한 연구: 사상사 위주의 조선 신유학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바탕을 주목하는 연구의 필요성 제시.
2. 신유학과 함께 들어온 선진 강남(江南) 농법: 송나라 때부터 양쯔강 이남 지역에서 발달한 집약농업 기술과 의술 개발에 자극받아 고려말에 등장한 신흥사대부들이 이를 한국에서도 실현하려는 노력을 경주. 의술 개발은 소아 사망률을 낮추어 농업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었음.
3. 조선의 요·순으로서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고려말 이래의 위와 같은 과제를 완성한 군주로서 『농사직설』은 연작 상경 농업기술을 전국에 보급하기 위한 것이었고, 『향약집성방』은 고려말 이래 토산 약재 사용의 향약(鄉藥) 의술 개발을 총정리하는 편찬사업의 성과였음. 세종 시대는 중농정책이 강구되어 대부분의 농경지가 시비법(施肥法)을 개발하여 휴한법의 제약에서 벗어나 연작 상경하는 토지로 바뀌어 '요순의 성대'를 자부할 정도가 됨.
4. 사림세력의 형성과 새로운 정치 형태로서 봉당정치 등장: 15세기 농업경제의 발달로 지방 중소지주층의 성장하고 서원의 발달로 지식인화하면서 정치

집단이 학파로 등장, 이들이 남송 주자의 '봉당론'에 입각한 봉당정치를 실현하는 변화가 생김. 지방 중소지주 출신의 신진 사림세력은 15세기 중앙집권 관료제체 확립 속에 세습 귀족의 기반을 획득한 훈구 척신들에 대한 비판세력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주자 성리학의 가치를 강조.

5. 소빙기(little ice age: 1490-1760) 자연 대재난 속의 신유학: 15세기의 경제발전 성과는 16세기에 사림의 등장과 봉당정치 대두를 가져왔으나 1490년부터 시작한 소빙기 자연 대재난이 시작하면서 시련에 부딪침. 16세기 중반 퇴계, 율곡 성리학의 심학(心學) 경향은 자연재난을 사람의 잘못에 대한 하늘의 견고(譴告)로 해석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도(公道) 실현의 노력으로서 심성 도야를 강조한 결과였음. 그러나 그치지 않는 천재지변 속에 백성의 피폐가 갈수록 심해져 민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 개선을 강조하는 실학(實學)이 등장하여 그 비중을 높여갔음. 대동법, 균역법의 시행을 이 관점에서 해석했음.
6. 18세기 민국 이념의 등장 배경: 숙종, 영조, 정조 3대는 소민(小民) 보호를 강조하여 양반 사대부의 봉당정치 만능주의를 누르기 위해 왕권 중심의 탕평정치를 지향했음. 정조는 재위 20년에 「만천명월주인옹자서(萬川明月主人翁自序)」에서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하늘에 뜬 밝은 달[明月]이 수많은 하천[萬川]에 하나씩 담기는 것에 비유하였는데 이는 곧 일반 백성 소민을 군주의 분신으로 간주하는 획기적인 사상으로 숙종-영조-정조 3대의 탕평 정치의 소민 보호주의의 총정리였음.
7. 국기 태극기에 반영된 '민국 정치' 이념: 정조의 '소민보호주의' 사상을 흠모한 고종은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에서 국기의 제작이 필요했을 때, 태극이 음양으로 나뉜 형상을 가운데 두고 『역학계몽』에 제시된 '선천팔괘'와 '후천팔괘'를 인편에 하나로 놓은, '선천'과 '후천'이 합치하는 관계의 중요성을 표시한 다이어그램을 취해 '태극사괘기'를 국기에 담음.

이외에 이태진 회원은 지난 1년간 아래와 같은 강연,

토론, 단문 등을 발표했다.

1. 「고종황제의 구국 조서(詔書)와 순종황제의 순행(巡幸)」 『의친왕과 황실의 항일독립운동』 (2022 경운박물관 하반기 특별전 연계 학술심포지엄,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 의친왕기념사업회, 2022년 10월 21일) 6~17쪽.
2. 「대한제국의 상징, 이화문」 『이화문 李花紋』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왕실유물 연구총서, 2022년 12월 9일), 6~9쪽.
3. 축사 「신정 역주 『이충무공전서』 출간에 붙여」, 석오문화재단 기획, 2023년 4월, 태학사.
4. 2023년 5월 31일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 도헌포럼 초빙 강연: 2022년도 간행 저서 『일본제국의 ‘동양사’ 개발과 천황제 파시즘』 · 『일본제국의 대외침략과 동방학 변천』 소개. 『한림지성-지성의 등대』 2023년 3호 가을호에 요약문 실림.
5. 2023년 8월 10일(국회도서관 강당) 열린 광복회 주최, “이승만 건국론 비판 학술회의”에 토론문 “1919년 출범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의 역사적 위상” 제출.

최병현 회원은 지난 1년간 3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신라 후기 경주지역의 황혈식석실분 전개와 중고 · 중대의 왕릉」(『崇實史學』 50, 崇實史學會, 2023. 6. pp. 275-336)은 2022년 10월 25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주최 학술대회 《석실묘로 본 신라의 발전과 확장》에서 기조발표한 논문을 수정 · 보완한 것이다. 신라는 서기 6세기 초 법흥왕 때에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는 등 국가체제를 일신하면서 새로운 묘제도 수용하여, 왕경의 최고 지배세력의 고분이 적석목곽분에서 황혈식석실분으로 바뀌었다. 경주에서 축조된 초기의 황혈식석실분의 구조는 그에 앞서 서기 5세기 중엽 경부터 경산, 포항 등 일부 지방에서 축조되고 있었던 것과 같았다. 최병현 회원은 이를 신라 중앙이 지방의 造墓工人을 받아들여 황혈식석실분을 축조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신라의 왕릉도 이때부터 황혈식석실분으로 축조되는데, 법흥왕릉, 진흥왕릉, 진지왕릉 등 중고기 초기의 왕릉들은 경주분지 서쪽의 서악동왕릉군에, 중고기 후기 동륜대자계의 진평왕릉과 선덕왕릉은 경주 동쪽의 낭산 일대

에, 진덕왕릉은 월성 남쪽에 축조되어, 후일 방리로 구획되는 계획도시 왕경의 경계가 되었다. 중대를 개창한 무열왕릉은 왕통을 중고기 초기 왕실에 잇기 위해 그의父 추존 문흥대왕의 능과 함께 서악동왕릉군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신문왕 이하 중대 왕들의 능은 경주의 동남쪽 토함산 방향으로 배치되었는데, 최병현 회원은 그것이 동해구의 문무왕릉을 왕래하는 교통로와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신라 하대는 왕릉들의 배치 질서도 무너져 왕릉 배치의 기획성이나 진행 방향이 찾아지지 않아, 이 논문에서도 신라 하대 왕릉들의 비정은 유보하였다.

다른 두 편은 가야와 관련된 논문들이다. 「원삼국시기 김해지역의 목관묘 · 목곽묘 전개와 구야국」(『中央考古研究』 39, 中央文化財研究院, 2022. 10. pp.1-54)에서는 기원전 1세기~서기 3세기 김해지역에서 축조된 목관묘와 목곽묘의 분석을 통해 가야 성립 이전 구야국의 성장과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최병현 회원은 지식묘사회가 오래 지속된 김해지역에서는 경주의 사로국보다 1세기 이상 늦게 서기 1세기 중엽 경이 되어서야 구야국이 성립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원삼국시기 김해지역의 대표적인 목관묘 · 목곽묘 유적은 양동리고분군과 대성동고분군인데, 구야국 전기에도 계층화가 이루어졌지만 정치적 수장의 배출은 한 곳으로 고정되지 않았으나, 후기에는 계층화가 더욱 진전되고 정치적 수장을 대성동고분군 세력에서 고정적으로 배출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한국고대사에서 창녕은 원래 가야였나?」(『學術院論文集』 62-1, 大韓民國學術院, 2023. pp. 181-309)는 학술원의 2022년도 전문학술활동 지원으로 작성된 논문이다. 『三國遺事』에서는 고대 창녕에 ‘非火伽耶’가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 기록은 신라 말~고려 초 반신라적인 호족들의 활동 시기에 생긴 전승에 의한 것으로 사료비판되었으나, 고대의 창녕이 신라에 속했는지 가야에 속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최병현 회원은 이 논문에서 창녕지역의 고고학 자료를 통시적으로 살펴 창녕지역에서 성장한 고대 정치체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문헌사에서는 『三國志』 「東夷傳」의 辰韓 不斯國을 창녕지역에서 성장한 정치체라고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고학 자료는 아직

조사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서기 3세기 말·4세기 초부터 555년 신라가 下州를 설치하여 창녕을 지방제도에 편입하기까지, 창녕지역의 고고학 자료는 기본적으로 신라계 고분과 토기, 위세품들이어서, 창녕지역이 신라에 속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창녕지역에서는 4세기 후엽에 일시 인접한 청도지역과 함께 김해 지역에서 성립한 가야양식 토기가 부장된 목곽묘가 축조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최병현 회원은 이를 『日本書紀』 『神功紀』에 기록된, 서기 369년 백제 근초고왕의 신라 침공과 “7국 평정 기사에 창녕의 옛 이름으로 보이는 ‘比自炧’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때 김해의 가야와 연계한 백제 근초고왕의 남정으로 서기 4세기 후엽 창녕은 일시 신라에서 이탈되었으나 4세기 말부터는 신라가 다시 창녕을 회복하여 지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외에 최병현 회원은 2023년 8월 31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주최 학술대회 《신라 왕경 토기문화의 흐름과 변화》에서 「신라 왕경기 토기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하였는데, 지난 1970년부터 신라 토기를 연구하여 양식의 변화에 따라 시기구분하고 편년해 온 내용을 회고하면서, 아직 학계에서 연구가 미진한 통일신라기 신라토기에 대한 쟁점과 과제들을 종합하였다.

임돈희 회원은 지난 1년간 다음과 같이 네 차례의 강연을 했다.

1. “세계무형유산과 우리문화”: 국립민속박물관 박물관대학 강연 2023년 3월 20일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2. “밀양아리랑의 문화유산과 문화재적 가치,” 2023년 4월 28일 창원시 창원 컨벤션 센터
3.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정책과 한국무형유산” 2023년 5월 4일 보령 문화원 강당
4. 기조강연 “‘한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제언” 2023년 10월 8일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

김호동 회원은 몽골 지배하 서아시아에서 재상을 지냈

던 라시드 앓 딘(Rashīd al-Dīn, 1274–1318)이 페르시아어로 편찬한 『集史(Jām' al-tavārikh)』의 마지막 권인 제5권을 금년 3월 말 출간하였다. 『집사』는 (1) 몽골제국사, (2) 세계민족사, (3) 세계지리지라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김호동 회원은 이 가운데 몽골제국사 부분을 우리 말로 번역 출간해 왔고, 그 마지막 부분을 『이슬람의 제왕, 가잔 칸과 그의 시대 — 라시드 앓 딘의 집사 5』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것이다. 이로써 2002년부터 역주를 시작한 긴 장정이 끝나게 된 것인데, 이에 앞서 출판된 네 권의 제목과 출간 연도는 아래와 같다.

『부족지 — 라시드 앓 딘의 집사 1』, 사계절, 2002.

『칭기스 칸기 — 라시드 앓 딘의 집사 2』, 사계절, 2003.

『칸의 후예들 — 라시드 앓 딘의 집사 3』, 사계절, 2005.

『일 칸들의 역사 — 라시드 앓 딘의 집사 4』, 사계절, 2018.

이번에 출간된 『집사 제5권』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라시드 앓 딘이 주군으로 모시며 봉사하던 가잔 칸(Ghazan Khan, 재위, 1295–1304) 치세 동안 발생한 사건들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가잔 칸이 재위 기간 동안에 반포했던 칙령들의 사본을 문자 그대로 옮기고 나아가 그가 실시한 다양한 개혁정책의 내용을 상세하게 서술한 부분이다. 이로써 『집사』 몽골제국사 부분이 한글로 완역되었고, 이는 1940–50년대의 러시아어 번역, 1998년 영어 번역에 이어 세번째에 해당된다.

금년 8월에는 지난 10여년간 김호동 회원이 심혈을 기울여 온 『캠브리지 몽골제국사』(*The Cambridge History of the Mongol Empire*, 2 vols., 총 1300 페이지)가 출판되었다. “캠브리지사(Cambridge Histories)” 시리즈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출판부가 1902년 처음 출판을 시작한 이래, 인문·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현재까지 400권이 넘는 도서들이 출간되어, 역사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학술서 시리즈이다. 김호동 회원은 2012년 이스라엘 히브루 대학의 미할 비란(Michal Biran) 교수와 함께 캠브리지 대학 출판부에 『캠브리지 몽골제국사』의 출판 필요성을 역

설하는 제안서를 제출했고 그 해 12월에 이 제안이 수락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두 편집자가 40명이 넘는 몽골제국사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에게 글을 위촉·수집하여, 10년에 걸친 상호 논의와 교정 등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금년 8월 중순에 최종적으로 출판을 보게 된 것이다. 이 책은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권은 (1) 몽골제국을 연대기적으로 다룬 정치사적 서술과, (2) 제도·군사·경제·종교·과학·예술·여성·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룬 '주제별(thematic)'서술, (3) 몽골제국에 복속된 다양한 지역(고려, 러시아, 조지아, 카프카즈 등지)의 역사를 다룬 부분, (4) 제국의 영역 밖에 놓인 지역(서유럽, 남아시아, 중동 일부) 등을 다루었다. 제2권은 몽골제국의 역사를 연구할 때 필요한 원사료(primary sources)를 언어별로 분류하여, 현존하는 사본(寫本)과 간본(刊本)들, 번역과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한문, 페르시아어, 아랍어, 라틴어 등 모두 16개의 상이한 언어로 쓰여진 사료들의 상세한 해제이며, 금후 연구자들에게는 필수적 지침서가 될 것이다. 편집자들이 이 책에서 천명하고 지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모토는 몽골제국사를 각 지역 단위로 나뉘어진 '부분들의 집합'으로 파악하던 기존의 관점을 극복하고, 유라시아 전역에 걸친 제국을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하는 '전체적 관점(holistic perspective)'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 책은 몽골제국사 연구에서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이루고, 금후 많은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식 회원은 2022년도 학술원 전문학술활동 지원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 논문, “조선 후기 관상감 관원들의 북경행을 통한 이익 추구하고 그에 대한 조정 신료들과 국왕의 인식”을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제62집 1호 (2023) 311-347에 발표했다. 청(淸)이 시헌력(時憲曆)을 채택한 이후 조선은 그것을 배워 조선의 역사를 제작하기 위해 북경에 관상감(觀象監) 관원을 보내 청의 역(曆) 계산법을 배워오고 필요한 서책과 자료를 구해 오게

하는 일이 잦았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면서 조정 신료들 사이에서는 관상감 관원들이 북경 사행에 참여하려는 것이 역서(曆書) 간행을 위한 새로운 방법의 습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핑계로 내세워 북경 여행에 참여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그리고 돌아온 이후에, 생기는 각종 이익을 추구해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겨나기도 했으며 때로는 국왕도 그 같은 의심을 공유했다. 사실 관상감 관원들이 그 같은 의심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 실제로 관상감은 북경에 관원을 보내는 일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고 기회만 되면 끈질기게 여러 이유를 들어 관원을 파견하려고 노력했다. 때로 관상감은 관원들을 북경에 파견하는 것 자체를 추구하면서 북경에 가서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도 일단 관원의 파견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었고, 파견할 필요가 없는 데도 굳이 이유를 들면서 파견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이 논문에서 김영식 회원은 몇가지 구체적 사례들에 바탕해서 북경 파견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는 관상감 관원들의 모습과 이들의 그 같은 의도를 의심하는 국왕과 조정 신료들의 인식을 보였다.

고동환 회원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22년 12월 간행한 『한국생업기술사전: 상공업 1, 2』에 강경장(江景場), 거간(居間), 경강상인(京江商人), 금난전권(禁亂塵權), 난전(亂塵), 도고(都賈), 도중(都中), 부상대고(富商大賈), 상업(商業), 선상(船商), 시전상인(市塵商人), 시전행랑(市塵行廊), 신해통공(辛亥通共), 어음(於音), 여각(旅閣), 여객주인(旅客主人), 여리군(餘利軍), 장빙업자(藏氷業者), 전안(塵案), 좌고(坐賈), 포구시장(浦口市場) 등 21개 항목을 집필하였고, 서울역사박물관에서 2022년 12월 간행한 『서울역사박물관 상설전시도록-서울, 장소, 사람, 기억을 담다』의 제1장 조선시대의 서울(1392-1863) 중에 경도(京都)로서의 한양, 조선후기 한양의 번영, 상업도시 한양, 뱃길의 중심 京江 등의 항목을 집필하였다. ㉠

[학술원 집담회]

2023년도 제3차 집담회 보고서
“문명의 위기와 인문학의 사명”

張敬烈 會員(영문학)



1. 개관, 또는 보고를 시작하며

‘가을은 가을이로되 가을이 아니로다.’ 이처럼 객쩍고 실없는 말이 절로 입가를 스칠 정도로 불볕더위가 이어지던 9월 중순에 들어선 어느 날, 흐린 하늘이 하루의 아침을 열었다. 건물을 나서니 빗방울이 한두 방울 얼굴을 적시기에 다시 들어가 우산을 챙겨 들고 전철역 쪽으로 빠른 발걸음을 옮겼다. 바로 그날은 9월 13일로, 학술원 3층의 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3차 학술원 집담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그날의 집담회는 인사 제2분과 조동일 회원의 주제 발표로 시작되었다. “문명의 위기와 인문학의 사명”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된 조동일 회원의 발표에 이어, 인사 제3분과 김호동 회원과 자연 제3분과 한송엽 회원의 약정 토론이 뒤를 이었다. 약정 토론이 마무리되었을 때는 이미 12시가 넘었기에 약 30분가량 점심식사 자리를 가진 다음, 참석 회원 모두의 자유로운 질의와 이에 따른 토론의 자리가 이어졌다. 진지하고 열띤 의견 제시와 토론 및 논의는 오후 2시 가까이까지 계속되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집담회가 시작될 무렵 빗방울 떨어짐에 불과하던 비가 ‘비다운 비’로 바뀌더니 모임이 마무리될 때까지도 그치지 않고 학술원 건물은 물론 그 주변의 온 세상을 적셨다.

주제 발표자와 약정 토론자들 이외에, 적지 않은 회원들이 이번 모임의 자리를 빛내 주었다. 차례로 열거하자면, 인사 제2분과 홍재성 회원과 김인환 회원, 인사 제3분과 임돈희 회원, 인사 제4분과 김효전 회원과 권오승 회원과 최병조 회원, 인사 제5분과 이정복 회원, 인사 제6분과 김기영 회원과 이지순 회원, 자연 제1분과 이호인 회원과 박성현 회원, 자연 제2분과 임변장 회원과 조완규 회원, 자연 제5분과 박승우 회원이 모두 주제 발표자와 약정 토론자들의 논의를 경청한 다음, 논의에 보탬이 되는 유익한 의견을 피력하거나 논의에 깊이를 더하는 쟁점을 제시하였다. 이상 열일곱 분의 회원과 자리를 함께함으로써 모임의 사회자 역할을 맡아 했던 현재의 보고자도 깊이 생각하고 안목을 넓히는 뜻깊고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사실 ‘위기’와 ‘인문학’은 오늘날의 현실을 진단하고 나름의 타개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학자들의 모임에서라면 빈번하게 입에 오르내리는 용어들이다. 무엇보다 ‘인문학’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진단과 함께 위기에 처한 인문학을 구원하기 위한 해결책이 자주 논의된다. 하지만 위기에 대한 진단이 적지 않은 경우 막연하고 감상적이며, 해결책도 모호하고 추상적일 때가 허다하다. 아울러, ‘위기’에 처한 것은 문명 또는 문화이며 이 위기에 직면하여 ‘인문학’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도 빈번하게 논의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위기인가와 인문학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 역시 구체성이나 실천성을 결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는 달리, 후자의 문제를 제기하되, 조동일 회원은 위기에 처한 것은 문명의 이러저러한 측면이라는 구체적인 진단과 함께, 이 같은 위기에 직면하여 인문학이 떠맡아야 할 실천적인 역할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진 1. 사회자 장경렬 회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조동일 회원의 문제 제기와 해결

방안은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다. 조동일 회원은 오랜 세월을 걸쳐 인문학 연구의 지평地平을 넓히는 쪽으로 학문 활동을 진행해 왔거니와, 그의 학문적 관심은 한국의 문화/문학 연구에서 동아시아—즉, 한자 및 한문 문화권—의 문화/문학 연구로, 나아가 가능한 한 세계의 모든 문화권 또는 문명권을 아우르는 전술지구적 문화/문학 연구로 확장을 거듭해 왔다. 아울러, 그는 인간의 지적 탐구 전술영역을 지도화地圖化할 때 인문학이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존재론적인 탐구와 어떤 위상을 차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론적인 성찰에도 관심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이 과정에 형성된 조동일 회원의 거시적 안목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것으로, 그 누구도 이 점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같은 안목을 반영하고 있는 조동일 회원의 이번 논의는 그런 만큼, 거듭 말하거니와, 예사로운 것이 아니다. 이때문에, 인문학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연구와 자연과학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들도 관심을 가져 마땅한 것이 그의 이번 논의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2. 조동일 회원의 주제 발표문 요약



사진 2. 주제 발표자 조동일 회원

주제 발표문에서 조동일 회원은 2023년 8월에 도쿄에서 열린 “세계화 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인문학”(Humanities in the Global and Digital Age)이라는 주제의 학술 대회에 참가한 소회를 잠깐 피력한 다음, 곧바로 “문명의 위기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직립한다. 그의 진단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명의 위기는 세 측면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는 각각 (1) 모두를 불행에 이르게 할 만큼 과도한 세력 확장을 피하는 경쟁이 만연한 현실의 측면, (2) 자칫 생존이 불가능해질 만큼 자연 생태 환경 파괴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의 측면, (3) 재앙을 초래할 만큼 인공지능이 제어 불가능한 지점에 이른 현실의 측면과 관련된 것으로, 조동일 회원은 무엇보다 이 같은 현실의 측면들이 야기하는 위기에 직면하여 종교와 정치에 기대할 바가 없음을 역설한다.

그의 제안에 따르면, 종교지도자들이나 정치가들이 이 같은 위기에서 문명을 구원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버리고, “전문 지식과 사명감을 겸비한 학자들이 선두에 나서야” 한다. 다시 말해, 넓게 분류하여 세 영역의 학문—그의 표현을 따르면, “자연학문”과 “사회학문”과 “인문학문”—에 종사하는 학자들이 위기 해소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세 영역의 학문에 종사하는 학자들이 사명을 자각하고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가운데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조동일 회원의 입장인 것이다. 이 같은 긴밀한 협력을 전제로 하되, 그는 인문학자의 입장에서 “인문학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그가 시도하고자 하는 바는 “인문학의 소관이고 임무”인 “총론”을 마련하는 일이다.

총론 제시를 위해 조동일 회원이 제안한 개념은 “대등생극론對等生克論”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현실의 측면과 관련해서는 “만인대등생극론萬人對等生克論”으로, 둘째 현실의 측면과 관련해서는 “만생대등생극론萬生對等生克論”과 “만물대등생극론萬物對等生克論”으로 위기에 대처할 것을, 셋째 현실의 측면과 관련해서는 “연구와 창작, 논리와 상상이 둘이 아니게 하는 달관언어達觀言語”를 사용함으로써 위기에 대처할 것을 그는 제안한다.

이어지는 논의에서 조동일 회원은 구체적으로 첫째 측면의 위기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예로 하여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대등론이 실현된 대등사회”임을 역설한다. 나아가, 기독교와 이슬람교 사이의 갈등을 예로 삼아 종교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진정으로 불편부당하고 전적으로 타당한 대등종교학”의 확립

이 필요함을 힘주어 말한다.

둘째 측면의 위기는 인간 우위를 부정하고 만물과 만생이 대등함을 깨우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조동일 회원의 입장이다. 논의의 자리에서 그는 이색李穡과 홍대용洪大容의 글을 인용하여 이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셋째 측면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기에 앞서, 조동일 회원은 “모든 것을 두루 대강 파악해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경지를 말”하는 “달관”의 언어가 인문학에 있음을 주목한다. 이어서, “연구와 창작, 논리와 상상을 하나로”하는 “달관언어”가 있기에, “가장 앞섰다는 과학이 파탄을 보이는 사태”에 직면하여 “인문학의 타당성과 유용성을 입증”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달관언어”에 기대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을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사람들은 “사람이 지닌 더 큰 능력을 발휘해, 인공지능이 사람을 따를 수 없는 다른 길로 가야” 함을 역설한다.

끝으로, 조동일 회원은 앞서 말한 세 학문 분야의 협업을 다시금 강조함으로써 논의를 마감한다. 즉, “지금까지 말한 작업을 인문학문에서 선도해 사회학문이나 자연학문에 충격을 주고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그가 이번 발제를 통해 “전문지식과 사명감을 겸비한 [세 학문 영역의] 학자들”에게 던지는 바의 제안이자 바라는 바의 염원이라 할 수 있겠다.

3. 김호동 회원과 한송엽 회원의 약정 토론 요약과 조동일 회원의 답변

약정 토론문에서 김호동 회원은 먼저 “세 가지 위기”에 대한 조동일 회원의 지적이 시의적절한 것임에 동감을 표한다. 나아가, “세력을 확장하는 경쟁이 예측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확대되어 불행을 초래”하게 된 현실을 “고대 중국에서 언급된 ‘패도(覇道)’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21세기의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전문 지식과 사명감’을 지닌 인문학자들이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조동



사진 3. 약정 토론자 김호동 회원

일 회원의 입장에서 “‘왕도(王道)’ 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한 선현들의 주장”을 떠올리기도 한다. 아울러, 이 같은 “세력 경쟁의 위기”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 환경의 파괴”와 “인공지능이 가져 올 수 있는 재앙”에 대한 조동일 회원의 진단도 “금후 많은 논의에서 좋은 출발점이 되리라”는 견해를 피력한다.

이어서, 김호동 회원은 조동일 회원이 제시한 “총체적 ‘처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질의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의]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김호동 회원은 조동일 회원이 제안한 “만인대등생극론”과 관련하여 “종교적 대립에 대한 극복 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는 듯”함을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조동일 회원은 종교적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무종교인’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지만, 무종교인보다 기독교도와 이슬람교도 등 종교인의 비율이 오히려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아울러, 조동일 회원은 “무종교인들이 배타적이지 않고 불편부당하기 때문에 ‘대등종교학’을 이룩하고 종교 간 타협을 성취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지만, “무종교인”의 개념을 좀 더 세분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김호동 회원의 의견이다. 그 이유는 ‘무종교인’에는 ‘무신론자’(atheists)와 ‘불가지론자’(agnostics)와 ‘무종교자’(non-religious)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둘째, 조동일 회원은 둘째 위기와 관련하여 “모든 사물과 생물이 대등하다는 인식이 확립되면 무절제한 파괴와

살육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김호동 회원은 “[조동일 회원이 제시한] 이론이 실행력 및 실천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향이 논의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셋째, 김호동 회원은 “달관언어의 구체적인 사례들과 그 효용에 대해서는 내년에 『대등의 길』이라는 책이 출간되면 그 전모를 알 수 있게 되겠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도 피력한다. 이와 함께, “현재 인구에 회자되는 소위 ‘생성형(generative)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기존의 지식을 토대로 스스로 학습의 범위를 넓혀 ‘창작’의 영역까지 잠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물음도 제기한다.



사진 4. 약정 토론회자 한송엽 회원

김호동 회원에 이어 한송엽 회원은 깔끔하고 간명하게 조동일 회원의 발표문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약정 토론회문을 시작한다. 이어서, 그는 조동일 회원의 논의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인 “대등상극론”을 “모든 생물, 모든 인간, 모든 물체가 다 서로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상생相生하고 상극相克한다는 이론”으로, 또한 “상극이 상생이고 상생이 상극이라는 이론”으로 정리하고, 바로 이 “대등상극론”이야말로 “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는 조동일 회원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뿐만 아니라, 조동일 회원의 전반적인 논의의 “결론”에 해당하는 핵심은 “전공 구분을 넘어서서 모든 학생에게 창조력 훈련을 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데 있음도 적시한다.

주제 발표문에 대한 정리와 요약을 마감한 다음, 한송

엽 회원은 “만인대등생극론”의 “사례”를 하나 소개한다. 그에 의하면, “독일 헌법 1조는 ‘인간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로 시작”된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듯, 독일의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가 ‘존엄 교육’”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의 존엄성을 자각하고 남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독일의 학교 교육에서 핵심을 이룬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상생”이 아니겠는가라는 한송엽 회원의 의견은 이해하기 쉽고 간명한 예에 기댄 탁견卓見이라 하겠다. 아울러, 그는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교육은 학생을 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이기에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함을 주목한다. 바로 이것이 “상극”에 해당한다는 그의 의견 역시 탁견이라 할 수 있겠다. 이 같은 진단에 따라 한송엽 회원은 우리나라의 교육에서 “상극의 원인을 찾아서 학생들이 서로 상생하는 관계로 회복되도록” 하나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한다.

아울러, 조동일 회원이 말하는 “문명의 위기”의 둘째 항목에 유념하여, 한송엽 회원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상극의 관계에서 상생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다음에, 궁극적으로 교육의 문제와 관련되는 셋째 항목으로 논의의 초점을 옮긴다. 이와 관련하여, 한송엽 회원은 상극을 상생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판적批判的 사고思考”를 함양하는 교육임을 힘주어 말한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학도工學徒가 갖추어야 할 능력” 가운데 하나가 “비판적 사고 능력”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그 자신이 이를 실질적인 공학 교육의 현장에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도 밝힌다. 어찌 보면, 이는 조동일 회원이 강조하고 한송엽 회원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창조력 훈련을 하는 교육”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공학도에게도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그의 진단 역시 조동일 회원의 전체적인 논지에 맞닿아 있다.

이상의 의견에 대해 조동일 회원은 각각의 의문 또는 의견과 관련하여 간략한 해명을 덧붙였다. (이제까지의 논의가 발제문과 토론문에 대한 요약이라는 점에서 현재

형 서술의 방법을 채용했지만, 이제부터 현장에서 이루어진 논의에 대한 보고라는 점에서 이 보고서를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과거형 진술로 바꾸고자 한다.) 먼저, 김호동 회원의 첫째 논점과 관련하여 조동일 회원은 자신의 저서 『철학사와 문학사, 둘인가 하나인가』(지식산업사, 2000)의 433쪽—볼테르의 종교관을 예로 삼아 ‘유신론’과 ‘무신론’의 중간에 해당하는 ‘이신론’에 대한 논의를 다룬 부분—을 자료로 준비하여 이를 참고할 것을 청하였다. 둘째 논점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음을 밝히면서 조동일 회원은 이론만으로는 미비하며 실천적인 교육이 필수 요건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논의를 앞으로 계속 이어갈 것임을 약속하였다. 셋째 논점과 관련하여 조동일 회원은 김호동 회원 자신도 언급한 바 있는 저서를 통해 그 전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임을, 또한 인공지능의 문제를 거론함은 총체적인 창조 교육 또는 창조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강화하자는 뜻에서였음을 밝혔다.

한송엽 회원의 약정 토론과 관련하여 조동일 회원은 전공과 관계없이 인문학도와 사회과학도와 자연과학도가 함께 공동 수업을 함으로써 각 영역의 학문이 하나가 되어 문명의 위기를 타개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의견으로 화답하였다. 조동일 회원은 하나의 실천적인 방안으로 전공을 초월하여 ‘시 짓기’와 같은 ‘창조적인 활동’을 교과과정의 일부로 도입할 수 있으리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아울러, 독일 헌법이 ‘인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헌법은 ‘국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배타적이고 한정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4. 자유 토론의 과정에서 참석 회원들이 제시한 견해와 쟁점

정오를 넘길 때까지 이어진 주제 발표와 약정 토론 덕분에 점심식사가 늦어졌다. 주룩주룩 내리는 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온기를 잃지 않은 도시락이 회의실 문밖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감지한 집담회 준비위원장 이정복 회원의 제안에 따라, 모임에 참석한 모든 회원은 우선 점심식



사진 5. 2023년 제3차 학술원 집담회

사를 해결한 다음에 자유로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점심식사 후에 이번 모임에 참석한 모든 회원이 거의 80분 가까운 시간 동안 토론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주제 발표와 약정 토론만큼이나 진지하면서도 뜨겁고 활기찬 논의가 헤아릴 수 없이 이어졌지만, 특히 호홉이 길다고 판단되는 몇몇 논점을 간추려 이 자리에 먼저 소개하기로 한다.

앞선 주제 발표의 자리에서 조동일 회원은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덕분에 우리나라는 “종교의 충돌을 중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임돈희 회원은 이 같은 견해에 힘을 실어 주는 다음과 같은 관점을 소개하였다. 한국인의 무속신앙을 살펴보면, 한국의 신들 사이에는 상하의 위계 관념이 없이 각자 독립해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거니와, 이를 ‘병립신관(竝立神觀)’이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병립신관을 조동일 회원이 말하는 대등종교라는 개념과 연결 가능한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임돈희 회원의 의견이었다. 이에 대해 조동일 회원은 임돈희 회원의 지적이 아주 중요한 것임을 힘주어 말하면서, 사실 ‘병립신관’이 대등종교론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한편, 홍재성 회원은 문명의 위기에 대해 거론할 때 논의의 초점이 바뀌거나 다른 방향으로 심화될 수 있음도 지적하였다. 무엇보다 종교적 갈등의 역사 및 패권주의적인 정치적 갈등의 역사가 아주 오래된 것임을 감안할 때, 또한 인공지능의 발달 자체가 문명의 위기를 야기하

는 요인 가운데 하나일 수 있으나 전면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좀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기의 요인은 조동일 회원도 언급한 환경의 위기라는 측면에서 좀 더 심각하게 논의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홍재성 회원의 의견이었다. 예컨대, 과학기술의 역기능으로 초래된 지구의 온난화야말로 환경의 위기를 논의할 때 핵심적인 논제가 될 수 있거니와, 이야말로 문명의 위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인류의 위기 또는 지구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조동일 회원의 주제 발표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홍재성 회원의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동일 회원은 인문학자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될 일 쪽으로 논의를 진행하다 보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게 되었음을 말하였다.

이번에 주제 발표를 한 조동일 회원의 발표문에는 우리에게 낯선 용어가 적지 않아 누구나 이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겨야 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용어조차 분야에 따라 깊은 생각과 이해가 요구되는 것이 있음을 새삼 깨우치는 견해를 제공한 회원도 있었는데, 그는 바로 김효전 회원이다. 앞서 밝혔듯, 조동일 회원은 독일 헌법과 달리 우리나라 헌법에는 ‘인간’이나 ‘사람’이 아닌 ‘국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한정적이고 배타적인 언어 사용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거니와, 김효전 회원은 법학자로서 이에 대한 해명의 자리를 가졌다. 우리나라 헌법에 ‘국민’이 주어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인간’으로 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였다. 그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 경우 복잡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무엇보다 ‘헌법의 효력 범위’가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을 보호해 준다’는 의미에서 벗어나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을 우리나라 헌법의 논의 대상으로 삼게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과 함께 김효전 회원은 독일 사람이 생각하는 인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각도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각 나라마다 역사적 배경과 사회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또한 각국의 사람들이 가진 ‘법의식’ 또는 ‘법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

등등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도 다를 수밖에 없음도 지적하였다.

조동일 회원이 위기의 단초로 거론한 인공지능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나름의 독자적인 견해를 피력한 회원이 있었는데, 박성현 회원이 그 주인공이다. 박성현 회원은 인공지능이 제어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 해당 영역을 연구하는 학자들조차 걱정하는 사례가 있음을 환기하였다. 즉,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시대가 와서 인간이 오히려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성현 회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을 명백히 밝혔다. 무엇보다 인공지능 자체도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우려할 만큼 걱정하는 시기가 오면, 사람은 지혜롭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에게 생길 것이라는 것이 박성현 회원의 예측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몇 년 전에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 인간을 이기자 바둑의 전문 기사들이 모두 할 일을 잃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오히려 바둑의 인기가 더 늘고 또한 기사들의 실력도 더 향상되었다는 점에 참석 회원 모두의 주의를 환기하였다. 그런 현상이 가능함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보고 공부하는 등,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새롭게 적응하면서 새롭게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박성현 회원의 진단이었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오히려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 주는 대단한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 그의 전망이기도 하였다.

물론 참석한 다른 모든 회원도 소중하고 유익한 견해와 입장과 논점을 피력하였지만, 지면을 고려하여 인사각 분과와 자연 각 분과의 순으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김인환 회원은 세계에는 여러 문명이 있고 그 문명의 고유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과 함께, 이런 점에서 볼 때 대등생극론이 다 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조동일 회원은 대등론은 보편론이 아니라, 차이점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지는 이론임을 부연 설명하였다. 한편, 권오승 회원은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문제 가운데 종교 간의 갈등이 우선순위에 들어갈까라는 의문과 함께, 좀 더 우리의 절실한 문제 쪽으로 조금 더 인문학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정직성, 도덕성, 신뢰’ 쪽으로 인문학이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권오승 회원의 희망이었다. 아울러, 이지순 회원은 조동일 회원이 ‘상극’을 ‘여러 가지 경쟁’의 차원에서 논의하였지만,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경쟁이라는 것은 꼭 남을 죽이는 경쟁이 아니고 같이 사는 경향을 지시할 때가 많음을 지적하였다. 즉, 경쟁의 긍정적인 측면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이호인 회원은 문명의 위기를 말할 때 모든 것이 결국은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욕심만 배제하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박성현 회원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임번장 회원은 조동일 회원이 문명의 위기에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대안을 밝혀 주었는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있고, 이에 따라 실천 매체로서의 교육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박승우 회원은 인문학의 사명을 ‘문화적인 대화, 비판적 사고, 창조적 활동, 윤리적 지식’으로 요약하고, 조동일 회원의 발표에 그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주었다.

이상과 같은 견해 표명과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조동일 회원은 각 회원들의 의견에 답이 될 만한 부연 설명을 하는 일 및 자신의 입장과 용어 및 개념을 더욱 명료하게 제시하기 위한 보충 논의를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이론이 아직 정립의 과정에 있음을 암시하듯, 그는 논의 도중에 자신의 이론에 ‘많은 문제가 얽혀 있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어떻게 하면 진일보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되, 인문학이 ‘잘하는 것’—즉, 이론 만들기과 이론을 제안하는 일—을 보여 주고 이것이 과연 효력이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보자, 함께 토론해 보자는 것이 자신의 입장임을 밝혔다. 그리고 이론을 실행에 옮기는 일은 인문학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학문 분야에서 교육을 통해 그것이 전파되고 실험되고 검증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런 작업을 위해 여러 분과의 분야 학문을 하는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할 수 있는 훌륭한 여건이 학술원에 마련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지는 희망과 제안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모임의 자리에서 진행된 인사 분과 회원들과 자연 분과 회원들 사이의 진지하고 열띤 논의의 자리를 시종일관 지켜본 학계의 원로 가운데도 으뜸 원로인 조완규 회원은 “인문학의 발전 없이, 인문학의 뒷받침 없이 자연과학은 발전할 수 없다는 아주 철저한 믿음”을 갖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이번 모임의 주된 논의 대상이 된 인문학에 큰 힘을 실어 주었다.

5. 보고를 마무리하며

여기까지 이어진 보고에 눈길을 준 이라면, 모임에 참석한 회원 가운데 김기영 회원과 최병조 회원의 의견이 빠져 있음을 감지했을 것이다. 애석하게도, 김기영 회원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약정 토론이 마무리된 후 자리를 떴기에 그의 견해를 청취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병조 회원의 견해가 빠진 이유는 따로 있다. 그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보다는 집담회 자체의 성격에 관한 유의한 견해를 피력하였는데, 이를 위해 이번 모임의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밝히는 일을 삼간 것 같다. (물론 집담회 준비위원장 이정복 회원의 의견도 빠져 있지만, 그는 사회자를 도와 모임의 진행을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 필요에 따라 정치학자의 입장에서 논의에 보탬이 되는 부연 설명 및 정곡을 찌르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하였다.)

모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이정복 회원은 앞으로 집담회의 상황을 녹화하고 공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는데, 최병조 회원은 그와 같은 계획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집담회의 경우, 녹화를 하여 공개하는

예를 어디서도 본 것 같지 않고, 또한 적절해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이 최병조 회원의 의견이었다. 이와 함께, 최병조 회원은 녹화와 공개의 과정을 거치려면 아예 다른 형식의 학술 발표회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싶다는 의견도 피력하였다. 예를 들어, 만물대등상극론이 주제일 경우, 철학자, 법학자, 민속학자와 함께 자연과학 분야에서 화학자를 초청하고 한 주제에 대해 여러 전공에서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면 다양한 각도에서 재미있는 발표가 이루어지리라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다. 그럼으로써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것을 서로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이정복 회원은 앞으로의 집담회 발전 방향에 대한 소중한 의견으로 받아들여, 차후에 이와 관련하여 상의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하였다.

사실 이번 모임부터 녹화가 있을 예정이라는 담당 직원의 전언을 듣고 사회자 역시 마음이 그다지 편치 않았다. 각 방면 전문가들의 논의를 경청하면서 깨우치고 배우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공익의 차원에서 녹화와 공개를 결정했겠지만, 집담회란 성격상 구성원들이 사적으로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또한 서로 깨우쳐 가며 함께 공부를 하는 자리라는 것이 사회자

의 평소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형식을 갖춘 학술 모임이라기보다 형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참석자 개개인의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비공식적인 자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모임의 경우 녹화가 취소되었음을 모임의 자리에 와서 확인하고 사회자의 마음이 한결 편해졌던 것도 사실이다.

마음이 편해졌기 때문인지, 주룩주룩 내리는 비가 만물이 약동하는 여름의 종말을 알리는 쓸쓸한 신호로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여름의 불별더위를 마감하고 이제 진정으로 '가을다운 가을'의 도래를 알리는 반가운 전조로 느껴졌다. 아울러, 집담회가 이어지는 동안 내내 그치지 않고 내리는 비를 창문을 통해 바라보며, 이번 모임의 열기를 달래는 데 자연이 일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느낌이 사회자의 마음과 함께하였다. 차례로 이어지던 주제 발표, 약정 토론, 자유로운 토론의 자리는 적지 않은 회원이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에 밝혔듯, 또한 앞서 사회자 자신도 밝혔듯, 사회자에게도 많은 것을 깨우치고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모임의 자리를 마련해 준 집담회 준비위원들과 모임의 자리에 참석한 모든 회원에게 깊이,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

[학술교류]

제15회 한·일학술포럼 참가기¹⁾

李榮純 會員(수의병리학, 한·일학술포럼 위원장)



1. 포럼의 경과

2019년 제14회 한·일학술포럼이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코로나19의 Pandemic 현상으로 4년간 연기되다가 이번에 도쿄에서 지난 9월 20일에서 9월 22일까지 제15회 한·일학술포럼이 개최되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학술원과 일본학사원은 이 포럼을 비대면 온라인 포럼으로 대처하여 개최해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연기하다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이후 대면 포럼을 개최해야 할지에 대해 여러 번 의견교환을 하였고, 후자의 방향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여 이번 대면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 한·일학술포럼의 의의는 그 포럼의 내용뿐만 아니라 두 기관의 회원들이 직접 만나서 서로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에도 있기 때문에 이 포럼은 앞으로도 우리 회원들이 일본을 방문하고 일본학사원 회원들이 우리를 방문하여 포럼을 개최하는 포맷으로 계속 될 것이다.

특히 일본학사원은 오랫동안의 포럼 공백기를 우려하여 우리 측에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양 기관의 회장단과 포럼위원들이 작년 9월 30일 한 시간여에 걸쳐 포럼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온라인 화상대화를 나누었다. 우리 측에서는 현 회장단과 포럼위원 외에 이 포럼의 창립자이신 이현재 전임회장께서 대화에 참여하셨다. 일본 측에서는 이무라 히로오(井村裕夫) 회장, 사사키 다케시(佐々木毅) 부회장, 노요리 료지(野依良治) 자연부 회장 등 관계 회원들이 참여하였다.

2023년 9월 20일 12시 30분 김포를 출발해 오후 3시 쯤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우리 대표단 15명은 일본학사원의 포럼위원인 와타나베 히로시(渡辺浩) 회원(정치학, 동경대 부총장 역임)과 사무직원들의 영접을 받고 버스로 도쿄 우에노 공원 근처에 있는 일본학사원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우리 대표단 일행은 일본학사원의 회장, 부회장, 자연부 회장, 포럼위원들과 공식적으로 인사를 나누고 일본학사원 총회의실에서 기념촬영을 하였다.



사진 1. 일본학사원 방문 단체사진

그 후 곧 우리는 숙소인 일본학사회관으로 이동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환영 만찬회장으로 출발하였다. 만찬은 KKR Hotel Tokyo에 있는 일본 전통레스토랑 'TAKEHASHI'에서 개최되었다. 만찬에 앞서 우리 대표단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한·일학술포럼의 4년 만의 개최를 축하하는 사사키 다케시 회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사사키 회장은 동경대학 법학부에서 서양정치사상을 가르쳤고 동경대 총장을 역임하고 서울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기도 하였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우리 대표단을 맞이하였고 옆 자리의 이장무 회장께서는 세계정세의 불안정성을 걱정하는 얘기를 건네기도 하였다.

1) 이 보고서 작성에서 새로이 요약문을 써주신 윤덕용, 이지순 회원은 물론, 첫날 만찬장에서의 이장무 회장님의 인사말씀과 이현재 전임회장님께서 해주신 귀중한 말씀은 모두 귀국하셔서 원본을 교정해 주셨기에 가능하게 되었음을 밝히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정보 부회장께도 자료의 전체적인 교정 작업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학술포럼 관계자료를 언제나 필요시에 준비해준 안혜진 주무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만찬 도중 우리 학술원에서는 이장무 회장과 이현재 전임회장께서 만찬사를 하셨습니다. 이장무 회장께서는 최근 몇 년간의 포럼경위를, 이현재 전임회장께서는 한·일학술포럼의 창립경위와 경성제국대학교와 일본학사원 간의 관계의 일 단면을 말씀해 주셨다. 제15회 한·일학술포럼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두 분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게재한다.



사진 2. 이장무 회장 인사말씀

(1) 이장무 회장의 만찬사와 건배제의

존경하는 사사키 원장님을 비롯한 학사원 회원님들의 환영에, 우리 학술원 회원들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훌륭한 전통 레스토랑에서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니 여행의 피로가 모두 풀리는 듯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를 극복한 이후, 오랜만에 양국의 기관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 학술원은 일본학사원과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갈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웃인 일본과 한국이 인류 미래의 지평을 확장해 줄 공영의 터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본의 학사원과 한국의 학술원이 이러한 사명을 지켜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성심껏 행사를 준비해주신 양 학술원 회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에 시작된 한·일학술포럼에서는 매년, 한·일 양국 학술원이 공동의 관심사를 주제로 선정하여 양국의 석학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을 통해 서로의 견해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포럼으로 인해, 우리 두 학술원

회원들의 학술교류 폭이 넓어지고 양국 학자들의 학술교류가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세계적으로 경제와 과학기술이 주목받는 이때, 내일 있을 포럼에서 경제학과 공학 분야의 심도 있는 주제발표와 토론은 매우 흥미롭고 유익할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양국 학술발전에 기여하는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환영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일본학사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 건배를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학사원과 대한민국학술원의 무궁한 발전과 참석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건배”



사진 3. 이현재 전임회장 인사말씀

(2) 이현재 전임회장의 한·일학술포럼 창립경위와 배경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본인 자신의 소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은 공교롭게도 한국과 일본 두 아카데미에 모두 직접, 간접으로 특별한 관계를 지니고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한국학술원에서는 회원으로 선정된 이후, 비교적 오랫동안 회원 여러분들과 협조하며 지내고 있고, 일본학사원에서는 객원회원(우리 학술원의 명예회원)의 영예를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연 양국의 최고 학술기관인 두 아카데미의 발전과 교류의 심화, 그리고 한·일포럼의 발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빈들이 참석하시는 중요한 자리에 단장을 짊고 정중하지 못한 몸매로 나와서 여러분을 뵈게 되어 큰 결례가 되는 듯해서 죄송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집 앞에서 돌에 넘어져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스기무라 다카시(杉村隆) 전

일본학사원 원장 선생께서 아마도 우리 포럼 때가 아닌가 합니다만, 학사회관의 계단에서 실족하시어 오랫동안 고초를 겪으셨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을 되새기게 됩니다.

한·일학술포럼과 관련해서는 언제나 잊을 수 없는 두 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한 분은 일본학사원의 이노구치 히로오(井口洋夫) 선생과 다른 한 분은 한국학술원의 曹大京 선생입니다. 두 분은 뜨겁게 의기투합해서 양 아카데미를 누비면서 궁극에는 당당한 포럼을 발족시켰고, 오늘날 양 아카데미에서 큰 보람을 안고 긴밀한 협조 속에서 이 포럼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럼 창립의 주역이었던 두 분은 모두 애석하게도 고인이 되어서 오늘 우리와 자리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井口선생께서는 일찍이 작고하셨고, 曹선생은 달포 전에 별세하셨습니다. 보고를 드릴 겸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두 분께서는 필경 우리 포럼의 발전된 모습을 보시면서 매우 흡족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얘기는 달라집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이 학사회관을 들어오시면서 큼직한 한 분의 동상이 서 있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학사원 회원들께서는 그분의 명성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학술원 회원들께서는 생소하실 듯해서 몇 마디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전 전에 동경제대에서 국제사법학 교수로 재임하다 학문과 인품을 높이 평가받아 경성제국대학 총장으로 발탁되어 임기 중 근무했던 야마다 사부로(山田三良) 교수입니다. 귀국 후에는 일본학사원 원장으로 선임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분과 관련해서는 이런 일화가 남겨져 있습니다.

전전에 유명한 동대분규가 있었을 때는, 그 해결을 위해서 학식 덕망에 많은 존경을 받았던 山田 교수께서 동대 총장직 취임을 간청받았으나 이를 고사하고 경성제대 총장으로서 임기를 마쳤고, 동대분규는 그 대신 총장으로 임명된 히라가 유즈루(平賀讓) 숙학께서 마무리지었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가진 山田 교수의 동상이 학사회관 안에 세워진 것은 이 시설과 관련하여 어떠한 공헌이나 인연이 있어서일 터인데 거기에 붙어있는 해설을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경성제국대학은 물론 명칭 그대로 일본제국이 제국대학의 하나를 한국 땅에 세웠을 따름이긴 하나, 일본학사원 회원으로 선정되었던 학자들만 해도 총장으로 재임했던 인사로서 초대인 핫토리 우노키치(服部宇之吉, 동양

철학), 3代의 시가 기요시(志賀潔, 세균학·면역학), 4代의 야마다 사부로(山田三良, 국제사법)씨가 있고 교수 중에는 오다가 토모오(尾高朝雄, 법철학)·나카지마 후미오(中島文雄, 영어학)·니시하라 간이치(西原寛一, 상법) 교수 등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일본학사원상을 받은 특이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金允植이라는 일본의 자작 작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雲養集이라는 저서로써 제5회 학사원상 수상자로 되어있습니다. 金允植이라는 수상자는 학자로도 알려져 있고 외무대신도 거쳤고 합방 때는 친일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3·1운동 때 반일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작위를 반납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실까 해서 이런저런 얘기 몇 가지를 두서없이 말씀드리다 보니 만찬 시간을 너무 방해한 듯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포럼이 코로나 만연으로 말미암아 4년 동안이나 휴회했었기 때문에 주최 측인 일본학사원에서 가중되는 어려움도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佐々木 원장님, 野依 간사님을 비롯한 역원 여러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참여하는 분들의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고 또한 다루어질 주제들의 학문적 가치가 높고 회의 진행계획이 매우 치밀한 것으로 미루어 이번 학술대회의 성과가 크게 기대됩니다. 이러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해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 포럼은 크게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내내 건승하시고 학운이 크게 열리시길 바랍니다.

이 두 만찬사에 이어 양 학술원 간의 선물교환이 있었다. 일본학사원 측은 11세기 초부터 시작되어 15세기에 그 기술이 확립된 “와지마누리(輪島塗, 칠기공예, 나뭇결에 생 옷, 쌀 풀, 소성 분말 점토를 섞은 밑바탕을 두껍게 입혀 견고하게 제작되며, 일본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의 대표적 전통공예품)”를 우리에게 선물하였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보 166호 “백자철화매죽문” 향아리를 국립중앙박물관이 현재의 기술로 주문제작한 것을 일본 측에 선물하였다.

2. 학술 포럼

이번의 학술발표 주제는 관례상 주최국이 선정하게 되어 있어서 “경제학과 공학”으로 정해졌으며, 먼저 공학 발표로 캐나다 다케오 좌장 사회로 이지마 스미오 회원이 “카본 나노 튜브의 발견과 그 배경”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고, 사카키 히로유키 회원과 우리 측의 최진호 회원이 토론하였다. 다음 발표는 유정열 좌장의 사회로 윤덕용 회원이 “화학적 구동력에 의한 계면이동”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였으며, 카와이 마키 회원과 최진호 회원이 토론하였다. 다음은 휴식과 오찬의 시간을 가진 후 인문사회계 발표가 있었다. 먼저 일본 측의 발표는 사이토 오사무 회원의 사회로 오츠카 케이지로 회원이 “개도국의 공업화 전략”이란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사이토 오사무 좌장과 우리 측 정기준 회원이 토론하였다. 그 다음에는 유장희 회원의 사회로 이지순 회원이 “인간의 해방과 인류의 발전”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였으며 일본 측 야노 마코도 회원과 정기준 회원이 토론하였다. 지정 발표와 토론이 모두 끝난 후에는 약 40분간 열띤 자유토론을 가졌다.

(1) 공학 세션

I) 카본나노튜브의 발견과 그 배경 (일본학사원 이지마 스미오 회원)

과학에 있어서 발견은 그 배경에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이 축적되었으며 그중에서 하나의 발견이 탄생합니다. 발견의 성공법은 관련되는 주변 과제를 탐색하고 이해한 다음 미지의 현상이나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여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의 역사에는 많은 우연의 발견-세렌디피티적인 발견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현상이나 새로운 물질의 탄생은 우연히 발견된 것이 많습니다. 파스퇴르는 ‘관찰의 분야에 있어서 발견은 준비를 잘한 사람을 지지합니다’(Dans les champs de l’observation, le hasard ne favorise que les esprits préparés)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자가 1991년에 카본나노튜브(CNT)를 발견한 것은 많은 연구자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발견에 이르기 전에 그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이제

부터 소개하는 CNT의 발견도 많은 발견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르기까지 긴 연구 배경이 있었습니다. 본 발표는 CNT가 발견된 경위에 대하여 소개하고 그 발견이 우연이라기보다는 필연에 가깝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II) 이지마 회원의 발표에 대한 토론 (일본학사원 사카키 히로유키 회원)

그래파이트는 탄소 원자가 벌집 구조로 나열된 다층물 질인데, 이지마 회원은 최첨단의 전자현미경 관찰법을 사용하여 여러 층의 그래파이트 층이 나노미터급의 원통 형태로 배열된 카본나노튜브(CNT) 구조를 1991년에 발견하였으며 1993년에 단상 CNT도 발견하였습니다. 이 발견은 우연이 아니며 20세기 전반에 등장한 X선, 전자선에 의한 회절법과 전자현미경 관찰법을 이지마 회원 등 많은 연구자가 비약적으로 고도화하였으며 갖가지 물질의 구조를 원자 규모까지 밝혀 온 학술적 축적 위에 이루어진 필연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우에의 X선 회절의 발견(1912년)에 이어 데라다 도라히코(寺田寅彦)에 의한 결정 X선 회절의 선구적인 성과(1913년)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일본 결정학의 계보, 루스카에 의한 전자현미경 발명(1932년) 직후에 시작되었던 일본에서의 전자현미경 개발의 계보에 더하여 이지마 회원이 약 60년간 추진해 온 고해상도 투과 전자현미경에 의한 물질과학의 전선을 개척한 상황이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III) 이지마 회원의 발표에 대한 토론 (대한민국학술원 최진호 회원)

이지마 교수는 Arizona 주립 대학에서 12년간 연구 생활하는 동안 탄소의 원자 구조에 대하여 자세히 연구하였으며, 동 대학의 지금은 작고하신 John M. Cowley 교수와 함께 HRTEM(고분해능 투과전자현미경)을 발전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979년, 이지마 교수는 영국의 Cambridge 대학에서 선임 과학자로서 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graphite(흑연)의 결정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특히 HRTEM의 연구 경험은 1991년 탄소 나노튜브의 발견에 있어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fullerene(풀러렌)이라고 불리는 구형 탄소입자는 엄밀히 말하자면 이지마 교수에 의하여 1980년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Journal of crystal growth Volume 50). 하지만 5년 뒤인 1985년에, Kroto, Curl, and Smalley가 Nature 학술지에 fullerene의 발견을 보고했는데(Nature 318:162-3, 1985), 이들은 이 연구 결과로 1996년 노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네이처 학술지 어디에도 이지마 교수가 1980년 결정 성장 학술지(Journal of crystal growth)에 발표하였던 탄소 구형 입자에 대한 인용 문구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fullerene은 축구공 모양의 구형 탄소 나노구조체로 알려졌고, 많은 기초연구와 산업 소재 연구의 기반이 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1980년도에 이지마 교수는 구형 탄소 입자뿐만 아니라 다중벽을 가진 탄소 나노튜브도 발견하였습니다. 이때 이미 탄소 튜브와 같은 탄소 나노섬유를 관찰하기 위해 TEM과 같은 전자현미경을 사용하였으며, 1991년 그가 Nature 학술지에 발표했던 탄소 나노튜브입니다. (이 다중벽 나노튜브는 2-50개의 탄소 튜브로 이루어져 있고, 지름은 100nm보다 큼니다.) 매우 놀라운 점은 그가 탄소 나노튜브를 처음 발견하고 2년이 채 되지 않아 급속 촉매 존재 하에서 그리고 촉매 없이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의 합성법을 고안했다는 점입니다(Nature 1993, 363, 603-605).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많은 합성 화학자들을 고무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최초로 탄소 나노튜브에 대하여 기술했던 이지마 교수의 Nature 논문의 영향력은 대단하다고 평가됩니다. 이 논문은 2014년 Nature 학술지가 선정한 역대 가장 많이 인용된 100편의 연구 논문 중에 36위에 올랐으며, 이지마 교수는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논문을 발표하는 과학자입니다. 그는 2002년 일본 아카데미상(Japan Academy Award), 2002년 벤저민 프랭클린 연구소 물리학상(Benjamin Franklin Institute Medal in Physics), 2008년 나노과학부문 카블리상(Kavli Prize in Nanoscience), 2015년 유럽 발명가상(European Inventor Award)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카데미(Microsoft Academic)에 의하면, 이지마 교수는 755편의 연구 논문과 144,885회의 인용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지마 교수의 열정이 담긴 모든 연구 결과는 40년 이상 넘도록 우리 과학계에 많은 자양분을 제공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탄소 연구 분야에서 1996년 fullerene, 2010년 graphene에 대한 이전의 노벨상 수상에 비추어 볼 때, 탄소 나노튜브에 대한 이지마 교수의 학문적 공헌으로 또 하나의 노벨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탄소 나노튜브, fullerene, graphene의 영역을 포괄하는 탄소 나노 재료는 미래의 제조산업과 특히 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자산업은 점점 더 작은 소자(device)를 제조하고자 하며, 나노소자 및 원자들을 조립한 분자 소자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자 하나하나를 합성 재료로서 사용하는 나노 기술은 의료, 전자, 교통, 환경 및 국가 안보를 포함한 사실상 모든 산업 및 공공 부문에서 기술 혁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fullerene과 graphene의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이슈인 에너지, 환경, 전자, 나노의학 등 여러 응용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미래 제조산업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탄소 나노튜브의 역할이 무엇이며, 탄소 나노튜브가 앞으로의 어떤 미래 산업에 크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IV) 화학적 구동력에 의한 계면이동 (대한민국학술원 윤덕용 회원)



사진 4. 윤덕용 회원 발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용질 원자가 공급되면 입계와 입자 사이의 액상 막이 움직이는 새로운 현상이 관찰되

었습니다. 용질 원자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 상태로 공급되었고 움직이는 계면 뒤에 용질 원자를 포함하는 결정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연구는 자연과학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현상의 관찰, 이론의 전개와 실험적 증명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들 이론 중 하나의 타당성을 결정적으로 증명한 저희의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시간 동안 열처리한 Mo-Ni 시편의 액상에 Co를 첨가해서 다시 1시간 열처리하면 입계와 액상들이 이동하였고 그들 뒤에 Co가 포함된 합금 층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조성 변화에 따른 계면이동은 Ag-(Cu) 등의 합금과 산화물계에서 관찰되었습니다.

이 조성 변화에 따른 계면이동 현상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물리 야금과 재료과학 분야에서 관심을 끌게 되었고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들 이론 중에서 응집성 변형(coherency strain) 이론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o” 원자로 구성된 입자 사이에 “+” 원자로 구성된 액상 박막이 움직이는데 이 입자의 액상과 접한 뒤 면은 용해되고 이 입자의 앞면에서는 “o”와 “+” 원자의 합금 층이 형성됩니다. 이 합금 층은 이 모체가 된 입자와 같은 결정구조와 방향성을 갖는데, “+” 원자의 크기가 “o” 원자보다 작고 이 합금 층의 두께가 커지면 이렇게 조성이 변하는 계면에 부정향 전위(misfit dislocation)가 생기고 이 합금 층은 이 모체 결정보다 작은 고유의 격자 상수(lattice constant)를 갖게 됩니다. 반면 “+” 원자가 “o” 원자보다 크면 합금 층의 격자는 원래의 결정보다 크게 됩니다. 이 합금 층의 조성, 즉 “+” 원자량은 액상 막과 화학 평형을 이루는 값이고, 이 합금 층에는 그 조성 고유의 격자 상수가 유지됨으로 변형(strain)과 응력(stress)이 없습니다. 한편 표면이 녹으면서 뒤로 움직이는 이 입자 속으로는 “+” 원자들이 계속 확산해서 일정한 두께의 합금 층을 유지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는 모체 입자의 원자보다 크기가 작은 원자와 큰 원자를 동시에 사용해서 용질 원자의 평균 크기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모체 입자의 원자보다 용질 원자가 크거나 작으면 이 합금 층에 양이나 음의 응집 변형(coherency strain)을 유발하게 되고 따라서 이 크거나 작은 두 가지 용질 원자의 양을 조절하여 응집 변형을 양에서 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응

집 변형이 0이 되는 상황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양의 비가 다른 Co와 Sn을 액상에 첨가했을 때 생기는 입계와 액상 막의 이동 거리는 응집 변형의 2차 함수식을 따르고 이 결과는 응집 변형 이론의 예측과 일치합니다. 즉, 이 결과는 응집 변형 이론의 타당성을 결정적으로 보여줍니다.

V) 윤덕용 회원의 발표에 대한 토론
(일본학사원 가와이 마키 회원)

다결정 고체 중의 결정성장에 대한 윤덕용 박사의 보고는 여러 원소를 포함하는 금속과 산화물 중에서 화학 조성이 상이한 액상과 접하는 계면의 원자 확산 동역학(拡散動力学)에 관한 과거 50여 년간의 연구를 소개하였습니다. 거시적인 열역학의 고찰을 바탕으로 제창된 이론을 실험적으로 실증함으로써 이론 가설에 일정한 평가를 주었습니다.

전자현미경을 사용한 특성 X선 회상에 의한 정량적인 조직 관찰은, 결정 계면의 면의 방향과 조성 분포, 성장 속도를 비교하는 실험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계면 상의 격자 변형을 구동력으로 삼아 결정이 성장하는 과정을 논하였습니다. 결정 계면에서 격자 변형을 유도하는 것은 계면에 인접하는 액상이 상이한 화학 조성을 갖기 때문이며 계면의 결정 방향에 따라 변형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결정 계면의 석출과 용해의 역동적인 밸런스 속에서 결정 성장이 일어납니다. 변형이 작은 면에서는 새로운 조성의 결정이 성장하므로 비등방성의 결정면을 갖는 다결정 중에서의 결정 성장은 등방성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재료공학 분야에서 개발되는 신규 재료에는 복합 기능을 갖는 것이 많으며 윤덕용 박사의 연구성과에서 얻어진 학리는 상이한 결정의 접합 계면과 변성을 내포한 결정 성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유익합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염두에 두고 다음 사항에 대해 고찰하고자 합니다.

충분한 온도와 시간을 주면 액상과 고상은 평형상태를 이루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윤덕용 박사가 제시한 계면 이동의 이론과 실험은, 비평형상태에서의 과도(過

渡)적인 상태로 나타내고 있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상(相) 전체가 평형상태로 변화한다고 이해하면 되는가. 이 경우 상도(相圖)로 제시되는 상 분리 등에 이르는 과정에도 계면 변형(화학적 구동)에 의한 계면 이동과 같은 다 이내믹한 프로세스가 있는가.

화학 조성이 전혀 상이한 두 개의 고체가 접촉할 경우, 평평한 저지수면(低指数面)이 접촉할 경우와 거친 면이 접촉할 경우는 계면에서의 혼합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가.

VI) 윤덕용 회원의 발표에 대한 토론 (대한민국학술원 최진호 회원)

1970~80년대 연구에 의하면 다결정의 고체상이나 액상 소결에서 관찰할 수 있는 얇은 액상막을 갖는 2상계에서, 외부로부터 제3원소를 첨가하여 소결하면 조성 변화가 생기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확산에 의한 입계이동(diffusion induced grain boundary migration, DIGM)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윤덕용 교수는 확산이 아닌 화학적 구동력에 의한 계면이동(chemically induced interface migration, CIIM)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적합하든 가설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조성 변화에 따른 계면이동 현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화학적 구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윤덕용 교수는 많은 학자들이 제시한 이론 중에서 스웨덴의 H. Hillert (Scr. Metall., 1983, 17, 237.)와 핀란드의 M.S. Sulonen (Acta Metall., 1964, 12, 749.)이 제시한 정합변형(coherency strain)이론이 당시 여러 실험실에서 관찰된 금속의 소결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잘 설계된 실험 디자인을 통하여 화학적 구동력은 확산에서 생기는 정합변형에너지(coherency strain energy)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윤덕용 교수는 1987년 논문(Acta Metall., 1987, 35, 2265)에서 서로 크기가 다른 원소들이 합금을 형성할 때, 고상격자의 크기는 조성에 따라 변하게 되고, 얇은 확산층의 격자 크기는 비평형고상의 격자크기와 같게 유지되는 것이 에너지적으로 안정하게 됨을 밝혔습니다. 이런 상태를 확산층이 coherent하다고 하고 이때 변형에 의해 생긴 elastic strain을 coherency strain이라고 부릅니다.(대한금속재료학회, 1989, 1, 61). 이와 같이 윤교수께서 제안하신 CIIM 가설은 분말

의 소결, 용접, 전자세라믹제조, 핵 폐기물처리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고,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윤덕용 교수가 제시한 CIIM이론은 금속 및 세라믹스 재료, 분말야금 등의 연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결과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교수께서는 금속의 소결반응 과정을 1970-80년대 당시 금속소결 연구 커뮤니티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졌던 확산에 의한 입계이동(diffusion induced grain boundary migration, DIGM) 가설보다는 화학적 구동력에 의한 계면이동(chemically induced interface migration, CIIM)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함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윤교수께서는 소결연구 초기에 화학반응이 매우 느린 고용체 형성과정에서, 화학적 구동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초고압 하에서의 2차원 및 3차원 페러브스카이트 세라믹스 합성에 약간의 경험이 있는데, 고압 조건에서의 소결 현상도 윤교수께서 제안하신 CIIM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지요?

(2) 경제학 세션

I) 개도국의 공업화 전략 (일본학사원 오츠카 게이지로 회원)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한 자유방임주의 아래에서 공업화의 실패와 함께 개도국의 ‘공업화 정책’에 대한 논의가 또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되는 컨센서스는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고 비교 우위에 입각한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장의 어느 부분이 실패인지 그것을 어떻게 교정하면 되는지 나아가서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간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자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경제학의 문헌에서는 공업화를 추진하는 수단인 신용의 공여, 경영 연수의 역할, 산업집적의 활용, 해외직접투자의 추진 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이들을 포괄하는 논의는 결여되어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관련되는 다양한 문헌을 포괄적으로 리뷰함으로써 개도국의 효과적인 공업

화 전략을 밝히는 시도를 하고자 합니다.

**II) 오츠카 회원의 발표에 대한 토론
(일본학사원 사이트 오사무 회원)**

오츠카 게이지로 회원의 ‘개도국의 공업화 전략’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선진국의 많은 연구자들이 저소득의 개도국에는 ‘산업다운 산업은 거의 없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어패럴부터 금속가공, 프린트판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 집적’이 존재하며, 그것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노동집약적이며 노동이 풍부한 개도국의 자원부존에 맞는 산업’이며, 더구나 ‘거의 모든 것이 정부의 지원 없이 형성되었다’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하며, ‘자유로운 시장 환경 아래에서 채산성이 있었기 때문에 확립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집적형 산업은 비교 우위를 갖는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메시지는 많은 개도국에 희망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츠카 회원 스스로가 말하고 있듯이 이러한 모든 산업집적이 비교 우위를 계속 유지했다고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지는 개도국 행정부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었으며 실제로 행정부가 해왔던 지원 항목을 점검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경제학자의 본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연구 영역이며 논의도 분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코멘테이터인 제 전문은 경제사이므로 우선 역사적인 관점에서 집적이 형성되는 것이, 투입과 산출 관계 (산업연관)의 업스트림 산업에서인지, 혹은 다운스트림 산업에서인지를 유의하면서 이 산업집적에서의 비교 우위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III) 오츠카 회원의 발표에 대한 토론
(대한민국학술원 정기준 회원)**

이 논문은 開途國人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개도국의 공업화 전략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도국의 상황을 막 벗어나고 있는 한국의 상황 속에서 그 전략을 보는 일반적인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개도국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칠 때의 실제상황과 오버랩됨을 피할 수 없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의 휴전이 성립된 직후의 한국의 경제 사정은 그야말로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공업화 전략은 처음부터 이 상황을 단기간에 벗어나려는 정부 주도의 공업화였습니다. 오츠카 회원이 ‘공업구’라고 부르는 정부 주도의 공업단지 조성이 먼저 있었고, 민간 기업에 의한 소공업/산업의 집적은 오히려 그 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개도국의 상황을 벗어나 발전을 지속하는 데는 자발적 산업집적이 발전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산업구조 자체의 대변혁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KDI, KIST, KIET를 비롯한 국책 연구기관의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정부 주도로 조성한 대규모 공업단지에서 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중화학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비교적 단시간에 압축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츠카 회원이 지적하는 민간 기업의 산업집적 현상은 한국에서도 그대로 일어나 경제계획에 의한 정부 주도의 개발을 보완하였습니다. 열심히 reverse engineering 과정과 스피로오버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도 경험하였습니다. 부지런한 catch-up은 압축성장의 과정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경공업 위주의 산업집적은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산업집적의 비교 우위는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발산업, 신발산업, 의류산업 등은 한때 세계를 제패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국제적 상황은 단시간에 한국의 비교 우위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내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였습니다. 오츠카 회원이 지적하는 방글라데시의 어패럴 산업은 그 예입니다. 오츠카 회원은 자생적 산업집적이 어려움에 빠질 때 정부 지원으로 비교 우위를 회복하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한국의 공업화 과정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은 대기업 내지 기업집단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규모가 커진 기업집단은 독자적 위험부담능력을 갖게 되었고, 고위험/고수익의 산업에 투자할 여력이 생겼습니다. 현재의 한국의 전자산업/반도체산업은 그 대표적 예입니다. 특히 삼성, SK 등이 주도하는 반도체산업은 세계를 주도할 정도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부록〉 한국의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에피소드

현재 반도체를 구성하고 있는 트랜지스터는 모두 MOSFET라고 부르는 트랜지스터입니다. 삼성반도체는 트랜지스터 하나의 크기를 3nm까지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며, Apple은 5nm짜리 MOSFET 200억 개를 집적하여 만든 M2칩을 노트북에 장착한다고 합니다. 보통의 mobile phone에도 10억 개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MOSFET의 발명자가 이집트인 모하메드 아탈라(1924-2009)와 한국인 강대원(1931-1992)입니다. 이 두 사람의 발명품 MOSFET는 현재 전 세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발명 이래 1960~2018년간에 생산된 개수는 1.3×10^{22} 개라고 하니,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인구 80억을 늘려 잡아 100억이라 보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MOSFET 10억 개가 든 스마트폰 하나씩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모두의 손에 든 MOSFET의 개수는 10^{19} 개입니다. 총생산량의 1,0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발명자 두 사람은 2009년 미국의 National Inventors Hall of Fame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IV) 인간해방과 인류의 발전 (대한민국학술원 이지순 회원)



사진 5. 이지순 회원 발표

이 발표는 오늘날 절대다수의 인류가 풍요롭고 자유로우며 인권이 보장된 가운데 참정권을 가지고 ‘사람답게’ 살게 된 것은, 현생인류인 호모사피엔스 역사 30만 년에서 극히 최근인 지난 300여 년에 일어난 일임을 적시하고, 무엇이 그러한 인류사의 대전환을 낳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론과 실증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경이로운 발전을 이룩하게 된 것은, 지금부터 몇 세기 전에 영국이 촉발한 인간해방의 물결이 서유럽 여러 나라와 서구에서 파생된 나라들 그리고 일본 등지로 확산되면서, 수만 년 동안 잠자고 있던 대다수 인류의 두뇌가 잠에서 깨어나서 더 나은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온 덕택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해방은, 좁게는 권력과 재산을 독점한 극소수의 주인이 재산과 자유가 결여된 절대다수의 평민을 노예처럼 부리며 살던 세상이, 모든 이가 주인이 되어 누구나 자기 재산을 가지며 누구나 자기 뜻대로 사는 세상으로 바뀌기 시작한 역사적 사건을 지칭하며, 넓게는 자연(기후, 환경, 자원)의 힘과 한계, 인간의 육신이 갖는 한계, 전통과 관습의 속박, 절대자(신)에 대한 무조건적 예종(종교의 속박)에서의 해방, 무지에서 탈피 등을 의미합니다.

이론 및 실증자료는 1) 인간해방을 이룬 나라는 발전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정체하거나 퇴보하며, 2) 인간해방의 길로 들어선 역사가 길수록 인간해방의 범위가 넓을수록 그리고 그 정도가 높을수록 그 나라 국민이 더 풍요롭고 자유롭게 살고, 3) 인간해방을 거부한 나라의 국민은 한결같이 극심한 빈곤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며, 4) 인간해방의 길로 들어섰더라도 그 역사가 짧고 범위가 좁으며 정도가 낮을수록 그 나라 국민이 덜 풍요롭고 덜 자유롭게 산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1) 인간해방을 거부해온 나라라도 인간해방의 길로 들어서서 이탈하지 않고 그 범위를 넓히고 정도를 심화하는 데 성공하면 그 나라 국민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잘살고 자유롭게 되나, 2) 인간해방에 성공한 나라라도 하더라도 그 길에서 이탈하면 그 나라 국민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더 가난해지고 더 자유를 억압받게 됩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볼 때 대한민국이 성공한 근본적인 동력은, 건국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인간해방의 길로 들어선 데 있습니다. 공산주의 통제경제의 길 즉, 인간해방에 반하는 길로 나선 북한이 지금도 최빈국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그 반증입니다.

V) 이지순 회원의 발표에 대한 토론

(일본학사원 아노 마코토 회원)

본 연구에서는 수십만 년에 걸친 인류의 역사를, 수렵

채취기, 농경목축기, 근대산업기의 시기로 나누어, 그 특징을 간단한 수학적 모형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300년 정도의 역사를 갖는 근대 산업기의 형성의 요인을 ‘인간해방’이라는 대단히 독창적인 키워드로 파악하였으며, 이것이 없으면 사회 경제의 발전과 성장은 바라볼 수 없다는 관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우 장기간에 걸친 인류의 역사를 한 가지 관점에서 정리한다는 대단히 의욕적인 연구로,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인간해방이란, “신분, 인종, 성별, 지역 등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재산을 소유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라고 정의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유재산이 존재하지 않던 원시 공유경제의 구성원들 그리고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뉘어 극도로 불평등하던 농경목축시기의 노예 경제를 살던 기층민들의 처지와 대비되는 개념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한 인간해방을 통하여 “공동체 구성원 누구나가 재산을 소유하며 경제활동의 자유를 누리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공정하면서도 치열한 선의의 경쟁이 구성원 간에 펼쳐지며 새로운 것을 향한 변화와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황”이 형성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이 저자가 갖는 인간행동에 관한 4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성장과 발전 현상을 이해하려고 시도했습니다(일본어 번역문에서는 명제로 번역되어 있는데 전제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점을 저자에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 1) 자기 것을 가지기를 원하며 본인이 가진 재산, 시간, 정력, 능력, 지력 등을 활용해서 창출한 가치를 기능하면 본인이 가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축적한 자기의 것을 본인과 가족과 후손을 잘 되게 만드는 데 쓰기를 열망한다.
 - 2) 자기가 가진 것들을 본인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때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경향을 지닌다.
 - 3) 남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야 나태해지지 않아 발전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
 - 4) 더 나은 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인간해방이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가설에 입각하

여 인간의 본질적 특성으로 위의 4가지 전제를 인정한다면, 인간해방의 범위와 정도를 계속해서 확대하는 나라는 번영을 지속할 것이지만 인간해방에 실패하거나 그것에 역행하는 나라는 정체하거나 쇠퇴할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이하에 본 논문에 대한 약간의 코멘트와 질문을 말하고자 합니다.

본 논문의 주장은 인간해방이라는 대단히 독창적인 관점에서 서서 대단히 포괄적인 분석에 의해 근대사회의 형성과정을 보편적인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4가지 전제(명제?) 중에서 앞의 3가지는 보편적인 인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데에 동감하는데, 4번째의 “더 나은 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저자의 가치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정말 더 나은 것을 향하는 것인가, 또한 변화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인가. 이와 같은 의문점에 대하여 저자의 생각을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향하는 것도, 변화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것도, 노력 목표라고 한다면, 인간해방이 저자가 전개하는 바람직한 사회 구축으로 바로 결부되는 않는 것이 아닌가. 즉, 인간해방은 바람직한 사회 형성의 충분조건은 아니지 않은가. 이 점에 대해서도 저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인간해방이 바람직한 사회 구축의 필요조건이며 충분조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더 나은 것을 향하여 변화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충분조건이 될 것인가. 이 점도 듣고 싶습니다.

저자는 부록 1. 한국경제 성공의 열쇠들이라는 제목의 부분에서 “사적 소유, 경제 자유, 경쟁, 변화와 혁신을 핵심 가치로 하는 인간해방이 이루어졌기에, 수천 년 역사의 거의 전 기간에 걸쳐서 억눌려져 있던 절대다수의 한국인들이 비로소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길로 나선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창출한 과실을 남에게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으면, 모든 이가 근면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해서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할 의욕을 가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보편적인 사유 재산권이

보장되었기에 대다수의 국민이 근검절약하는 삶을 통해서 창출한 소득의 더 많은 몫을 저축하고 그것을 자본축적, 교육과 연구, 기술개발 등에 활발하게 투자했던 것이다.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려는 강한 의욕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할 자유가 없었다면 그 누구도 꿈을 현실화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경제활동의 자유가 중요하였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4가지 전제는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관찰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한국경제의 역사의 어느 부분을 세계경제의 특징으로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의 경험에서 일본은 무엇을 배워야만 하는 것인가. 밖에서 일본을 봤을 때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자신이 일련의 연구에 있어서 시장의 퀄리티가 거래 과정의 공정성에 의해 결정되며 품질이 높은 시장이 경제의 건전한 발전 성장에는 필수 불가결이라는 생각을 전개해 왔습니다. “공정하면서도 치열한 선의의 경쟁이 펼쳐지며 새로운 것을 향한 변화와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황”이 필요하다는 이지순 회원의 생각에 강한 공감을 느낍니다.

VI) 이지순 회원의 발표에 대한 토론

(대한민국학술원 정기준 회원)

이 논문은 인류의 전체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 담론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 담론을 하나의 경제모형을 써서 엮어내려는 시도입니다.

저자가 사용하는 경제모형은 “인적자본을 포함하는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입니다. 인적자본을 배제한 자본과 노동을 생산요소로 보는 모형에는 “내생적 성장”이 없습니다. 저자는 인적자본을 포함하는 내생적 성장모형이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우선 내생적 인적 자본형성이 포함되는 하나의 성장모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내생적 인적자본 형성이 발현되는 상황”을 “인간해방의 상황”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면 “내생적 인적 자본형성”이 지속적으로 발현되어 경제성장이 현시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까? 다시 말하여 저자가 말하는 “인간해방의 조건들”은 무엇일까? 그는 “사유, 자유, 경쟁, 변혁”이 넷을 인간해방의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억눌

려 있던 인간의 두뇌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에 전념하게 되어”, 지속적 경제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형분석 내용을 보면, 필요한 조건은 “사유와 자유”이며, “경쟁과 변혁”은 부수적이라고 논평자는 판단합니다. 저자는 영국, 미국, 일본을 포함하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일찍이 인간해방을 이룬 나라들로 보며, 한국도 그중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한국의 고령 세대는 인간해방의 전체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1945년 8.15 해방으로 미군정이 실시되고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모든 한국인에게는 “사유와 자유”가 원조물자와 함께 “무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해방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수용할 능력도 지킬 능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은 인간해방을 수용할 능력을 스스로 기르는 데 수십 년이 걸렸으며, 인간해방을 확실히 지킬 능력을 얻는 데는 아직도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고도의 인간해방을 함류하고 있는 선진국들 역시, 수백 년에 걸친 노력으로 인지를 깨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었음을 고려하면, 인간해방의 필수조건인 사유와 자유 역시 깨친 인지를 가진 사람들의 투쟁을 통하여 획득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한국이 단기간에 인간해방을 이루었다고 할 때, 그것은 사유와 자유가 형식적으로나마 무상으로 주어진 유리한 상황에서 인간해방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상황과 대비할 때 그것은 너무나 두드러진 사실입니다.

저자는 “사유, 자유”와 “경쟁, 변혁”을 인간해방의 동등한 조건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후자 둘은 모든 생명체의 생존조건 자체입니다. 저자가 뒷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각종 도전으로부터 살아남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경쟁과 변혁이란 “협력”의 형태로 발현됩니다. 그것은 경쟁과 변혁이라는 게임 상황이 대개 non-zero-sum game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유토론이 끝난 이후 양국 참가자들의 단체사진 촬영이 있었고, 곧이어 저녁 6시쯤 학사회관 203호에서 양국의 포럼 참가자들의 만찬이 있었다. 가나테 다케오 포럼



사진 6. 한일학술포럼 전체토론

위원(AI 전공, 카네기 멜론대 교수)의 사회로, 일본학사원 인문사회부 회장인 스게노 카즈오 회원 대신, 후지모토 유키오 회원(조선 서지학, 어학 전공)이 만찬사와 건배 제의를 하였고, 식사 중 우리 측에서는 권숙일 전임회장과 이정복 부회장이 감사의 답사를 하였다.



사진 7. 한일학술포럼 참가자 단체사진

3. 포럼이 끝나고 나서

포럼 마지막 날인 9월 22일 아침 7시부터 학사회관 내 식당에서 양국 포럼위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모여 내년에 우리 학술원이 서울에서 개최하는 제16회 한·일학술포럼의 준비협의회를 하였다. 이 협의회에는 우리 측에서는 이정복, 이영순 두 포럼위원, 전수환 학술지원팀장, 그리고 안혜진 주무관이, 일본 측에서는 와타나베 히로시, 가나데 다케오 포럼위원과 사무국 직원들이 참여하였다. 이 협의회에서 내년도 포럼 개최 시기는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발표 분야는 “역사학 및 수학”으

로, 장소는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한일 간 발표자 명단 및 발표 제목 교환, 한일간의 발표 개요 교환, 한국 측 지정토론자 선정, 한일 간 발표·토론 원고 교환의 시기도 결정하였다.

모든 협의가 끝나고 우리 15명 일행은 일본중앙은행인 일본은행과 일본화폐박물관을 방문하였다. 이 방문에는 일본학사원 측에서 포럼위원 2인과 다시로 가즈이 전 포럼위원, 후지모토 유키오 회원이 함께 하였다. 그 후 오찬은 우에노 공원 앞에 있는 동천홍(TOH-TEN-KOH)이라는 중화요리 집에서 있었고, 노요리 료지 일본학사원 부회장(노벨화학상 수상자)의 송별 인사와 이장무 회장과 이현재 전임회장의 감사인사가 있었다. 특히 노요리 부회장은 한·일 양국의 젊은이들의 친선교류에도 양국의 학술원이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오찬 후 한 시간 반에 걸쳐 우리 일행은 와타나베, 후지모토, 다시로 회원과 함께 우에노 공원을 산책하였고, 그 후 일본학사원에 다시 들러 다과를 하면서 잠시 환담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귀국길에는 와타나베, 후지모토 두 회원과 사무직원들이 하네다 공항까지 나와 우리 일행을 배웅하였다. 귀국 후 이장무 회장은 사사키 회장께 감사의 편지를 보냈고, 사사키 회장은 이장무 회장께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I am delighted to learn that all your members who participated in the 15th Japan-Korea Science Forum had a wonderful time in Tokyo. Your heartfelt words of appreciation for our efforts during the Forum truly touched us. Thanks to the dedicated work of both academy’s teams responsible for the Forum, it was executed successfully. We wholeheartedly extend our gratitude to you, your academy members, and your staff for your unwavering support and contributions to the Forum.

Our shared aspiration is to continue this vital Forum, and I am convinced that the upcoming 16th Forum in Seoul will be a resounding success. We are keen to do everything within our means to assist you in organizing the 16th Forum. We eagerly await being able to listen to excellent presentations in both the fields of History & Mathematics.

We send our warmest wishes for your continued good health and are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at the next Forum.”

[학술교류]

ICIAM 2023 참가기

奇宇恒 會員(수학) · 金道漢 會員(수학)

2023년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도쿄 와세다 대학에서 개최된 ICIAM 2023(The 10th International Congress on Industrial and Applied Mathematics: 세계 산업 및 응용수학자대회)에 참석하였다.

수학 분야의 큰 국제학회

수학 분야에는 4년마다 개최되는 3개의 국제적인 학회가 있다. 순서대로 적어 보면

1. 세계수학자대회 (ICM; International Congress of Mathematicians)는 $4n+2$ 인 해에 개최되며 IMU(International Mathematics Union; 국제수학연맹)이 주관한다. ICM은 개최식에 개최국 국가원수가 참석하여 IMU 회장과 함께 수학 분야 최고의 영예인 필즈상 수상자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관례가 있다.
2. 세계산업및응용수학자대회(ICIAM)는 $4n+3$ 인 해에 개최되며 ICIAM (International Committee on Industrial and Applied Mathematics; 국제 산업 및 응용수학 위원회)가 주관한다.
3. 세계수학교육자대회(ICME; International Congress on Mathematical Education)는 $4n$ 인 해에 개최되며 IMU 산하기관인 ICMI(International Commission on Mathematical Instruction; 국제수학교육위원회)가 주관한다.

개막식

8월 20일 와세다 대학에서 열린 개최식에서는 식전 문화 행사로 일본 전통 복장을 한 샤쿠하치(尺八; 일본 전통 통소) 연주자가 홀로 유려하게 연주하면서 걸어 나오고 그 반주에 맞춰 세 명의 여성 무용가의 군무, 그 후에

남성 무용가의 춤사위가 더해지면서 일본 전통 악기와 무용이 어우러지는 멋진 공연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개최식에 들어가서는 사회를 맡은 와세다 대학교수가 종이 몇 장을 들고 나와 아마추어처럼 회의를 진행하여 실망스러웠고 시간도 많이 지체되었다. 한국에서 개최된 2014년 서울세계수학자대회와 너무 비교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개최식의 하이라이트는 여러 가지 영예로운 상의 수상인데 수상자는 연단에 앉아 있고 ICIAM 회장이 준비 없이 혼자 상장을 수상자 테이블 앞으로 가서 전해 주는 등 격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사진 1. 개최식 후 와세다 대학 강당 앞에서

대중강연

다른 큰 국제학회와 같이 수학의 대중화와 관련된 4개의 강연이 있었다. 그 중 두 개의 강연이 일본이 원조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오리가미(종이접기)에 관한 것이었다. 이번 학회의 로고도 ICIAM의 알파벳 문자를 오리가미 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특히 A 는 오리가미 중에 제일 대표적인 학의 오리가미로 표현하였다.

강연 중의 하나인 “Impossible World Represented by Real 3D Objects”는 거울에 비쳐 상식을 뛰어넘는, 예를 들면 방향이 반대가 되는 반영이 나오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3차원 입체를 만드는 흥미로운 강연이었으나 결국은 거울의 각도를 조정하여 눈의 착시를 이용한 것이었다. 또 하나인 “The Possibilities of Origami: Art, Mathematics, and Applications in Engineering”는 오리가미의 공학에의 응용 가능성에 관한 내용이었으나 그다지 새로운 느낌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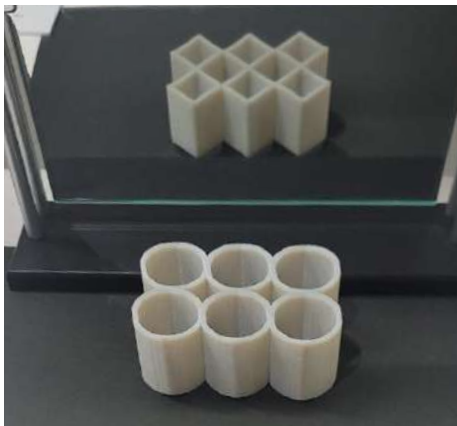


사진 2. 대중강연 중 사진



사진 3. ICIAM 2023 로고

ICIAM Prizes와 초청 강연

수학 분야 국제학회에서의 백미는 상 수여 및 수상자 기념 강연과 초청 강연이라고 할 수 있다. Olga Taussky-Todd 강연, 6개의 ICIAM 상 및 기념 강연과 27개의 초청 강연이 있었다.

The Olga Taussky 강연: An Introduction to Randomized Matrix Computations

Ilse C.F. Ipsen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미국)

Collatz 상: 산업 및 응용수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낸 42살 이하의 학자에게 수여

Maria Colombo (로잔느 스위스 연방공과대학)

Lagrange 상: 응용수학 분야에서 일생동안 뛰어난 업적을 쌓은 학자에게 수여

Alfio Quarteroni (밀라노 공과대학)

Maxwell 상: 응용수학 분야에서 독창적인 업적을 낸 학자에게 수여

Weinan E (기계학습연구 센터 소장, 베이징 대학)

Pioneer 상: 20세기의 10대 알고리즘 중의 하나를 개발 Leslie Greengard (뉴욕대학)

Su Buchin 상: 개발 도상국에서의 수학의 경제 발전과 인간 개발에의 응용에 업적을 낸 학자에게 수여

Jose Mario Martinez Perez (감피나스 대학, 브라질)

Industry 상: 산업에 영향을 끼친 획기적인 수학적인 테크닉에 업적을 쌓은 과학자에게 수여

Cleve B. Moler (MATLAB 과 Math Works의 창업자)

이번 ICIAM에서는 27개의 초청 강연이 있었으나 한국 수학자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아 안타까웠다. 한국 수학자로는 유일하게 8년 전 ICIAM 15에서 초청 강연을 한 연세대 서진근 교수와 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진근 교수는 이번 초청 강연 선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을 하였는데 선정위원 중에 예를 들면 유럽세도 강하고 중국계는 여러 명이었으나 한국 수학자로는 자기 혼자 투표로 선정하는 위원회에서 무력감을 느꼈다고 한다. 국내에 응용 및 산업 수학 분야에 국제적인 연구 업적을 내는 응용수학자가 점점 늘고 있지만 저변 확대가 더 필요함을 실감했다.

ICIAM 23 참석자 통계

이번 ICIAM 참석자 통계를 보면 등록자가 5,550명, 그 중 학생이 1,556명이었다. 참석자 수 상위 9개국의 국가별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상위 9개국의 국가별 통계〉

	전체	일반	학생
일본	1023	827	196
중국	892	653	239
미국	875	672	203
한국	335	197	138
독일	300	178	122
영국	278	144	134
인도	267	155	112
프랑스	177	134	43
이태리	136	105	31

이번 ICIAM에는 중국에서 대거 참석하였는데 특히 Maxwell 상을 받은 Weinan E의 강연 제목이 요즘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연구 주제인 “AI for Science”였다. 그는 이 강연에서 오랫동안 좋은 알고리즘이 없어 AI의 이론적 연구를 하기가 힘들었는데 심화학습(deep learning)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도구라고 강조하였고 AI 혁명의 출발점과 최근 이룩한 과학적인 발전도 언급하였다. AI와 기계 학습의 이론적 배경에 관한 강연이라 가장 많은 청중이 참석하였고 중국의 많은 젊은 수학자들과 학생들이 AI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참석했다는 점은 고무적이었고 수리생물학 분야의 수학자들이 많이 참석한 것으로 보였다. 요즘 편미분방정식의 수치해석을 전공하는 응용수학자들이 AI 및 기계학습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 소장 학자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ICIAM 2023 발표 건수

미니 심포지엄: 476
일반 강연: 807
포스터: 325

필자 중 하나인 김도한은 4년 동안 시즈오카 대학의 신정선, 미야자키 교수와 공동 연구를 한 논문이 Session “Recent progress in theory and applications of time-delay systems”에서 제목 “Stabilization of periodic orbits with complex characteristic multipliers via DFC”으로 미야자키 교수에 의하여 발표되었다.

후진국 수학자 초청자 수

일반 참석자 249 + 학생 참석자 179 = 428

수학 분야의 국제학회에서 후진국 수학자를 대규모로 초청한 것은 2014년 서울 세계수학자 대회에서 “나눔(Nanum)”이라는 이름으로 후진국 수학자 1,000명을 초청한 것이 시작이었는데 그 후 이 전통이 ICIAM에까지 시행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다.

Korea Night

8월 24일 밤에 한국 산업 및 응용수학회(KSIAM: Korean Society for Industrial and Applied Mathematics)가 주최한 연회 Korea Night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연세대 수학교산학부 이은정 교수의 유창한 사회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연회에는 ICIAM 차기 회장, 집행진, ICIAM 23 조직위원장과 부위원장인 오이시 교수와 오카모토 교수 및 여러 ICIAM 상 수상자, 대한수학회장도 참여하였다. 수리생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학자로 발돋움하고 있는 김재경 교수(카이스트 및 기초과학연구원 CI)가 한국 산업 및 응용 수학 연구의 발전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한국 산업 및 응용수학의 발전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 주었다. 특히 8년 후의 ICIAM 31 유치 시작을 은연 중에 나타내고 참석자들의 협조를 부탁하였다.



사진 4. Korea Night 연회장



사진 5. 연회장에서 강현배 KSIAM 회장, ICIAM 31 유치위원, 김현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과 함께

도쿄 인텔리젠서(Tokyo Intelligencer)

수학의 큰 학회에서는 학회 기간 도중에 뉴스레터나 팸플릿을 발간하는데 이번에는 독일 출판사 스프링거에서 발행하는 잡지 이름인 Math Intelligencer 이름을 따 발행한 도쿄 인텔리젠서에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 소개하겠다.

JSIAM(일본 산업 및 응용수학회)의 전 회장 Hiroshi Fujita 교수와 그의 제자로 현 회장이며 ICIAM 2023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인 Hisashi Okamoto 교수의 인터뷰 기사 “Recollections on my 60+ years on mathematical sciences”가 일본 종전 후 응용수학 발전과 특히 우리 학술원의 자연 제1분과의 분야인 수학과

물리학의 일본에서의 교류에 관하여 한 단면을 보여 주고 있어 이 부분을 발췌하고자 한다.

후지타 교수는 1948년 도쿄대 물리학과에 입학시험을 치렀는데 두 줄 뒤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고시바가 앉아 있었다고 한다. 시험관이 시험지를 걷으면서 질문이 있냐고 물었더니 고시바가 담배 피워도 되냐고 했다고 한다. 입학 후 지도 교수가 군론을 양자역학에 응용하여 유명해진 야마노우치 교수였는데 그의 리딩 세미나 과목에서 학생들에게 최근에 발표된 초함수(distribution theory)가 앞으로 수리물리학에서 중요한 도구가 될거라고 해서 모두 부르바키(Bourbaki)의 일반위상수학(General Topology)을 읽기 시작했으나 정작 야마노우치 교수는 일류 수리 물리학자였음에도 부르바키 문제를 푸는 데는 상당히 어려웠다고 한다. 이 때가 1951년, 작용소 이론에서 세계적인 수학자가 된 도시오 가토(Tosio Kato) 교수가 조교수로 승진하여 지도 교수가 된 해인데 첫째 논문은 가토의 T^*T 이론을 사용한 근사수치방법으로 T^*T 이론은 유한요소방법(FEM: Finite Element Method)에 적용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그 후 가토 교수의 지도로 유한차분방법(FDM: Finite Difference Method)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었고 가토 교수의 조언은 다음과 같았다고 한다. 이제 컴퓨터를 사용한 응용수학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준비해야 하고 물리학과에서 수학을 공부하니까 나중에 대학에서 직장을 얻으려면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해석 방법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역시 최고의 학자들은 앞을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있다. 1950년대 후반에 논문 주제를 잡으려고 할 때 소련 학술지 Izvestiya에 게재된 Kiselev-Ladyzhenskaya의 Navier-Stokes 방정식에 관한 논문을 읽었는데 그 당시 일본에서는 미국, 유럽의 책과 학술지는 구하기도 힘들고 너무 비싸 가토의 제자들은 소련의 책과 논문을 어렵게 읽었다고 한다. 그 후에 후지타 교수는 비선형 편미분방정식의 코시(초기값) 문제의 blow-up 문제에 주요한 업적을 쌓아 이 비선형 열 방정식이 후지타 방정식으로 명명되고 도쿄대 공학부 교수를 거쳐 그 당시 도쿄대학 수학과와 원로 교수인 요시다 교수와 가와다 교수의 간곡한 요청으로 수학과 교수가 되었다고 한다.

일본의 수학자 중에는 수학, 물리학 두 개의 학사 학위를 가진 유명한 수학자가 두 분 있다. 1954년도 필즈상 수상자인 고다이라 구니히코(Kunihico Kodaira)와 사토 초함수와 대수해석학의 창시자인 사토 미키오(Mikio Sato) 교수로 두 분 다 일본에서 가장 널리 존경받는 수학자가 되었고 사토 교수는 2023년 초에 타계하였다.

도쿄 체류 중 느낀 점

이번 도쿄에서 일주일 넘게 체류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적어 보겠다.

- 제일 인상적인 것은 대중 버스가 시간을 상당히 정확하게 지키고 일본에 노인이 많아 휠체어에 탄 노인이나 장애인이 버스를 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운전기사가 운전석에서 내려 휠체어를 버스에 실어주었다. 노인 승객이 많았지만 모두 다 당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보다 여유 있는 사회라는 것을 느꼈다.
- 모든 지하철 게시판에 일본어, 영어, 다음에 한글이 적혀 있어 한국과 일본은 정말 가까운 나라라는 것을 느꼈다.
- 지하철과 버스 회사가 JR, 도영 전철, 도쿄 메트로, 사철 등 노선을 바꿔탈 때마다 새로 요금이 추가되어

교통비가 정말 많이 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 도쿄 체류 기간 중 도쿄는 정말 더웠다. 거의 매일 최고 온도가 36도 수준이었고 교토, 오사카는 38도까지 올라간 데다가 다습하기까지 해 밖에서는 견디기 힘든 날씨였다.

글을 마치며

한국의 응용수학은 순수수학만을 수학으로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거의 불모지였다가 1990년대에 그 당시 젊은 수학자들이 구미 선진국에서 수치해석 연구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현재는 한국에서도 수치해석을 넘어 수학을 기반으로 한 영상처리, 딥러닝 및 AI를 토대로 노이즈 제거, 디팩트 검출, 국방 과학을 위한 스텔스 전파해석 등에까지 여러 실제적 문제들에 관하여 연구를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이 수학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실사구시 정신으로 산업 현장에까지 지평을 넓혀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2014년 세계수학자대회를 유치하여 국제적으로 발돋움한 한국 수학계처럼 한국 산업 및 응용수학회와 대한수학회가 추진하고 있는 ICIAM 31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한국 응용수학계도 국제적으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 🌍

[학술교류]

UNESCO CIPSH 철학 및 인문학 국제학술회의 참가기

趙東一 會員(한국고전문학) · 李廷玟 會員(언어학 및 인지과학)

1. 모임 소개

가. CIPSH의 내력

유네스코 산하 기구인 CIPSH는 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Philosophy and Human Sciences, [철학 및 인문학 국제 이사회]로서 원래 명칭은 불어로 CONSEIL INTERNATIONAL DE LA PHILOSOPHIE ET DES SCIENCES HUMAINES여서 명칭약자도 불어 기반이다. UNESCO 초대 director-general이 된(1946년) Julian Huxley(교육에 관심을 가진 평생 국제주의자였던 진화생물학자로서 소설가 Aldous Huxley 가문)가 1947년 9월 일단의 각국,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UNESCO가 인문학 영역에서 어떻게 UNESCO가 현장에 규정한 의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를 탐색하도록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48년 인문학을 위한 공동체의 예비 위원회가 결성되고 그 임무는 UNESCO의 이 공동체와 UNESCO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었고, 그 목표는 CIPSH의 자립성을 유지하고, 국제적 관심사의 임무에 집중해 그 성격이 엄격히 학문적이어야 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사회의 구성은 NGO 성격을 보장하도록 돼 있다. CIPSH의 첫 총회는 1949년 1월에 공식적으로 개최되었다. 다 학문 분야의 세계 학회들(철학(FISP), 미학(IAA), 과학철학(IUHPS), 언어학(세계언어학자대회-CIPL=ICL), 화용론(IPrA), 역사학(CISH), 지리학(IGU), 인류학(WAU))과 각국 학술원(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들이 UNESCO 산하 CIPSH의 총회 및 학술회의, 프로젝트 등의 행사를 치루게 되어 있다.

나. CIPSH 동경 대회

“Humanities in the Global and Digital Age, The role of Humanities research traditions and interactions in contemporary society”(세계화 · 디지털화 시대의 인문학, 인문학 연구 전통의 역할과 현대사회

에서의 상호작용)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일자와 장소는 2023년 8월 23-24일, 일본 東京大學 本郷(홍고) 캠퍼스(첫날 회의)와 慶應大學 三田(미타) 캠퍼스(둘째날 회의)였다. 이 모임에 학술원에서는 조동일과 이정민이 참가하고, 이정민은 기조 발표 하나를 맡았다. 또한 한국에서 서강대 임지현 교수(사학)가 패널 하나의 초대 연사로 참가하고, 동국대의 김영민 명예교수도 참가했다.

인문학은 고대부터 연구되어 인류 생활과 사회에 의의 있는 기여를 해 왔다. 현대적 맥락에서도 인간 생활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이들의 연속적인 가치를 인식할 가치가 있다. 2023 CIPSH 도쿄 회의는 당대 맥락의 과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장을 마련한다. 초점적인 세가지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Global/world humanities
2. Humanities and digital science & technology
3. The role of the scholarly research tradition of humanities in contemporary society

2. 첫째 날의 행사

동경대학 총장, 일본학술회의 대표, 동경대학 문학부장의 화상 환영사가 있었다. 동경대학과 동경대학 문학부의 학문적 기여를 널리 알리기 위해 행사를 유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학술회의는 일본의 학술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기구이다. 이런 기구가 있는 것을 알리고자 했다.

문학부장은 한국의 인문대학장에 해당하는 직위이다. 인문대학 규모의 문학부에서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강의하는가 소개했다. 동서 각국에 관한 학문을 두루 한다고

모두 열거하면서, ‘韓国朝鮮文化研究專攻’이라고 일컫는 ‘Korean studies’는 말하지 않았다.

Special Panel Session 1: BRIDGES

Chair: Luiz Oosterbeek (President of CIPSH)

Gabriela Ramos (UNESCO ADG)

Steven Hartman (Executive Director of BRIDGES)

Yukio Himiyama (IGU)

Kazuhiko Takeuchi (President,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

이 순서에서는 CIPSH의 유관기구들 대표가 그쪽에서 하는 작업과 이번 행사에서 다루는 주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설명하고, 상호 유대를 확인했다. CIPSH가 UNESCO의 산하기구이므로 그쪽의 관여는 당연하다. BRIDGES는 “The Bridges Organization oversees the annual Bridges conference on mathematical connections in art, music, architecture and culture.” 라고 하는 곳이므로, 관련이 있다. IGU는 International Gas Union이니, 거리가 멀다.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와도 연결되어 관심의 범위가 너무 넓다.

Keynote 1: Takahiro Nakajima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Advanced Studies in Asia, Univ. of Tokyo)

Title: Nested Structure of World Philosophy and Local Philosophies

기조강연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발표를 동경대학 ‘아시아 高等研究所’ 소장이라는 중국철학 전공 교수가 맡았다. 학술회의의 진행 방향을 말하고, 동경대학의 학문 수준을 알려주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서양철학만 철학이라고 하는, 일방적이고 서양중심적인 견해는 잘못되었다. 세계 어느 곳에든지 있는 독자적인 사고 체계를 모두 철학으로 인정하고 평가해야 한다. 그 모두를 엮어서 세계철학을 이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서문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분석철학도 배제될 이유가 없다.

중국에서 예전부터 말한 “all under heaven [tian]”, “benevolence [ren]”, 이 둘을 이어받아 세계철학을 이룩할 수 있다고 한 것이 구체적인 주장이다. 앞의 말은 ‘天下’이고, 뒤의 말은 ‘仁’인 것을 한문을 알면 알아차릴 수 있다. 둘 다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해 철학이라고 할 수 없다. 한문은 모르고 영어 발표만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않아 공감을 얻기 어려웠다. 중국철학에서 더욱 진전된 견해를 들어 서양철학의 편향성을 시정하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아 미흡한 발표였다.

‘Nested structure’라는 말을 표제에다 내놓고 자주 했다. 새가 둥지를 엮듯이 만든 구조라는 말이고, ‘중첩구조’라고 번역할 수 있다. 세계 여러 곳의 철학을 중첩시켜 서양철학 중심의 과오를 시정하는 세계를 이룩하지는 견해 또한 서문에서는 타당하고, 본론은 갖추지 못했다. 중첩 방법뿐만 아니라, 사용 언어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영어를 사용하니, ‘天下’나 ‘仁’을 옮겨놓을 말도 없다.

Keynote 2: Tim Jensen (University of Southern Denmark)

Title: Why a scientific study of religions education (RE) ought be a must all over the world, irrespective of various state-religion relations

이것은 덴마크의 종교학자가 한 발표이다. 국가에 따라 다른 종교를 신앙하면서, 서로 배타적인 관계를 가지지 말아야 한다. 대학 종교학과에서 여러 종교에 대한 ‘과학적’(scientific)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 결과를 가지고 모든 공교육 기관에서 학생들이 종교에 편견 없는 이해를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개방적·다원적·민주적인 사회를 세계 모든 곳에서 이룩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주장은 타당하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덴마크의 종교학자가 어떤 종교 갈등을 겪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 이런 발표를 하는지 의문이다. 확인을 해 보니, 덴마크는 국민 75.8%가 기독교, 74.3%가 덴마크 기독교, 19.1%가 무종교, 4.4%가 이슬람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의문이다. 절실한 고민이 없으면 공허한 논의를 할 수 있다.

대학 종교학과에서 종교에 대한 ‘과학적’(scientific)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 세계 어느 대학 종교학과에서도 종교에 대한 연구를 자기 나름대로 타당하게 하고 있다. 그 모든 노력을 일거에 무시하고, 종교를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횡포이다. 종교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면 자기중심의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생각이다.

횡포나 환상이 의도가 나빠 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식견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영어로 발표를 해야 하는 사정이 더 큰 차질을 초래했다. 영어는 ‘scientific’보다 더욱 포괄적이고 한층 총체적인 탐구를 지칭하는 말이 없어, 종교를 다루기에 부적절하다. 독일어의 ‘wissenschaftlich’도 모자란다. 종교에 대한 전반적인 통찰을 얻는 방법이나 이론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선행 과제이다.

Keynote 3: Shin Kawashima (University of Tokyo)
Title: Toward human sciences and Asian studies in the newly digitalized period

Keynote 4: (The Keynote in conjunction with the Keynote 3) Masahiro Shimoda (Musashino University)
Title: Humanities in the Digital and AI Age: An Asian Lens

이 두 발표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아시아 문화유산 정리를 설명했다. 일본에서 佛經 총정리를 하는 것을 주목하고 평가할 만하다. 그런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알리는 데 치중하고, 무엇을 왜 하는가 하는 논의는 심각하게 하지 않아, 인문학 발표라고 하기 어렵다.

Keynote 5: David Theo Goldberg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Title: Is AI Changing Us, or Replacing us
인공지능이 인류를 바꾸어놓는가, 아니면 대신하는

가?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거듭 말하고 해답은 없다.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유리하게 활용하는가?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고, 적절하게 해결하는 인문학의 지혜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Roundtable A: New Techno-Humanities: Sustainable Development for Human Community
Coordinator: Peng Qinglong
Chair: Peng Qinglong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Co-Chairs: David Theo Goldberg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Zoltan Somhegyi (Karoli Gaspar University of the Reformed Church)
여기 member 중의 한명으로 한국의 김영민 명예교수(동국대)가 참여했다.

초점이 흐려졌다. 인공지능 시대의 창조적 교육을 거론하다 말았다. 범위를 너무 넓혀 내실이 부족하다.

3. 둘째 날의 행사

모든 영상 시설이 잘 갖춰지고, 현대 (언어) 철학이 강한 게이오대의 미타 캠퍼스 동쪽 빌딩 6층 G-Lab에서 9시부터 진행된 8월 24일(목) 둘째 날의 방향은 ‘지구촌의 인문학’이었다. 먼저 원탁회의 C, 주제 기조 연설 6, 7, 패널 회의 2가 끝난 뒤 점심시간; 2시부터 원탁회의 D, 뒤이어 3시 10분부터 지구촌/세계 인문학 주제 기조 연설 8, 9가 있었고, 뒤이어 원탁회의 E, 원탁회의 F를 끝으로 예정(6시 50분)보다 늦게 종료되었다.

Roundtable C
Reinveting Education: Learning in the 21 Century
Coordintor: Lincoln Zhenyu Gao
Co-chairs: William McBride, Dongshu Ou
Invited speakers

<주제 기조 강연>

현대 사회에서의 인문학 연구 전통의 역할

기조 강연 6

Yasuo Deguchi (교토대)

제목: WE-turn: an Engaging Humanities for the Contemporary Society

여기서 Deguchi 교수는 We-turn(우리 차례/전회)이 세계를 해석할 뿐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동아시아의 새 철학이라 내세운다. 우리 차례/전회는 행위자, 주어, 또는 행동의 단위, 자아, 생명, 권리, 정의, 선, 자유 등의 뒤바뀐 것이고 이는 인간 개체 또는 “I”(나)에 대한 두가지 관찰에 근거한다는 것 즉 첫째는 ‘나의 단일 행동 불가능성 즉 ‘나’는 단일 신체 행동을 할 수 없고 둘째 다른 행위자들을 온전히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참된 자아’와 ‘선한 바보들’의 동아시아 전통 사상에 근거하며, 문제는 어떻게 나쁜 (전제주의적) ‘우리’를 배제하고, 인간적인 또 인공적인 로봇과 AI로 구성되는 선한 We를 짓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floor에서 임교수가 We-Koreans, We-Japanese로 갈리는 문제를 제기하자, 발표자는 We의 범위가 넓을수록 좋겠다고 답했다. We 사용이 유대감을 위해 쓰이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우리 마누라’(my wife를)라고 불러 유대(solidarity) 관계를 나타낸다는 사회언어학적인 개념도 알았으면 좋겠고, 배타적이지 않은 유대의 ‘우리’가 실천상 쉽지는 않을 것이다.

기조 강연 7

Tyrus Miller (Dean of Humanities, UC Irvine)

제목: One or more Worlds? Global humanities, multiple modernities, and dissenting imaginaries

강연자는 ‘근대성’(modernity) 개념을 되새기고, 지구/지구촌(global)과 “세계”(현상학적, 실존적 “세계”, “possible worlds”), 또 세계사, 세계문화의 세계를 검토하고, 문화 생산을 “세계 만들기의 방법”으로 보면서 지구촌적 인문학이 복수적이고, 상징적으로 구성된 그리고 종종 절대적인 세계를 포용하는 공간으로 개념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Panel Session 2: Humanity Studies on Disagreement, Communication, and Mutual Understanding

Co-chairs: Mitsuhiro Okada (Keio U)

Koji Mineshima (Keio U)

Special Speaker: Lim Jie-Hyun (Sogang U)

Other Invited speakers

임지현 교수는 새 천년에 기억의 지구화(globalization)가 ‘위안부, 강제노동, 난징 학살, 전쟁 기근’ 등의 잔인성의 문제에 관해 일제의 과거와 타협하려 함에 있어 감정적 분규를 더욱 날카롭게 했다면서, 과거의 기억에 대한 만장일치의 합의보다는 다른 다방면의 기억들이 공생토록 기억물저장소를 남에게 공개하게 놓아둔다는 불일치에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한 사람들의 기억의 역사를 공개해 공유해야 한다는 중요한 발표이다. 회의 주최측이 역사적인 ‘불일치’로부터 일치/합의 내지 타협을 모색하는 주제를 내세운 것은 그래도 주목할 만하다.

<주제 기조 강연>

지구촌/세계 인문학

기조 강연 8

Ritsuko Kikusawa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of Japan)

제목: Establishing Science for Universal Communication: A Step toward the Society Where No-one is left Behind

이 강연은 “보편적 의사소통”을 주창해 위급시에 경보가 소리로 돼 있어 듣지 못하는(“deaf”)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더 위험에 처하므로 이에 대처하는 것이 첫걸음이며, 나아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말하고 듣는 관계를 맺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뒤처지는 이가 생기지 않게 한다는 이상적인 소통 사회로 나아가자는 제언이다. 소리 경보가 이미지로 변환돼 LINE/카톡에 나타나게 할 방법, 또 수어도 언어이므로 이의 자동

번역 노력도 있음에 유의하지 못했다.

기조 강연 9

Chungmi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목: Semantic Universals of Fact, Say, or Fiction: Cross-linguistic Factivity Alternation along with Epistemic/Doxastic and Preferential/Imaginative Attitudes



발표자는 이 기조 강연에서 인식론, 심리철학, (형식) 의미론에서 다루는 ‘알다’와 같은 인식 동사, ‘믿다’/‘생각하다’와 같은 믿음 동사, ‘묻다’와 같은 언어 행위 동사 및 ‘상상하다’와 같은 반사실성의 동사 등이 내포하는 명제들의 의미에 따라 말하는 이의 태도(attitude)를 나타낼 수 있다. ‘알다’ 등 인식 동사의 내용은 사실로서 ‘-은 것’(/koto)과 나타나고, 믿음/행위 동사의 내용은 say/전달-보도되며 ‘-고’와 나타난다. 인식동사는 언어에 따라 ‘-ㄴ 것으로 알았다’처럼 비사실적인 짝이 있다. 이 구별이 알타이어에서 잘 나타나고, 중국어는 ‘기억하다’(jide)만 억양에 따라 갈리고 다른 인식동사들은 사실성만 있다. 영어는 부정, 조건, 양상 등의 맥락에서 인식동사가 비사실성을 드러낸다. 강연자는 세가지 발견을 내세운다. 하나는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다(고 하)는 것’과 -iu-koto에 SAY가 들어 가는 즉 ‘지구가 돈다(고 하)는 것’의 외부적 ‘사실’과 SAY가 없는 즉 ‘미아가 떠난 것’의 ‘-는 것’/koto의 내부적 사실이 구별된다는 점 - (영어에서는 Wittgenstein이 일찍이 아이의 ‘I know that the Earth turns round’는 ‘I learned ---’를 뜻함을 밝혔다.) 둘째는 명사 머리어가 그 보문과 사실성에

있어 일치한다는 점으로 즉 ‘준이는 [건이가 미아와 키스했다는 소문]을 안다’에서 ‘키스했다’는 머리어 ‘소문’이 비사실적이어서 사실일 수 없다는 것이어서 Vendler의 역설이 해소된다. 세 번째는 최근 영어 자료에서 White(2021)가 발견한 think, believe, hope, fear가 의외로 극성 의문 보문소 whether 보문을 내포하는 현상이 한일어의 허사 부정(expletive) 현상과 일치함을 발견하고 이를 positively-biased로 보았다는 것이다(즉 ‘미아는 [자기 팀이 이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기대한다’, 일본어도)(내포절에 desire라는 bouletic modal 설정).

‘상상하다’와 같은 반사실적 태도는 사실성 보문을 취하기 힘들고, 실세계와 동떨어진 관계의 ‘은유’ 등 말하는 이의 창의적(cf. Grice’s ‘parasitic’) 생각을 나타내면서 흔히 SAY(-고) 보문을 쓰며, whether 보문도 ‘think’처럼 쓰되, positively-biased/preferential 태도도 나타낸다.

인간이 실세계와 다른 세계/상황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상상하고 이를 표현하는 능력을 AI가 언제 어떻게 따라올지 (또는 능가할지) (cf. 괴델의 불완전성 원리에 따르면 어렵다) 더 지켜보아야 하지만, 현재 상황은 Chomsky가 말했듯이, 생성적 언어 모델인 chatGPT가 ‘표절’하고 있고, 예술가 집단들이 실제로 표절에 반기를 들고 있고 AI의 윤리 문제가 제기된다.

Roundtable D: Arts and Creativity: Humanities in the Global and Digital Age — the role of Humanities research traditions and interactions in contemporary society

Coordinator: Desmond Hui

Co-chairs: Luisa Migliorati, Desmond Hui

Members: Gilbert Fong (Hang Seng U of Hong Kong)

Desmond Hui (Hang Seng U of Hong Kong)

Christine Choy (Hang Seng U of Hong Kong)

Shen Kuiyi (UC San Diego)

Deanna Shemek (UC Irvine)

이 예술과 창조성 패널에서는 The Panel on Arts and Creativity will discuss 예술과 창조적 인문학 연구의 지구촌적이고 디지털적인 충격과 현대사회에서의 상호작용을 돌아보고 특히 코비드 팬데믹이 가져온 도전과 그로 인한 변화를 논의했다. 위 대학들과 홍콩 중문대, 국립 대만대의 미술 및 디자인, 미디어 통신, 미술사, 언어, 기타 문화, 번역과 철학 학자들이 패널과 토론자로 참여했고, 예술창작과 감상의 세 형태로서의 온라인 공연과 전시회 및 디지털 스튜디오와 비평, 사회적 매체, 예술 Tech, 메타버스(verse), 메타 sense 등이 등장하고 논의됐다.

Roundtable E: Reflectivity and Contemporary Humanities

Coordinator: Saulius Geniusas (Chinese U of Hong Kong)

Co-chair: Philip Buckley and invited speakers

이 회의에서는 인문학은 인간 조건에의 반성이라는 주제로 “르네상스 인간”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새로운 공동체적인 합의의 길을 마련해 르네상스 인간의 정신을 지녀야 한다고 주최측에서 보았다. 중국측 발표에 중국에 16세기 Jesuits가 상륙한 이래 서양에서 중국의 문화적 인본주의 예찬이 시작돼 지속된다든가 인문학의 하나인 미학은 유럽 계몽주의 때부터 시작되어 중국 사회의 근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발표(Wang Jie, Center for Contemporary Marxist Aesthetic Research)가 있었다.

Roundtable F: Exchanges of Goods, People, and Ideas: A Global History Perspective

Coordinator: Shui Haigang (Xiamen University)

Members: Dai Yifeng, Zhang Kan, Haigang Shui (Xiamen U)

Chiu Pengshang (Shanghai Jiatong U), Wu Ching (Shanghai U)

Wang Qinjia Edward (Rowan U), Pan Tsung Yi

Commentators: Takeshi Hamashita (Sun Yat-Sen U),

Ei Murakami (Kyoto U)

이 원탁회의는 Silk Road, Ming, Qi 등을 통한 문물교류에 대한 역사적 시각을 논의해 오늘의 세계가 어떻게 이러한 교류에 의해 형성됐는가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문물 교류를 발전시켜 문화와 문명을 꽃피우게 할까를 논의한다는 취지로 진행됐고, 이를 위해 예컨대 중국의 ‘guild’와 세관(customs) 제도 발전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Roundtable B: Planetary Health Humanities

Coordinator: Tony Hsiu-Hsi Chen (College of Public Health, National Taiwan U)/ President of International Asian Conference on Cancer Screening (IACCS) Network

Chairs: Philip Buckley (philosophy, McGill U) and Co-chair Tony Hsiu-Hsi Chen

이 원탁회의에서는 대만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코로나에 대처했는지를 영상을 깃들여 생생히 보여주었다. 실상 중국 등에서의 환자 입국을 철저히 통제해 덕이었다 (대만 중앙연구원 원장이 바로 감염병 전문가인 부총통). 한편 한국은 중국의 여자 환자가 최초로 입국하자 인천의 담당의사(메르스 대처 경험)가 환자의 증상을 자세히 받아적어(중국어를 휴대전화 자동번역기 써서 옮겨) 바로 경북 검사 현장에 보내 drive-thru 검사로 효율화하고, 정부가 신속히 서울역 회의실에 각계 요원들을 모아 회의를 거듭해 좋은 검사 키트를 제조해 세계에 내보내는 공을 세우기는 했으나,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우한의 특정 종교 신자들의 대구 입국 방역 대책 미흡, 백신-치료제 개발 혼동 등 반성할 점들이 많다. 못 보던 몇 년간의 팬데믹에 대한 대처를 의료 윤리(철학자참여), 감염자 이동의 인문 지리 측면 등등에서 여러 면에서 되돌아보게 하는 주제였다.

일본 수어(수화) 연구 전문가가 수어자와 아닌 자의 상호작용과 수어자의 어려움에 대한 자세한 발표가 있었으나, 수어가 언어체계인 점을 감안한 AI측 연구 소개가

없었다.

4. 총괄 평가

東京의 더위가 심해 견디기 어려웠다. 회의 장소가 두 곳이어서 왕래하기 힘들었다. 중식을 첫째 날은 제공하고, 둘째 날은 제공하지 않아 혼란이 생겼다. 또 두 번의 리셉션이 당일 초청 등으로 원활치 않아 참석하기 힘들었다.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특히 둘째 날에는 실수가 잦았다.

취급한 영역이 너무 방대해 내실이 부족했다. 대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까지 논의했다. 이틀 동안의 짧은 일정에 과욕과 실수 탓에 과부하가 걸렸다. 그러면서 높이 평가할 만한 발표는 없었다. 문제만 말하고, 해결을 위한 발상이나 이론은 제시하지 못했다.

서양철학을 넘어선 세계철학, 종교 갈등을 해결하는 보편적인 종교학, 인공지능에 휘둘리지 않는 창조적 사고와 교육, 영어의 특수성에 구애되지 않는 공통된 소통 방법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한 것이 얻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앞서나가는 발표는 없었다.

京都大學 철학교수인 일본학자가 ‘I’ 철학을 버리고 ‘We turn(우리 차례)’ 철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한 것은 새롭고 독창적인 견해이다. 그렇지만 타당성과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불교의 ‘無我’를 ‘We turn’의 원천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We 日本人’은 침략자가 된다. ‘We 人類’는 다른 생명을 유린한다.

일본학문을 널리 알리고자 하고, 선발된 학자들이 많은 발표를 했는데, 일본 알리기 수준이 기대만큼 높지는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문학과 인접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재미있었다. 다른 여러 나라 학자들도 한창 활동할 나이의 현역이 참여했다. 한국에서 간 네명 중 세명은 명예교수였다.

학술원은 국제학술회의 참가에 관한 정책을 개선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파견학자를 선발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취한 연구 성과를 잘 선정해 국제학계에 내놓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5. 참여 기회와 방법

내년도 회의는 북경에서 준비하고 있고, 2018년 CIPSH 첫 집행위가 중국 Xiamen대에서 열렸고, 그 밖에 5년간씩 지속되는 책임대학별 CIPSH Chair(의장)를 지원접수하여 해마다 5년 지속의 chair 대학을 결정하는 바, 2019-2024 의장 대학은 New Humanities 기치를 든 UC Irvine이 차지해 이 대학 인문대에 터잡고 중국 Xiamen대와 홍콩 중문대와 긴밀히 유대를 맺고 Prof. Hsiung Ping-Chen이 chair holder가 되어 이번 도쿄회의에도 이들 대학들에서의 연구 결과가 반영됐다(로그 참고). 다양한 과제와 행사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인문학의 중요성을 전파시킨다. 2019년부터 매년 1월 14일을 모든 나라가 World Logic Day(세계 논리학의 날)로 지키도록 UNESCO 집행부가 (CIPSH 통해) 선포했다. 논리학은 사유(reasoning)로서 인간의 중심적인 특질이라는 것이다. CIPSH는 그밖에도 인문학과 다른 밀접한 분야들 예컨대 수학과와의 융합적인 연구를 뒷받침한다. 예컨대, 독일 함부르크대는 CIPSH-UH Chair Diversity of Mathematical Research Practices and Cultures, at the University of Hamburg (chair holder Prof. Benedikt Löwe)를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평판 있고 연구 생산적인 아시아, 유럽, 북미 대학들과 관계망을 구축해 수행하고 있다.🌐



CIPSH CHAIR NEW HUMANITIES
2019-2024

[서평]

김철수 선생님을 통해 본 헌법 진리의 빛

-서평: 헌법을 말한다: 금량 김철수 선생 90세 기념 및 추모논문집 / 김효전 편-

趙柄倫 教授(한국헌법학회 前회장)



글머리에

이 추모논문집은 헌법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헌법은 원래 인간과 국가의 최고의 원리인 진리를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철수 선생님은 평생 동안 헌법이 보여주는 진리를 자신의 빛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진리의 내용을 빛과 같이 세상에 비추어 보여주셨다. 김철수 선생님의 헌법이라는 이 진리의 빛을 보고 배우고 알게 된 많은 사람들과 이 추모논문집의 기고자들은 여기에 헌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진리의 해답을 모아 누구나 함께 이 진리의 빛을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빛과 정의로 보고 알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한다. 이 추모논문집은 김철수 선생님의 90세 기념논문집으로 원고를 수집하고 준비하던 중 2022년 3월 26일 선생님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게 되어, 90세를 축하하는 기고논문과 선생님 자신의 저작과 유고 및 선생님과 제자들의 학문적 인연과 회고담으로 세편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제1편 김철수 선생님의 90세 축하 기고논문>

김철수 선생님의 90세를 축하하는 기고논문은 I. 김철수론 4편, II. 헌법일반 2편, III. 기본권 5편, IV. 통치구조 4편으로 구성되었다.

I. 김철수론

1. 김철수와 이항녕-동방풍토의 "과격화 제거 조례"를 묻는다 : 스즈키 게이후(鈴木敬夫, 일본 삿포로 가쿠인대학 명예교수, 고려대 법학박사) 저 ; 김효전 옮김

스즈키 게이후(鈴木敬夫) 교수는 일본 헌법학계의 원로로서 김철수 선생님을 평소 학문적 인간적으로 존경하시며, 일찍부터 한국의 헌법과 법철학을 일본에 소개하

였으며, 독일과 중국의 법철학에 관해서도 많은 저술과 번역을 하였다. 이 논문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인의 인권 문제를 법철학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이른바 풍토적 자연법론에 관하여 김철수 선생님과 이항녕 선생님의 법철학 사상을 비교 고찰하고 있다.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시며 김철수 선생님의 수제자인 역사 김효전 교수님은 저자 스즈키 게이후(鈴木敬夫) 교수와 오랜 학문적 교류가 있고, 일본의 憲政과 문헌에 해박하시어 어려운 내용을 잘 번역해 주셨다. 더구나 김효전 교수님은 본 추모논문집의 기획과 편집 및 교정 등의 어려운 작업을 주도하심으로써 김철수 선생님의 고귀하고 위대한 업적과 그의 헌법 진리의 빛을 이 추모논문집을 통하여 온 세상에 영원히 보존하고 알게 해주신 공로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감히 김철수 선생님과 제자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한국 법철학의 이정표를 살펴보고, 김철수에 의한 "이항녕의 정의론", 동방 풍토에 있어서의 "과격화 조례"를 묻는다. 중국에 있어서의 "사물의 본성", 역사적 풍토로서의 "황제의 지배", "과격화 조례"의 해석과 적용, 증언: "강제수용소"의 실태, "兩國體制"와 제정법의 불법, 결론 대신에 김철수의 저학권론-중국의 "백장미"와 관련하여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게 발견된다.

2. 1980년 6인 교수 헌법개정안의 회고

: 임종률(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이 논문은 1979년 10. 26 사태로 유신헌법체제를 종결하고 새로운 민주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김철수 선생님을 주축으로 하여 양호민, 장을병, 한정일, 임종률, 양건 등 6인 교수의 민주화의 봄 민주화 투쟁의 하나로 전개한 민주 헌정 회복 헌법개정 활동 상황을 회고하는 내용으로서, 한국의 민주화투쟁의 뜻 깊은 역사의 중요한 내용을 잘 밝혀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10. 26 사태 이후 계엄 상

태 하에서 12월 6일에는 최규하 총리가 헌법규정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정부의 모든 실권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12. 12 군사반란의 신군부 세력이 장악하고, 신군부가 추진 음모하는 후일의 제5공화국 강압 통치 헌법을 위해, 당시 이른바 ‘서울의 봄’으로 표현되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고 있던 때였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한국의 올바르고 바람직한 민주 헌정 회복을 위하여 이 6인 교수 헌법개정안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한국의 헌법 발전을 위하여 그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3. 국민통합 추진 국민운동- 김철수 선생님의 개혁적 저항권 헌법사상과 루소(Rousseau)의 개혁적 국민통합 정치사상을 통한 주권자의 현 한국 국가위기 극복과 재도약 실현 방법론- : 조병윤(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전 부총장, 한국헌법학회 전 회장)

이 논문은 제1 김철수 선생님의 헌법사랑 및 올바른 헌법수호를 위한 정치사회 개혁과 저항권 헌법사상을 먼저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제2로는 한국의 현재의 국가적 존망위기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현황과 개선방향과 “국민통합 추진 범국민운동”의 긴급한 필요성과 방향을 실증적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제3으로는 이상에서 심층적으로 고찰한 국론 분열의 국가적 위기에 대한 대책을 위한 이론적 근거로서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상의 “전면양도”와 “일반의사” 이론이 가지는, 우리나라 국민통합을 위한 현대의 헌법 정치적 의의를 분석한다. 그 결과 제4로는 국민통합의 필수요건인 국가 결속을 위한 세멘트와 저항권으로서의 “애국심”의 근거인 “형제애”(fraternity)의 사랑과 상호존중과 화합의 중요성을 심층적으로 고찰 분석한다. 이에 따라 결론이고 본론으로서, 제5에서는 “국민통합 추진 범국민운동”의 구체적 방안을 六何原則에 따라 도출하여, 국민의 실질적 통합적 주권행사와 대통령의 국가 수호를 위한 통합과 사랑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정치혁신과 국민통합을 달성하여 국가의 도약과 발전을 이루어 내는 길과 방안을 구체적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 헌법재판소제도에 대한 회고와 전망-김철수 “위헌심사 제도론”(1983)의 관점에서- : 이명웅(변호사, 법학박사)

이 논문은 김철수 교수님의 평생의 주요 연구 과제의 하나였던 헌법재판에 대한 깊고 광범위한 연구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제도의 발전과 위상에 미친 큰 기여의 의미와 내용을 여러 가지 중요한 헌법 실천의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주고 있는 데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제도의 필요성, 민주적 정당성과 권력분립제도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그 정치적 성격, 헌법재판의 판단기준과 심사기준, 헌법소원제도의 실효화 문제 등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제도가 한층 더 발전적으로 한국의 인권보장과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선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김철수 선생님의 노력과 헌법사랑의 정신에서 찾아 발전시키고 있다.

5. 내가 보고 들은 “금량 김철수 교수”와 그의 “헌법학” : 이병규(동의과학대학교 부교수, 법학박사)

이 논문은 1990년대 중반의 법학도에게 헌법학자 김철수는 과연 어떤 존재였고, 그가 펴낸 수많은 저작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느냐 하는 것을 당시의 일반적 정서에 기대어 소묘해 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김철수 선생님의 대학 학창시절 식민지 조선에서 제국대학 출신의 구미 유학을 다녀온 일본인 교수 아래서 공부한 교수로부터 공부하는 한계를 절감하고, 공법학의 본고장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공부한 것은 한국 공법학의 초기 형성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개척자와 선구자 정신으로 담당한 것이라고 평가한 점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특히 권력구조 일변도의 헌법학 풍조 속에서 戰後 독일 헌법학의 인간 존엄성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권 사상의 도입, 기본권 중심의 헌법 체계 구축 등을 주장한 것은 우리 헌법학의 판도를 바꾼 중요한 업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점은 그 의의가 크다.

II. 헌법일반

1. 나진, 김상연 역술 “국가학”의 텍스트

: 김효전(대한민국학술원 회원,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김효전 교수의 이 논문은 “한국에서의 국가학과 정치학 발달의 기원을 명백하게 사실대로 진실을 밝히는 것”

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학자적 양심에서 나온 불가피한 헌법수호의 문제의식을 정당하게 해결하기 위한 고심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근대 한중일(韓中日)에 있어서 블룬츨리(J. C. Bluntschli)의 민족, 국민개념의 수용 및 변용과 관련하여, 나진, 김상연 역술 “국가학”에 관한 서술 중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집필한 것이다. 국가의 존립의 정당성과 헌법학의 근본이 되는 국가학의 근원과 내용에 대한 연구라는 국가와 헌법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의 연구에 있어서는, 그 학문연구 자세와 매너 및 학문 수준이 어느 분야나 문제에서보다 한층 더 정밀하고 객관적이며 업그레이드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래야만 국가와 국민을 불안정과 혼란과 미혹에 빠뜨릴 수 있는 부정확하고 왜곡된 국가와 헌법의 해석과 운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지적하고 교정하려는 바와 같은 국가학과 헌법학에 있어서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왜곡과 미혹의 부정확한 기술은 다시는 국가학과 헌법학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국가학”이라는 저서의 번역서, 저본, 저본의 4 종류, 저본에 대한 정혜영의 태도, 편집위원회의 태도 등을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결론을 상세히 정리하고 있다. 후기로서, 이러한 학문적 비판이 정당하게 수용되고 그 오류가 인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2. 한국에 있어서의 정당과 “민주적 기본질서”

: 國分典子(일본 法政大學 교수)

이 논문은 일본의 탁월한 헌법학자인 고쿠분 노리코(國分典子) 교수가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위헌 해산 판결과 관련하여 한국의 정당민주주의에 관한 헌법해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점에서 큰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고쿠분 노리코 교수는 한국에서의 서양 국가학과 정치학의 기원을 명백히 밝히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 학자이다. 그는 독일 에어랑겐-뉴른베르그 대학에서 “일본 明治憲法 하에서의 일본 국가학의 독일적 의의”라는 논문으로 1993년에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후 귀국하여 아이치 현립대학, 쓰쿠바 대학, 나고야 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는 호세이(法政)대학 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1-2002년에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연구교수를 지냈다.

國分典子 교수는 한국 헌법에 관한 논저를 많이 발간하였고, 특히 한국의 근대 헌법과 국가학에 관하여 귀중한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다. 그의 이러한 연구 노력으로 근대 한국에서의 헌법과 국가학의 발전에 관하여 일본과의 관련이 상당히 밝혀졌으며, 우리 학계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점은 큰 의의가 인정되고 있다.

3. 코로나 초기 백신확보의 실패와 기본권으로서의 국민생명권 침해 : 신평(공익사단법인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이 논문은 2020년 봄부터 11월까지의 국란에 가까운 코로나 사태 하에서 정부가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음으로써 코로나 초기 백신확보를 실패함으로 인하여 국민생명권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심대하게 침해된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판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위원회의 형식이건 국회의 국정조사 형식이건 그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수사의 착수나 헌법소원 등의 형태로 사법기관이나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위법 위헌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존립 목적과 헌법의 최고 근본규범성과 생명권 등 기본권의 최고 중요성과 존엄성을 명쾌히 밝혀 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4.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체계적 고찰

: 박용상(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죄)의 법제상 위법성 조각사유는, 공익적 사안과 비공익적 사안 모두에 있어서,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어 재정비하는 방안을 영미법 및 독일 법제의 법리를 도입하여 심층적으로 분석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큰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영국 보통법상 제한적 특권의 법리와, 특히 ‘공정보도의 특권(fair report privilege)’, ‘중립보도의 면책특권(neutral reportage privilege)’, ‘통신뉴스의 항변(wire service defense)’ 등과 독일 형법상 정당한 이익의 옹호(독일 형법 제 193조)의 법리를 우리나라 대법원판례와 독일, 영미의 판례와 이론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진실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론을 비판

하고, 결론으로 진실적시에 의해 손상되는 명예보다 그에 의해 옹호 또는 방어되는 정당한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켜 면책될 수 있도록 위법성 조각사유를 확충 정리함과 함께, 실무에서도 그 면책 범위의 확장 적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한국의 언론 자유의 선진화와 발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게 발견된다.

5.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연혁
- 미국, 독일, 일본 및 한국을 중심으로 -
: 박홍우(법무법인 케이씨엘 고문변호사)

이 논문은 한국의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각 법의 연혁이 헌법은 미국 및 일본에서, 형사소송법은 독일 및 일본에서 각각 다르게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적절히 해석해야 된다는 점을 심층적 연혁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점에서 큰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6. 독일에 있어서의 기본권보장제도에 관한 고찰 - 특히 연방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하여 -
: 권형준(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법학박사)

이 논문은 개인의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의 존립근거이며, 헌법질서의 최고가치라는 점을 재확인 강조하고, 이러한 헌법의 이념을 잘 구현하고 있는 독일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제도를 다각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좀더 선진화된 기본권 보장 방안들을 명쾌히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큰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독일 기본법상 기본권보장제도의 유형, 독일의 기본권보장제도의 꽃인 연방헌법재판제도의 의의와 연혁, 독일 연방헌법재판제도의 구성과 권한,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한 기본권보장 방법과 제도 및 특히 추상적 규범통제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등 한국의 헌법재판소에는 아직 미비한 선진제도를 명확히 분석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기본권보장의 실효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큰 의의가 발견되고 있다.

7. 의무의 본질 - 선악인가? 분배인가? -
: 황도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이 논문에서는 법이란 원래 국가사회의 정의를 현실의 질서로 구현하는 규범질서라는 점에서, 법은 국가질서라고 본다. 따라서 정의의 내용을 규범과 의무로 만들고,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 질서가 되게 한다.

따라서 법이 어떤 질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의무'가 무엇인지, '의무'가 왜 필요한지, '의무'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심층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에서 큰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의무는 선악인가? 분배인가? 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결론으로 중용과 균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각자의 것'을 존중하는 수단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큰 의의가 발견된다.

8. 헌법의 이름으로 - 대통령 박근혜 탄핵결정과 이익형량론의 본질적 한계 - : 양건(법학자, 전 감사원장)

이 논문은 헌법재판의 정치적 성격과 관련하여, 한국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의 본질과 그 정당성에 관한 근본적 문제 및 널리 재판이 정치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헌법적 관점에서 본 '촛불항쟁'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촛불항쟁'은 혁명인가? 혹은 저항권행사인가? 시민주권행사인가를 분석한다. 나아가 한국 헌법재판에서의 이익형량론과 상충하는 법익의 통약(通約) 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의 심층적 검토에 따라 '촛불항쟁'에 대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법조윤리의 기본명제와 선진적 위헌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9. 캐나다, 미국, 한국의 헌법재판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김형남(미국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교수, 법학박사)

이 논문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인권옹호 기능의 확대를 위하여 캐나다, 미국, 한국의 위헌심사 기준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큰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 기준에 관하여, 목적심사(Object and Purpose scrutiny), 과장기준(Colourability Doctrine), 효과기준(Effects test), 축출기준(Doctrine of Severability) 등의 분석과 평가를 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

기준으로는 합헌성 추정(Presumption of Constitutionality)과 이중기준(Double Standard)으로서 최소한의 합리성 기준과 엄격심사 기준을 분석하고, 기타 기준으로서 업그레이드된 최소합리성 기준과 다중기준(sliding scales of scrutiny) 및 문맥상의 엄격심사 기준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하고 있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에 따른 결론으로 한국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기준의 문제점과 그 문제해결 방안을 독창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위헌심사 기준을 인권옹호 차원에서 한층 더 선진화하고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게 발견된다.

10. 세계인권재판소제도 연구: 이현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연구원 원장)

이 논문은 세계인권재판소제도의 논의의 연혁과 이념적 기초를 분석하고, 특히 2021년에 김철수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세계헌법재판소 법안 내용을 그 외의 세계적 법안 내지 제안들과 함께 심층적으로 비교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이미 입헌주의가 개별 국가들 차원을 넘어 전세계적 내지 전 인류적 차원으로 확장하고 있는 범세계적 입헌주의의 정착을 위한 창의적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세계인권재판소제도의 논의는 2차세계대전 이후 1945년에 출범한 UN 인권위원회로부터 시작되어, 1968년 이후 국제법학자위원회(ICJ) 등의 제안, 세계정부론자 Garry Davis의 제안, Swiss Initiative의 제안, lucknow 법안 등이 분석되고 있다.

세계인권재판소의 이념적 기초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의 증대, 고립적 배타적 개인주의에서 관계적 조화적 개인주의로의 세계 인간상의 변화 등이 심층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계인권재판소 설립안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김철수(안)과 비교하여 1) 세계인권재판소의 구성방법, 2) 관할권, 3) 적용규범, 4) 당사자자격, 5) 심판절차, 6) 재판관 구성, 7) 판결의 효력 및 집행, 8) 재정, 9) 재판소 소재지 등을 상세히 비교 분석 검토하고 있는 점에서 큰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11. 법학의 미래

: 크리스티안 슈타르크(독일 괴팅겐대학교 명예교수)

; 김대환(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옮김

이 논문의 저자인 크리스티안 슈타르크(Christian Stark) 교수는 대한민국학술원 명예회원이시며 김철수 선생님께서 세계헌법학회(IACL) 부회장으로 오래 학문적 인간적 교류를 깊이 해 오신 독일의 대 헌법학자이시고 세계헌법학회(IACL)의 명예회장이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미래에 적용될 법학에 관하여 법이론의 성과, 법이론의 위계, 지혜의 원칙(Klugheitsregeln)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미래의 사회발전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의 경향과 유럽화와 세계화 문제와 새로운 시대적 개별화 문제, 실용화 문제의 심층적 분석에 따른 미래 법학의 과제를 상세히 비판 제안하고 있는 점에서 한국의 법학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점에서 큰 의의가 발견된다.

〈제2편 제자들의 김철수 선생님에 대한 학은과 회상〉

제2편은 제자들의 김철수 선생님에 대한 학은과 회상을 수록한 것으로 선생님의 학문적 깊이와 인격 및 제자 지도와 사랑을 잘 나타내 주고 있어 매우 귀중한 학문적 사료로서의 큰 의의가 발견된다. 즉 김효전(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조병윤(명지대 전 부총장), 권형준(한양대 명예교수), 양건(전 감사원장), 황우여(전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진환(전 서울중앙지검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김문현(전 헌법재판연구원장), 성낙인(전 서울대 총장), 정해방(국가경영연구원 이사장), 홍정선(국가행정법제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영천(서울시립대 명예교수), 김학성(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백윤기(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한위수(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 정재황(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세계헌법학회(IACL) 전 부회장), 최선웅(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문현(한국헌법학회 제24대 회장), 김대환(전 한국공법학회 회장), 이효원(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장용근(홍익대 교수) 등 법학교수와 법조인들의 일생을 좌우하는 큰 인간적 학문적 지도와 사랑 및 석박사 학위논문 지도 등의 산 역사는 한국 공법학계의 중요한 단면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 큰 의의가 발견된다.

<제3편 김철수 선생님의 저작 논문>

제1장. 회상

1. “나의 법철학적 편력”

이 회상은 김철수 선생님 자신이 젊은 학창시절 독일 유학 시절부터 일생 동안의 학문적 행로를 상술하신 것이다. 독일 문헌대학 유학시절 세계적 법철학자 엥기쉬(Karl Engisch), 라렌츠(Karl Larenz), 베르버(Friedrich Berber) 교수 등과의 학문적 교류와, 나비아스키, 마운츠 교수 등과의 헌법적 교류 및 귀국 후 라트부르흐의 법철학 연구 소개와 풍토적 자연법론 등에 대한 연구활동의 설명이 흥미롭다.

1966년의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의 연구 후,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적 활동과 5공화국 출범 전 1980년 봄의 6인 교수 헌법개정안 발표와 5.17 이후의 신군부의 탄압 수모 등 민주화 투쟁 헌법학자로서의 의연한 투쟁이 잘 나타나 있다. 동서양의 법사상 비교와 통일헌법 초안 작성이 희망이라는 선생님의 학문적 의지는 후학들에게 많은 시사점과 감명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또한 헌법과 법철학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의 바람직한 연구 모델 제시하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2. “명사가 걸어온 길”

이 회상은 선생님의 자서전적 인터뷰 설명과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한국 헌법학의 태두 김철수 선생님의 일생과 일대기를 시술한 것으로 선생님 인격과 업적을 시대별로 조감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제2장. 헌법과 정치와 경제

1. 헌법과 정치에 관한 단상

이 부분은 김철수 선생님께서 교과서나 저서로 발표하신 내용 외에, 한국통일을 기원하며 “세계혁명”이라는 저서를 쓰신 유기천 전 서울대 총장님의 9주년 기념 강연에서 “헌법과 정치”의 긴장 관계에 관하여 발표하신 것으로, 입헌정치와 민주정치의 본질, 세계 각국의 주권의 직접행사 방법과 정부형태 등에 관한 매우 중요하고

심오한 내용이어서 그 의의가 크다. 따라서 그 중요성에 비추어 집대성해들 헌법적 의의가 큰 부분들을 종합한 것으로 의의가 크다.

이 논문에서는 근대입헌주의의 의의와 본질, 헌법의 우위를 보장하는 제도, 민주정치의 형태, 주권행사의 방법, 현대 입헌주의와 직접민주정치 및 대표민주정치, 신 대통령제와 이원정부제로서의 Finland의 정부형태, 독일 Weimar헌법의 이원정부제, 오스트리아의 이원정부제, 프랑스 De Gaulle헌법의 이원정부제, 러시아 연방 이원정부제 등을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 검토해 주시어 헌법의 중심 내용인 이 분야의 학문적 발달을 견인해 주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2. 경제와 복지에 관한 국가의 역할

3-4. 김철수 선생님의 한국공법학회 회장 인사말과, 한국 공법학회의 헌법재판소법 건의문

김철수 선생님은 한국공법학회 회장직을 수행하시면서, 1988년 제9차 헌법개정으로 제6공화국헌법에 의해 신설될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주요 헌법 부속법률들의 제정과 개정에 법학자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건의문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시었다. 그 건의 내용은 헌법소원 사항에는 당연히 법원의 판결도 포함되어야 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리인에 법학교수도 참여하여야 함을 건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새로운 헌법재판제도가 독일 등 선진 헌법재판제도와 같은 수준으로 발달되도록 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신 것은 헌법과 기본권 보장 및 헌법재판의 선진 민주적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5. 공법이론과 판례연구회의 35년간의 발표회와 발자취

공법이론과 판례연구회는 김철수 선생님께서 1989년 제자들과 함께 창립하시어 35년간 현재에도 매월 지속적인 발표회를 가지고,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와 함께 공동 연구와 발전을 해오고 있다. 본서에서 그 수많은 발표회들의 발자취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한국의 공법 발달사의 산 증거로서의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제3장. 김철수 저서 머리말 모음

제4장. 기념논문집 하서, 발간사

금량 김철수 선생님의 화갑기념, 정년기념, 고회기념, 80세 기념 논문집 등의 간행사와 하서로서, 고려대 구병삭 명예교수님, 황우여 김철수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장, 무애 서돈각 전 경북대 총장님, 초기 공법이론과 판례연구회 회장을 역임하시어 이끌어 주신 정덕장 변호사님, 전 부산대 서주실 총장님, 전 서울대학교 양승규 법학연구소장님, 김철수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발간위원회 대표 장명봉 교수님, 고회기념 “헌법정치 60년과 김철수 헌법학”이라는 김효전 교수님의 하서, 팔순기념 논문집간행위원회 간행사 등은 금량 김철수 선생님의 일생의 학문적 인간적 업적을 기리고 설명하는 귀중한 산 증거들이라는 의미에서 그 의의가 크다.

제5장. 김철수 선생님의 시론과 에세이

김철수 선생님께서는 1989년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논단”을 창간하시어 수십년간 한국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위해 수많은 논설과 시론을 발표하심으로써, 항상 우리나라 발전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시고 밝혀주신 애국자이시었다. 그 예시적인 내용들로는, 2009년의 “한국논단 20년간의 회고”, 제10차 헌법개정의 방향, 사법권 독립을 제한하는 것, … “세계인권선언에 관한 고찰” 등의 발표 내용에서 큰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제6장. 김철수 선생님의 저작에 대한 서평

김철수 선생님께서 일생동안 출간하신 서적은 방대하고 심오하여 우리나라 헌법학의 태두라는 칭호를 받기에 충분하고 넘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교과서인 “학설 판례 헌법학(上)(中)(下)”(박영사) 외에도 그 대표적 저작들에 대한 서평들은 모두 선생님의 학문적 업적과 고귀한 가치를 잘 설명하고 있기에 그 서평들이 이 회고 논문집에 모아 본 것은 김철수 선생님의 학문적 깊이와 영향 및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과 주춧돌과 큰 기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김철수 선생님의 저서 “법과 정의, 복지”(진원사, 2012, 567면)에 대한 대한민국학술원 김상용 회원(연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서평, “헌법과 정치”(진원사, 2012, 1124면)와 “헌법정치의 이상과 현실”(소명출판, 2012, 1125면) 및 “새 헌법개정안-성립, 내용, 평가”(진원사, 2014, 399면)와 “헌법과 법률이 지배하는 사회”(진원사, 2016, 4782면) 및 “한국통일의 정치와 헌법”(시와 진실, 2017, 737면)에 대한 김효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동아대 명예교수)의 서평, “기본적 인권의 본질과 체계” 저서에 대한 김문현 이화여대 명예교수(전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서평, “한국의 헌법학 연구” 저서에 대한 조병윤 명지대 명예교수의 서평, “인간의 권리”(산지니, 2021, 1008면) 저서에 대한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과 이현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인류보편의 인권공동체를 위한 노학자의 외침”이라는 제목의 서평과 “인간의 권리”에 대한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형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서평 및 “금량 김철수 선생 팔순기념 논문집-헌법과 기본권의 현황과 과제”(경인문화사)에 대한 김대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김덕환 옮김)의 한글과 독일어로 된 서평 등은 김철수 선생님의 학문세계와 한국 헌법학의 발전상을 한눈에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III. 타인의 저작에 대한 김철수 선생님의 서평, 추천사

1. 김대환(서울시립대 교수) 대표편역, 슈타르크 헌법논집 “민주적 헌법국가”(2015)

독일의 Christian Starck 교수는 김철수 선생님께서 세계헌법학회 부회장이실 때 활동을 함께하시고 공동연구를 많이 하신 절친한 사이이시다.

이 책은 제1부 헌법과 헌법재판소, 제2부 기본권, 제3부 선거, 정부, 입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철수 선생님께서는 이 책은 저자의 해박한 철학, 종교, 비교문화적 소양 위에 쌓여진 귀중한 연구 결과로서 헌법학의 근본 문제에 관해 상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학도와 실무자들이 필독할 가치가 크다고 높이 평가하시며, 김대환 교수님의 번역의 노고의 의의를 크게 평가하신다.

2. 헤르만 헬러 지음, 김효전 옮김,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 사상”(산지니, 994면)

헤르만 헬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연방공화국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법치국가’의 창시자로서 나치스에 대한 투사이며 독일의 현대 정치학과 나치스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세운 헌법학자이다.

김철수 선생님께서는 본 역서의 의의에 대해, 역자인 김효전 교수는 이미 옐리네크의 “일반 국가학”을 번역했고, 칼 슈미트의 대부분의 책과 한스 켈젠의 많은 저술 및 뢰벤슈타인의 “비교헌법론”, 뵘의 “헌법, 국가, 자유”, “국가와 사회의 헌법이론과 구별” 등 수많은 중요 저술을 번역하고 해설해 왔음을 지적하시고, 바이마르 독일이 고뇌하고 경험한 민주주의의 실험과 헌법현실의 경험을 현재의 한국인에게 교훈과 방향을 제시해 주고자 하는 역자의 애국심에 동감과 찬사를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역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정치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시사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3. 카를 슈미트 지음, 김효전 옮김, “헌법과 정치” (산지니, 2020, 1211면)

김철수 선생님께서는 본 역서의 의의에 대해, 역자인 김효전 교수는 그 동안 카를 슈미트의 “정치신학외”(1988), “유럽 법학의 상태”(1990), 한스 켈젠과 카를 슈미트의 “헌법의 수호자 논쟁”(1991), “합법성과 정당성”(1993), “독재론”(1996), “현대 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지위”(2007), “국민표결과 국민발안”, “정치적인 것의 개념”(2012) 등을 번역 출판하였음과 함께 그 학문적 의의를 높이 평가하신다.

나아가 이 책의 부록으로 카를 슈미트의 생애와 저작물, 카를 슈미트에 관한 연구 문헌 목록이 역자의 주와 함께 300면 가까이 실린 점은 한국과 일본에 미친 카를 슈미트의 학문적 영향을 깊이 고찰한 것이므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카를 슈미트와 루돌프 스펜트, 한스 켈젠과의 이론 비교도 상세히 하고 있는 점에서, 독일 헌법학의 전모를 이해하는데 유익한 자료로서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하시고 독자들의 일독을 권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발견된다.

4. 이건개 지음, “불멸의 본질, 위대한 국가의 길” (유니스토리, 2020)

김철수 선생님께서는 서울대 사법대학원에서 자신의 지도 하에 “대통령제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저자 이건개 변호사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과 애국 애족의 생활철학을 존중하시고, 본 저서에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며 애국과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을 높이 평가하신다.

제7장. 취임사, 인터뷰 기타

조선일보가 2012년 10월 30일 김철수 선생님을 인터뷰한 “팔순의 헌법학 원로, 연구열정은 여전히 청춘”이라는 표제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11월 5일자 “한국 헌법학계의 태두’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인터뷰 기사, 중앙일보 2013년 7월 14일자 “개헌, 집권초 추진해야... 현직대통령 중임 예외로 허용땐 탄력 받을 것”이라는 인터뷰 기사, 조선일보 2013년 9월 6일자 “통진당 해산 제소 가능...소속 의원 다 제명할 수 있어”라는 표제의 인터뷰 기사, 조선 pub 아카이브 뉴스 2016년 3월 24일자 “대통령에 국회해산권 있어야-다당제 실현을 통한 이원정부제가 바람직” 표제의 인터뷰 기사, 세계일보 2016년 6월 25일 “나의 삶 나의 길-고시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 다시 태어나도 교수 될 것”이라는 표제의 인터뷰 기사 등은 김철수 선생님의 인생관과 학문관과 정치적 신념을 잘 나타내 주고 있어 큰 의의가 발견된다.

제8장. 추도문, 부고 / 제9장. 공부방법, 참가기

김철수 선생님께서는 대한민국 헌법초안을 마련하신 현민 유진오 선생(1906~1987)의 추도사에서 유진오 선생의 저술과 헌법사상, 기본권관, 통치구조론 등을 종합 평가하시어 후학들의 관련 분야 연구의 방향을 잘 제시하여 주신 것은 큰 의의가 발견된다.

또한 이종극 선생(1907~1988), 무에 서돈각 선생님 추모논문집(2006) 간행사, 서울 시장을 역임한 김상철 회장 추모사(2012), 황적인 교수 추모사(2015), 월송 유기천 교수님 추모사(2018)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도적 인사와 학자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점에서 큰 의의가 발견된다.☺

[추모사]

영적 휴머니스트 길희성 선생님의 삶과 학문

程京日 研究企劃理事(심도학사)



故 길희성 회원(인문사회 제1분과)

길희성 선생님의 약력

한국 종교학계의 대표적 석학이신 길희성 선생님은 1943년 5월 6일 서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선생님은 1965년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학사/석사)하신 후 1971년 미국 예일대 신학부에서 신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어서 1977년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학업을 마치신 후에는 미국 세인트올라프대 종교학과(1977~1981), 서울대 철학과(1982~1984), 서강대 종교학과(1984~2004, 명예교수 2004~2023)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후학을 길러내셨습니다. 은퇴하신 후에도 벨기에 루뱅 대학 초빙교수(2005~2006), 일본 남산대학 Roche 석좌교수(2006~2007)로 지내시면서 연구에 계속 매진하셨습니다. 한국종교학회 회장(1994~1995)을 역임하셨고, 탁월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2007년 대한민국학술원 불교학 회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인도철학사』, 『포스트모던 사회와 열린

종교』, 『일본의 정토사상』, 『지논의 선사상』,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와 영성 사상』, 『보살예수』, 『종교에서 영성으로』, 『길은 달라도 같은 산을 오른다』,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종교 10강』, 『인문학의 길』, 『영적 휴머니즘』 등이 있습니다. 현재 동연출판사에서 <길희성—종교와 영성 연구 전집>을 발간 중입니다.

길희성 선생님은 왕성한 학문적 활동 외에도 대안적 교회 운동, 종교 간 대화 운동, 초종교적 영성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1987년 평신도공동체 새길교회 창립에 참여하여 말씀증거자 및 신학위원으로 헌신하셨고,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창조적 만남과 대화에도 힘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경계를 넘어 영성을 탐구하기 위해 2011년 6월에 강화도에 심도학사를 창립하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열정을 바치셨습니다.

길희성 선생님은 2023년 9월 8일 금요일 새벽 향년 80세를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으로는 사모님 박남미 선생님과 두 따님 길재은, 길영은 님, 사위 Christoph Franzgrote, 손녀 Clara Keel Franzgrote가 있습니다.

경계를 넘은 인문학자의 ‘인간적 학문’

길희성 선생님은 불교학을 탐구한 종교학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또한 신학자이며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약력에서 언급했듯이 학업도 서울대에서 철학을, 미국 예일대에서 신학을, 그리고 하버드대에서 종교학을 전공하셨습니다. 학생으로서는 학부에서 석·박사 과정까지 전공을 달리하며 단계적으로 지적 수련을 하셨지만, 학자로서는 철학, 신학, 종교학 모두에서 두각을 나타내

셨습니다.

학자로서 길희성 선생님의 연구 영역은 탈경계적이면서 통합적입니다. 철학, 신학, 종교학을 넘나들며 아우르는 선생님의 지적 세계는 ‘인문학’으로 총칭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에게 인문학의 목적은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며 인간다운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인문학이 ‘객관적 지식(objective knowledge)’의 이름 아래 삶과 유리된 채 고도로 ‘전문화’되고 ‘기술화’되어 버리는 것, “인간이 사라진 인문학”이 되어버린 것을 무척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의 통찰을 빌어 모든 학문, 특히 인문학은 ‘인간적 학문(humane science)’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실로 길희성 선생님이 걸으신 학문의 길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인간적 관심의 여정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철학적 인간 이해에서 신학적 인간 이해로 지평을 확장하셨고, 그리스도교의 경계를 넘어 세계종교를 탐험하셨습니다. 선생님이 학문적 경계를 넘고 확장하실 때마다 이정표가 되어준 것은 당신 삶의 실존적 고민이었습니다. 선생님의 학문 방법은 시종일관 위인지학(爲人之學)이 아닌 위기지학(爲己之學)이었습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분출하는 실존적 물음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새로운 영토로 용기있게 들어가셨습니다. 서강대학교를 조기 명예 은퇴하신 것도 여생을 위기지학에 더 전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길희성 선생님은 경계를 계속 넘고 넓은 실존적, 인간적 인문학자셨습니다.

‘전기’로서의 책들

실존적, 인간적 학문을 하신 길희성 선생님은 많은 역작을 남기셨습니다. 선생님이 쓰신 책들은 선생님의 ‘전기(biography)’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학자로서 선생님이 걸으셨던 여정의 전환점들은 당신 삶에서 마주친 지적, 영적, 윤리적 의문의 답을 찾는 ‘시중(時中)’의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귀국 후 서울대 철학과와 서강대 종교학과에서 학자로서 본격적 활동을 시작하셨을 때는, 후학 양성을 위한 ‘교육자’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종교학 도서 번역과 교재 집필에 주력하셨습니다. 이때 현대 종교학 고전인 루돌프 오토의 『성스러움의 의미』(1987)와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의 『종교의 의미와 목적』(1991)을 번역하셨고, 종교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돕기 위해 케네스 쉐의 『불교의 이해』(공역, 1992), 게라르두스 반 델 레에우의 『종교현상학 입문』(1995, 공역) 등도 번역하셨습니다.

또한 인도 종교와 철학을 가르치실 때 마땅한 한국어 교재가 없자 직접 『인도철학사』(1984)를 집필하셨습니다. 베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인도 주요 철학 전통을 소개한 『인도철학사』는 그 내용이 매우 방대할 뿐만 아니라 핵심적이어서, 제가 종교학도였을 때 ‘발췌’로 시작했다가 거의 ‘필사’로 끝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힌두 사상을 가르치시면서 『바가바드 기타』(1988)도 번역하셨습니다. 최근 동연 출판사에서 새로 펴낸 『바가바드 기타』는 은퇴하신 후 몇 달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산스크리트어, 독일어, 영어 번역본을 한 구절 한 구절 대조해가며 재번역하신 것입니다.

소장학자 시절에는 불교학자로 수준 높은 논문을 양산 하셨습니다. 1980년대에는 시대정신과 호흡하는 학문을 추구하시면서, 「민중불교, 선, 그리고 사회 윤리적 관심」(1988), 「선과 민중해방 : 임제의현의 사상을 중심으로 하여」(1991) 등 불교적 사회윤리에 대한 논문을 쓰셨습니다. 해외 학계의 주목을 받은 단행본으로 *Chinul: The Founder of the Korean Son Tradition*(1984)과 *Understanding Shinran: A Dialogical Approach*(1995)가 있고, 같은 주제를 더 정교하게 다듬어 국내에서 『일본의 정토사상』(1999)과 『지눌의 선사상』(2001)을 출간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은퇴 후에도 불교 연구를 멈추지 않으셔서, 두 제자(류제동, 정정일)와 함께 대한민국의학술원 학술연구총서 『비판불교 연구』(2017)도 집필하셨습니다.

길희성 선생님은 불교-그리스도교 대화에 대한 창조적 글도 많이 발표하셨습니다. 주요 논문으로 『예수, 보

살, 자비의 하느님(1993), 「자비와 아가페 : 불교와 그리스도교에 있어서의 사랑」(1995) 등이 있고, 국제 학술지 Buddhist-Christian Studies에 기고하신 “Jesus the Bodhisattva: Christology from a Buddhist Perspective(보살 예수 : 불교적 관점에서 본 그리스도론)”(1988)도 있습니다. 이중 “Jesus the Bodhisattva”는 해외의 불교-그리스도교 대화 연구자들에게 신선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거의 30년이 지나 제가 미국 유학 중 불교-그리스도교 대화 세미나에 참여했을 때, 세미나 ‘필독 자료’에 선생님의 그 논문이 포함되어 있어 반갑고 자랑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교-그리스도교 대화의 지적 탐구를 집대성한 책이 『보살예수』(2004)입니다. 이 책에서 선생님은 붓다와 예수, 열반과 하느님 나라, 공과 하느님, 불성과 하느님 등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핵심 신앙과 사상을 정교하게 비교하고 회통시키셨습니다. 그 외 불교-그리스도교 대화 관련 주요 저서로 『선불교와 그리스도교』(공저, 1996)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1980년대와 90년대에 한국 교회와 신학계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종교다원주의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으셨지만, 같은 시기 종교다원주의를 소개하는 여러 글을 쓰셨습니다. 주요 논문으로 「인간적 학문: 스미스 종교학과 인문학의 미래」(1997), 「존 희의 철학적 종교다원주의론」(1998), 「종교다원주의 : 역사적 배경, 이론, 실천」(2002) 등이 있고, 단행본으로는 『포스트모던 사회와 열린 종교』(1994)가 있습니다. 이 책은 열린 신앙을 위한 이론 제시, 불교와 그리스도교, 힌두교와 그리스도교의 비교신학적 연구, 그리고 주로 불교-그리스도교 대화를 통한 ‘아시아 신학’의 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길희성 선생님은 종교다원주의를 기본적으로 수용하시면서도 종교다원주의라는 하나의 신학 운동에 스스로를 제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추구하시는 것은 종교다원주의적이라기보다는 ‘종교다원적 신학’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자기 종교 전통에 깊이 헌신하면서 이웃 종교 전통에 개방적 태도를 보이는 대화적 신학을 추구하신 것입니다.

1990년대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격랑 속에서 인문학의 위치와 역할을 고민하고 성찰하는 철학적 작업에도

열중하셨습니다. 이때 동료 철학자들과 함께 『전통, 근대, 탈근대의 철학적 조명』(공저, 1999)과 『오늘에 풀어보는 동양사상』(공저, 1999)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철학과 현실』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같은 학술지에 「공의 지혜, 「무언의 지혜, 「심우의 지혜」 등 “동양의 지혜”를 주제로 한 짧지만 심오한 에세이를 연재하시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말년엔 그동안 쓰셨던 해석학적 인문학, 종교, 윤리 관련 철학 논문들을 모아 『인문학의 길 : 소외를 넘어-종교와 영성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출판하셨습니다.

길희성 선생님의 제자이면서 독자인 제가 선생님의 지적 엄밀성과 창조성에 감탄하며 재독 삼독을 했던 책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영성사상』(2003)입니다. 길희성 선생님은 한편으로는 독일의 신비사상가 요하네스 에크하르트(Johannes Eckhart)를 너무 늦게 만나신 것을 탄식하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뒤늦게나마 ‘계시처럼’ 만나게 된 에크하르트 덕분에 그리스도교를 떠나지 않으실 수 있었다며 감사하셨습니다.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한다”라는 에크하르트의 통찰은 선생님의 지적, 영적 만트라였습니다. 선생님은 당신의 에크하르트 연구를 2007년에 영문으로도 출판하셨는데(Meister Eckhart: An Asian Perspective), 해외 여러 학술지에 서평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길희성 선생님의 모든 책이 당신의 실존적 고민과 화두를 보여주는 역작이지만, 일생의 역작은 『영적 휴머니즘 : 종교적 인간에서 영적 인간으로』(2021)입니다. 당신 평생의 연구를 ‘집대성’하신 이 책의 핵심 사상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적 인간(homo spiritualis)’이며, 탈종교 시대의 종교는 영성으로 나아가야 하고, 영성은 종교 사이, 성과 속 사이의 경계를 넘는 ‘초종교적 영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와 동양종교, 세속적 휴머니즘과 영적 휴머니즘, 과학과 종교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펼치신 924쪽의 지적 파노라마를 읽다 보면 선생님의 지적, 영적 열정이 온전히 느껴집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영적 휴머니즘』 집필에 당신의 모든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쏟아부으셨기에 급격히 심신이 쇠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전기(傳記)'로서의 책들을 살펴보면, 그리고 제자로서 30여 년 가까이 선생님의 글을 읽고 교정도 보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상은 너무 심오해서 이해하는 게 그리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선생님의 문장은 쉽게, 편하게 읽힌다는 것입니다. 길희성 선생님은 불필요하게 어렵거나 지나치게 현학적인 글에 대해서는 정말 '화'를 내셨습니다. 특히 비문(非文)은 학자의 기본 소양이 없는 거라며 무척 싫어하셨습니다. 선생님의 명료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대학의 젊은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새길교회와 심도학사 등에서 다양한 청중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강의하시면서 체득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종교 10강』, 『보살예수』 등이 설교나 강의 원고를 기반으로 쓰신 책들이고, 『종교에서 영성으로』, 『길은 달라도 같은 산을 오른다』 등은 종교나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쓰신 책들입니다. 길희성 선생님은 인문학자는 교육자여야 한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듣는 이, 읽는 이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하고 쓰는 것을 당신에게도 다른 학자에게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중과 소통하는 인간적 학문의 언어를 찾는 노력, 그것이 이 시대의 학자들이 선생님의 말과 글에서 배워야 할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마지막 날들

길희성 선생님이 생전에 가장 뜨거운 열정을 바치셨던 세 공동체는 서강대 종교학과, 새길교회, 그리고 심도학사였습니다. 열정을 바치셨던 만큼, 세 공동체에 몸담고 계실 때 선생님은 가장 빛나셨습니다. 저는 서강대에선 교수와 학생으로, 새길교회에선 신앙의 한 '형제'로(평신도공동체인 새길교회에서는 서로를 평등하게 자매, 형제로 부릅니다), 심도학사에선 원장과 연구기획이사로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곁에서 지혜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어 감사한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더 감사한, 그래서 남은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은, 선생님이 빛을 발하실 때가 아니라 그 빛이 쇠할 때였습니다. 어둡고 황폐하기까지도 했던 날들, 선생님

의 연약함과 갈망, 회한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힘겨운 일이었지만, 또한 가장 감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선생님에게 죽음이 성큼 다가올 때 깨달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몇 달 동안, '세 번'의 장례식 준비가 있었습니다. 지난 봄, 병환이 깊어지신 선생님이 집중치료실에 계시다 나오셨을 때, 호흡곤란으로 산소 호흡기를 끼고 계셨고 심박수는 30을 밑돌고 있었습니다. 의사도 장례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 귀에 대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평생 찾으셨던 신비를, 희미하게만 보실 수 있었던 그 신비를,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 보시고 아시게 될 테니 편히 가세요."

그날 바로 장례 절차를 협의하고, 다음날, 무거운 마음으로 임종 준비를 하며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환히 웃으시며, "My Best Friend!"라며 맞아 주셨습니다. 전날 제가 드린 작별 말씀이 생각나 조금 민망했는데, 다행히 선생님은 기억 안 나신다 하셔서 덜 민망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더 필요하셨나 봅니다. 죽음의 문 앞에서 돌아 나오신 선생님은 가족과 친구와 제자들과 직접, 또는 전화로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두 번째 쓰러지셨을 때는, 언제라도 돌아가실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선생님, 최선을 다해 잘 사셨어요. 편히 가세요."인사를 드리고, 장례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날, 임종을 하러 갔는데, 또 하루 만에 일어나셔서, 먼저 오신 사모님과 지인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놀랐던 건 다시 돌아오신 게 아니라 '대화'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그전 몇 달 동안 말씀은 많으셨지만 대화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대화 중에 선생님은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선생님은 죽음을 늘 의식하셨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직 하고 싶으셨던 것이 너무 많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 찾아뵈었을 때도, 저를 보시자마자 첫마디가 "받아

적어요.”였습니다. 그리고는 불교의 무아론(無我論)과 비아론(非我論), 양자역학과 신, 동학사상, 생명철학 같은 연구 과제들을 열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마음을 못 따르게 되면서 더 탐구하고 싶으셨던 지적, 영적 주제들과 씨름하지 못하시게 된 것을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살고 싶어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위기를 넘기시고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음을 평생 탐구하고 가르쳤는데, 창피하게 왜 이려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마, 이때 당신 평생의 갈망을 내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오신 것이 감사했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 의식이 잠깐 반짝 돌아온다더니, 그러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다시 몇 번의 위기가 반복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찾아뵈었을 때는 거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도학사 영성 프로그램 디렉터 이진권 목사님이 병상에 누워 계신 선생님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느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길희성 선생님을 지금껏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갑자기 두 팔을 들어 허공을 몇 번 가리키시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한 마디는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저는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사랑하셨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우리 평생의 기도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다 이루신 거예요. 감사하시며 편히 가세요.”

길희성 선생님 생전에 박영호 선생님의 『죽음공부』를 읽으며 함께 공부한 적이 있는데, 박영호 선생님은 죽음 앞의 세 태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느 이, 캐는 이, 깨달은 이. ‘여느 이’는 죽음에서 도망치는 사람, ‘캐는 이’는 죽음을 똑바로 보는 사람, ‘깨달은 이’는 죽음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길희성 선생님은 여느 이, 캐는 이의 여정을 거쳐 깨달은 이가 되어 죽음의 문을 넘으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미 생전에 깨달은 이셨지만, 오랜 병고 중에 잊으셨던 것을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기억해 내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당신의 마지막 저서 『영적 휴머니즘』에서 죽음에 대한 당신의 깨달음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어두운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면 태양보다도 밝은 신의 빛(divine light)을 만나 지상의 삶을 살았던 우리는 모두 개체아의 정체성의 옷을 벗고 신의 무한한 빛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영생을 누린다. 지상의 괴로웠던 기억은 신의 찬란한 빛으로 채색되고 신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face to face, visio dei) 의심의 안개가 말끔히 사라진다.”

이제는 의심의 안개가 말끔히 사라진 자리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 신비를 보고, 신비 안에 계실 길희성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학술원상 수상자기고]

재만 조선인 문학 연구에 바친 40년

吳養鎬* 名譽教授(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 1940년대 전반기 재만 조선인 시의 성격

《1940년대 전반기 재만 조선인 시 연구》는 1932년 3월 홀연히 나타났다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단 사흘 뒤에 역사의 뒷길로 사라진 만주국에 살던 조선인 시에 대한 연찬이다. 만주국은 國歌에서 “천지 안에 새로운 만주, 새로운 만주는 바로 신천지·天地內有了新滿洲 新滿洲 便是新天地”라 했다. 그런데 그 신천지란 것의 정체가 일제의 군국주의를 이념으로 관동군이 세운 인위적인 국가, 가짜 나라·괴뢰다. 그렇다면 그 나라 국민으로 산 시인의 작품은 보나마나 답은 정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외연은 그렇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만주는 복합적 공간인 까닭이다. 만주는 “전부가 쌀 밭”이라는 소문이 돌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모든 것이 민족으로부터 떠나던 제정 말기, 사람들은 “낙토만주”라는 말을 믿고 그곳으로 몰려갔다. 1944년경에는 그런 이민의 수가 이백만 여에 이르렀다. 그들은 5족의 나라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삶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만주국의 조선인을 그런 정치 사회적 개념, 혹은 지리적 개념에 대입하여 평가할 존재는 아니다. 그들 가운데는 민족 운동을 하다가 스며든 우국지사, 독립군, 문전옥토를 동척에 넘긴 농민, 나라가 없어지자 울분을 삭이며 국경을 넘은 지식인(아나키스트)·문인(시인)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만주는 구원의 공간, 소도蘇塗이다.

문학의 경우 김택영이 “왜놈의 살기로 어둡고 시끄러운데·東來殺氣肆陰奸/누구라 이 나라 건줄고·謀國何人濟此難/저문 날, 아스라한 뜬구름 새로·落日浮雲千里色/고개 돌려 자꾸만 삼각산을 보내·幾回回首望三山”(〈九日發船作 二首〉)라며 失國의 한을 달래는 망명의

길을 만주로 열었다. 신채호 또한 “한스러워라. 물 막히고 산 막힌 곳에서·最恨水窮山盡處/내 마음대로 노래 부르기도 어렵구나·任情歌曲亦難爲”(〈白頭山途中人生四十太支離〉)라며 社稷에 하직을 고하고 백두산을 넘었다.

나는 그런 문학의 길을 운명처럼 만나 40여 년 발밤발 밤 따라가다가 마침내 찾아낸 결과를 행복하게도 《1940년대 전반기 재만 조선인 시 연구》로 마무리 했다. 어찌서 행복한가. 그 속에 숨어 있던 우리 문학의嫡子를 발견한 까닭이다. 복잡한 논의는 줄이고, 개화기 이후 한국 신문학사를 일찍이 적바림한 백철은 그의 《조선 신문학사조사》(1949)에서 1940년대 초기를 ‘무문학기·암흑기’라며 건너뛰었고, 林鍾國은 우리 문학의 친일 잔재를 청산한다면서 같은 시기의 문학을 ‘친일문학’이라며 비판했는데 그런 자학의 가치평가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논증했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든지 자국의 문학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먼저 연구과제로 삼는 것이 보편적인 논리다. 그러나 지금까지 1940년대 전반기는 ‘친일문학기’란 인식이 굳어져 연구가 미진했고, 그런 연구 분위기는 金允植에 의해 그 민족주의자적 코스프레가 ‘二重語’ 글쓰기로 구차하게 해명되었다. 그렇다면 1940년대 초기 재만 조선인 시 연구는 자국의 문학을 능멸하는 그 모순, 自蔑의 극복이 된다. 이런 논리 성립이 가능했던 것은 시를 투쟁의 무기로 삼는 다수의 젊은 재만 조선 시인들이 가상의 세계를 통하여 시의 주제를 초현실주의 시 기법으로 형상화했기 때문이다.

학술원의 심사평을 인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 저술은 《만선일보》 문예란에 발표된 〈시현실〉

* 제68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인문학 부문 수상자

동인의 작품의 실체를 부각하여 문학적 성과를 분석한 점, 이수형이 〈玉伊의 방〉에서 가상의 세계를 통하여 형상화한 시적 진실, 함형수의 〈이상국통신〉의 내재적 의미를 다각도로 해석한 점, 김조규 시의 서지사향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원본을 확정하고 판본의 왜곡을 시정 한 점, 유치환의 〈생명의 서〉 연작 세 편의 원본을 확정하고 내면 의식을 새롭게 해석한 점은 앞으로의 문학 연구에 크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정치하게 분석함으로써 기존 한국 현대문학사의 일부를 다시 쓰게 만들었다.”

2. 자료 찾아 발품 3만리

내가 재만 조선인 문학 연구에 착수하던 1980년은 신군부의 정치가 기승을 부리던 때다. 따라서 만주국 영토였던 중국 동북삼성의 조선인 문학에 대한 자료발굴은 언감생심이었다. 1942년 간도에서 발행된 《재만조선시인집》, 그러니까 해방의 혼란, 좌우 사상대립, 한국전쟁, 그 격랑의 세월을 견디며 만주에서 대구까지 흘러온 명이 소가죽인 그 책이 어느 대학의 지하 서고에서 방공법 때문에 불온서적으로 분류되어 곧 쓰레기로 폐기 처분할 책더미 속에 처박혀 있다가 나의 눈에 거짓말처럼 나타난 것이 그런 사정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서고 구석 땅바닥에 월북 문인들의 작품집과 함께 내동댕이쳐진 책더미 속에서 표지가 낙장인 책 한 권을 내가 집어 들고 간기를 봤을 때 《在滿朝鮮詩人集》 “康德九年 10月 10日. 間島省 延吉 藝文堂”이라는 활자가 나를 긴장시켰다. 진본 불온서적이었기 때문이다.

대구 문인 가운데 계성중학교 국어 교사로 수필을 쓰는 김진태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와 나는 어느 문인 모임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았고 서로 문학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재만 조선인 문학에 강한 호기심을 나타내자 그가 만주에 살던 청년기는 소설가로 활동했다고 했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 의아했으나 이야기를 들은즉슨 진짜라

나는 그의 손을 덥석 잡았고 그도 반가워 그 뒤 가까운 사이가 됐다. 특히 내가 그의 고등학교 후배라는 것을 알고 〈만선일보〉 소설 콩쿨에서 일등한 자신의 〈移民의 아들〉¹⁾ 스크랩과 그 소설이 연재되던 《만선일보》 한 장을 주었다. 그러면서 당시 만주에는 시인들도 많이 살았고 특이한 시인들도 있었으며, 그들이 낸 시집도 출판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신군부 시대는 월북 문인의 작품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반공법을 어겨 벌을 받기에 공산국가 영토인 만주에서 출판된 문학작품을 찾는 이야기를 광포하고 다닐 수는 없었다. 그러나 철의 장막 너머 적국 중공에 기백만의 조선인이 지금도 여기저기 갈대처럼 집단을 이루고 뺨 비비고 살며, 거기 일제강점기의 한글문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엄청 궁금하였고 그게 강박관념으로 나를 달뜨게 했다. 공산국가 소재의 문학이라 자료 추적이 소마소마하나 그 문학은 우리 민족이 산 내력이 숨쉬기에 발굴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한편 설사 만주국에 한글문학이 존재한다 해도 그것은 한국문학이 아니란 생각도 들었다. 조선문학이라기 보다 만주국 문학이란 가설이 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주국은 5족의 나라이기에 그 구성 분자의 하나인 조선인 작품은 신분이 일본인으로 바뀐 국내 문인의 작품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다른 가설이 섰다. 당시 만주국 문학은 일제문학(和文), 선계문학(諺文), 만계문학(滿文) 식으로 불려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 문학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마침내 그런 자료를 찾아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결심했다.

당시는 북 카드로 책을 찾아 창구에 열람신청을 해서 책을 보았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아는 책과 아는 저자의 책만 볼 수 있다. 그러나 서고에 들어가 문학서가를 뒤지면 모르던 책, 모르는 저자의 책을 발견할 수 있기에 나는 도서관 직원을 별난 방법을 동원하거나 탈법을 써서 서고 출입을 감행했다. 나의 그런 행위는 규칙 위반이나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연구 행위라 감히 용인된

1) 《만선일보》 1940년 제1회 ‘소설콩쿨’에 〈移民의 아들〉이 金鎮秀로 당선되고, 1941년에는 金鎮泰라는 이름으로 신춘문에 소설에 〈光麗〉가 당선되었다. 해방 후에는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동화 〈고집쟁이 양〉(1947)이 당선된 후 아동문학가로 활동했다. 말년에는 수필만 썼다.

다고 합리화했다. 그런 행위의 첫 성공사례가 《재만조선시인집》 발굴이다.

그렇게 자료발굴에 나선 결과 《만선일보》 일부가 한 정판으로 영인된 사실을 알고 그것을 구해, 읽던 신문은 끊고 대신 《만선일보》를 매일 읽어 나갔다. 그리고 문예란의 깨지고, 희미하고, 탈자된, 깨명석 같은 글자를 하나하나 베꼈다. 기대 이상의 작품이 심심찮게 나와 힘들지만은 않았다. 그 필사를 서울의 한 대학 도서관에 보관된 《만선일보》 마이크로필름을 사정사정하여 열람하며 완성도를 극대화했다. 그 결과 한 페이지의 짧은 시인들이 만주 도문에 시의 망명정부 〈시현실〉 동인을 결성하여 《만선일보》를 통해 조직적인 문학 활동을 했고 그들의 작품을 묶은 《典型詩集》(圖們, 1940)을 출판한 사실도 확인했다. 그들 가운데 초현실주의 기법으로 만주국의 현실을 우롱하며 시를 일제와의 투쟁의 무기로 삼는 몇 명의 시인을 발견했다. 대표적인 시인이 〈시현실〉 동인을 이끈 李琇馨이다.

그때 도문에는 나와 아주 가까운 수녀 한 사람이 숨어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를 통해 조선족 촌로들에게 내가 찾는 자료와 시인을 찾기 위해 물심양면의 투자를 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다. 그 뒤 나와 인연이 깊은 장춘의 길림대학 윤모, 북경의 중앙민족대학 오모, 문모, 인민대학 김모 교수, 장춘에서 출판되는 문예지 《장백산》 사장으로 평양을 드나드는 이모를 통해 이수형의 생몰 연대, 가족관계, 학력만이라도 알려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했으나 어떤 원본 자료도 구하지 못했다.

사정이 이러했으나 널리 발품을 팔아 《만주시인집》(1942), 함형수의 문제의 시 〈이상국통신〉, 김조규의 시가 수록된 《관서시인집》 《승실활천》, 한 열 생, 황민의 문제작 여러 편, 박팔양 시집 《여수시초》, 소설집 《씩트는 대지》(1942), 안수길의 《북향보》(《만선일보》 연재 스크랩)²⁾, 수필집 《만주조선문예선》 외 여러 紙誌에 발표한 재만 조선시인의 작품을 발굴했다. 이런 자료발굴은 어려웠고 사연도 많다. 그런 일 가운데 일어난 몇 가지 일화를 소개한다.

3. 〈선구자〉 열창 소동

나는 1993년 2월 25일 TV가 중계하는 제14대 대통령 취임식, 그러니까 문민정부 출범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대통령 취임식 식전 행사에 〈선구자〉가 흘러나왔다. 당시 선구자는 전 국민의 열창하는 국민가곡의 반열에 있었기에 그런 편집이 이뤄진 듯 했다. “지난날 강가에서 말달리던 선구자/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라는 그 민족 수난의 서사가 장중한 선율에 실려 통한의 일제 식민지 시절을 호출하는 정서 때문이다. 그러나 윤해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잘 아는 나는 낭패감을 넘어 분노가 치솟았다.

윤해영은 “四千萬 五族의 새로운 樂土/얼릴릴 상사야 우리는 拓土”라며(《만선일보》 신춘문에 당선민요, 1941), 또 “사나히 성을 쌓고 婦女들은 흙을 날라/創世記 神話처럼 새部落은 이리저리”는 〈척토기〉(《만선일보》 신춘문에 선외 가작, 1942)로 일제의 괴뢰 만주국 정책을 앞장서서 협조했고, 〈樂土滿洲〉라는 시에서는 “五色旗 너울너울 낙토만주부른다/ 百萬의 拓土들이 너도나도 모였네/ 우리는 이 나라의 福을 받은 百姓들”³⁾이라 했다. 그는 독립군의 주적 관동군이 조종하는 만주국 국민으로서 일제의 동양침략을 구가한 잔폭내기 아침배다. 〈선구자〉를 작곡한 조두남도 친일 행적이 뚜렷한 그와 한통속의 짝패다.

나는 대통령 취임식이 있던 보름 뒤 《동아일보》 문화부의 청탁으로 〈선구자 열창 이대로 좋은가〉(1993.3.10.) 라는 기고문을 썼다. 그 글의 내용은 “대중들이 노래방에 가서 ‘선구자’를 열창하든 ‘유행가’나 ‘군가’를 부르든 그건 자유다. 그러나 문민정부 출범 식장에 ‘선구자’가 등장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기에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틀 뒤 그 신문의 〈횡설수설〉(1993.3.12.)은 “윤해영이 훼손한 시인임이 분명하니 오양호의 말대로 적어도 정부의 공식 행사에는 삼가야 할 것이고,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니 앞으로는 때와 장소를 가려 열창하는 게 맞다.”라 했다.

2) 〈북향보〉는 1944. 12.1~1945. 7.4일까지 《만선일보》에 연재된 소설. 작품 원본 스크랩을 안수길의 장남 단국대 불문과 안병섭 교수에게 받았다. 그 원본에는 수정한 데가 많다. 나는 이 소설을 원본대로 출판한 바 있다. 《북향보》 문화출판공사, 1987

3) 〈낙토만주〉는 平山瑩澈(申瑩澈)편 《半島史話와 樂土滿洲》(滿鮮學海社, 1943. 新京) 뒷 표지에 수록되어 있다.

이런 소동 뒤 《동아일보》에는 〈선구자〉 애창자들이 나의 글을 반박하거나 〈선구자〉 작사자가 진짜 그런가라는 의구심을 품은 독자의 투고가 있었다. 나는 〈선구자〉 애창자의 직접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윤해영의 친일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여 이제는 〈선구자〉를 유명 국립대학 성악과 교수가 공식 행사에서 독창을 하거나 그의 제자들이 폐창을 하는 일은 없어졌다. 나는 윤해영의 시에 대한 가치평가, 곧 민요의 율격을 빌어 민족주의자 행세를 하는 교활한 글쓰기를 논문⁴⁾으로 증명했다.

4. 소설가 안수길 방문

내가 자료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던 1980년대 초, 나는 대구 남문시장 현책방, 시청 뒤 고서점을 이잡듯이 뒤졌다. 대구에는 귀한 책이 꽤 많았다. 6·25때 피란 온 서울 문인들이 몰려와 살던 때, 가령 양주동이 삼덕동에서 영어 강습소를 차려 수업할 때 그 부인은 수업료를 받고, 함북 경성 출신 시인 朴貴松이 대구로 피란와 행려병자가 되어 떠돌고, 압록강 연안 중강진에서 발행되던 《시건설》에 시를 발표하고 일찍 미국 유학을 한(1929) 韓世光이 韓黑鷗로 포항에 갈매기와 살며 수필가로 활동할 때 대구에 오면 최정희, 장덕조, 서정희 등 피란 온 여류들과 박훈상, 최정석, 이설주, 이운수 등 대구의 후배 문인들과 어울려 수필가 李華眞이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 경영하는 아루스다방, 청자다방, 동문다방을 드나들며 향촌동 피란 문단을 형성하던 시절, 그 전쟁의 와중에도 지니고 온 책을 생활고로 쌀 한 뒷박 값에 판 책들이다.

나는 《만선일보》기자였던 안수길에게 편지로 방문 의도를 알렸고, 약속 날짜에 종암동 자택에 가던 날은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安壽吉”이라는 문패가 붙은 판자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안수길은 마루에 밥상을 책상 삼아 모시옷을 입고 글을 쓰고 있었고, 그 옆에는 그의 부인이 쓴 원고를 두 손으로 받아 작은 대광주리에 받아 놓고 있었다. 그 모습은 200자 누런 갱지 원고지가

돈으로 보였다.” 당시 안수길은 《사상계》에 연재한 《북간도》로 문단에 이름이 쟁쟁하였으니 원고 한 장이 곧 지전 한 닢 이었던 것이다.

인사를 드리고 집을 둘러보는데 유난히 내 시선을 끄는 것이, 뒷담 벼락에 자라고 있는 명아주 한 포기였다. 그 명아주는 시멘트 담벼락 틈새에 뿌리를 내리고도 생명감이 넘쳤다. 북간도에서 나고 자란 소설가 안수길을 그 명아주에서 보았다. 나는 소반에 받쳐온 미숫가루 컵을 받아 들고 한 모금 마시고는 만주 이야기를 꺼냈다. 안수길이 김조규, 박팔양, 손소희와 함께 기자로 일할 때의 《만선일보》의 社勢, 편집회의에 참가한 사장 최남선의 열기, 그 외 재만 문인들을 이야기했다. 그 가운데 연세대 교수가 된 박영준이 그 신문에 《쌍영》이란 소설을 인기리에 연재했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나는 안수길이 소장하고 있던 창작집 《北原》을 그의 둘째 아들과 함께 종로 YMCA 앞에 나와 큰 문방구에서 복사를 했다. 그때 복사기가 귀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베일에 싸였던 존재’ 안수길을 만난 감동을 안고, 청계천 고서점을 뒤져 희귀 잡지와 《滿洲事情》(1934)이란 일서 한 권을 구입했다. 그리고 나니 남은 돈은 겨우 대구 갈 차비뿐이었다. 그런데 배가 고팠다. 그날 먹은 것이라고는 안수길 작가 맥에서 마신 미숫가루 한 컵뿐이었다. 그래서 쓰고 온 선글라스, 지금은 부끄럽지만 내가 ROTC 출신 소대장으로 내설악 오색 약수터 대간첩 침투 작전장교로 근무할 때 끼고 잔뜩 품을 잡던 그 18k 아까운 레이번 금테 색안경을 노점상에 팔았다. 그 돈으로 곱빼기 짜장면 한 그릇을 푹딱하고 팔빙수 한 컵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5. 남산 국립도서관, 京都大學도서관 서고 출입과 吉林大學도서관의 가공할 무관심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이 서초동으로 오기 전에 있던 자리는 남산이다. 나는 대구에 살면서 재만 조선인 문학자

4) 오양호, 〈윤해영시의 율격과 시대의식 고찰〉 《국어국문학》 114호, 1995.5

료를 찾아 그 남산 국립도서관 지하 서고에 한 번 들어갔다. 나는 사서 한 사람을 연출로 매수(?)하여 그 사람을 통해 관계 직원을 설득했다. 북 카드로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니 지방에서 온 연구자의 딱한 사정을 좀 고려해 달라고 했다. 당시는 지금처럼 되바라진 세상이 아니라 그런 언행이 좀 통했다. 자료 전산화는 꿈도 꿀 수 없던 때라 내 요구가 터무니없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吉林에서 출판된 《만주시인집》이나 도문의 〈시현실〉 동인들의 합동시집인 《典型詩集》, 또 동아, 조선에까지 발행 기사가 뜬 종합 문예지 《大地》를 혹시 찾을 수 있을까 기대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만주국 자료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 대신 新京에서 발행되고 ‘조선총독부도서관인’이란 큰 도장이 찍힌 일문으로 된 만주국 문학, 그러나 누구 하나 손도 대지 않은 내가 처음 책장을 여는 긴장만 경험만 했다. 일본은 망해 쫓겨가고 해방된 조선인이 그런 책을 읽을 이유가 없어 방치된 책들이었다.

국내 도서관을 발발발발 밟는 이런 자료발굴 행각을 마친 뒤 그런 발걸음을 국외로 돌렸다. 그 첫 행보가 京都大學 도서관이다. 나는 1998년 좋은 조건의 日·韓交流基金을 받아 외국인 학자 교수 자격으로 교토대학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기회를 얻었다. 나는 물실차호기勿失此好機하고 그 대학 도서관 지하서고 수색에 나섰다. 그 대학은 나의 서고 출입을 조건 없이 허락하였다. 그래서 여러 번 드나들었다. 그런데 그런 적극적인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 자료도 발견하지 못했다. 만주에서 생체실험을 주도했다는 의과대학을 거느린 무서운 제국대학이라면 그 도서관은 비장의 조선인 문학 자료를 소장하고 있을 만한데 서고 구석을 다 뒤졌으나 단 한 건의 자료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 대학 교수 가운데는 영국 유학을 했고, 그 이력을 걸핏하면 자랑하는 그 영국, 저들과 같은 섬나라에서 출판한 두꺼운 사전과 셰익스피어 전집 등이 먼지를 뒤집어쓰고 널려 있었으나 우리의 고문 자료는 살펴보지 않아서 알 수 없으나 식민지 시기 한국어로 된 근대문학은

책 자체가 보이지 않았다. 일본 제2의 대학인 교토대 도서관의 이런 현상은 자료발굴과 무관하게 나를 열패감에 빠지게 했다. 조선인 문학이 아예 관심의 대상이 아닌 듯했기 때문이다.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도 재만 조선인 문학 자료는 없었다. 부속기관인 가와이河合문고, 후지가와富士川문고, 타니무라谷村문고는 확인하지 않았다. 그런 문고는 주로 한국의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吉林大學과 中央民族大學에 한 학기씩 강의를 한 것은 정년퇴임을 하고 그간 미뤄오던 재만 조선인 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기 전 마지막 자료발굴과 현지답사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그 두 대학에서 새로 얻은 자료는 없다. 그 대신 우국지사, 독립군의 후예로, 혹은 북간도를 신천지로 알고 찾아간 우리 민족의 제3, 4대 후손들이 저 흑룡강성, 연변 등지에서 대도시로 유학 와 청운의 꿈을 키우는 젊은이들을 만나 동족의 정의를 나누며 그들의 선조가 남긴 문학작품을 함께 읽으며 이산의 현장, 민족의 수난의 한 시기를 회고하고 감상하는 기쁨을 누렸다.

길림대학은 “京都-東京-新京”의 반열에 있던 만주국의 수도를 대표하는 학교다. 중국이 대학을 정리할 때 東北師範大學, 장춘이공대학을 제외하고는 주변의 대학을 다 흡수하여 학부생은 4만이 넘고, 대학원생 및 연구원은 3만이 넘는 중국 최대의 대학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 대학 도서관에는 만주국 시절 수도인 신경에서 출판된 온갖 자료가 소장되어 있을 터인데 그 대학은 그런 자료 정리에는 태무심했다. 나는 조선인 문학 자료를 검색해 보려고 통역을 대동하고 여러 번 열람을 시도했는데 그 건 설득 자체가 우이독경이었다. 그 가공할 무관심, 근무 태만, 직무 유기를 길게 말하는 것은 내정간섭이고 국제법 위반이다.

북경의 중앙민족대학은 중국 각지에서 뽑힌 조선족 후손 엘리트들이 공부하며 ‘춘향전’ 연극을 공연할 만큼 조선족 성정이 뚜렷하지만 그 대학 도서관은 도서실 규모라 해방 전 조선인 문학 자료는 거의 없고, 몇 개 있는 것도 북한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입되어 개작된 것이라 자료 운운할 대상이 아니다. ㉠

[학술원상 수상자기고]

한국 사례를 토대로 한 ‘작은복지국가론’의 일반화¹⁾

梁在振* 教授(연세대학교 행정학과)

필자는 한국이 경험한 발전국가와 앞으로 가야 할 복지국가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그동안 200여편에 달하는 논문과 저서를 발간하였다. 이 중에 그간 복지국가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예외적인 케이스들, 즉 ‘작은’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비교 복지국가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기존 복지국가 이론을 한국 현실에서 재음미하였고, 유럽을 바탕으로 형성된 기존 복지국가 이론들이 놓치고 있는 점들을 연구설계에 반영하여 이론화를 시도하였다. 연구의 출발을 형성하는 물음은 “왜 성공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노동운동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복지국가는 여전히 ‘작은가?’”이었다.

이 연구질문에 대해 2017년 Cambridge University Press에서 출판한 *Political Economy of the Small Welfare State in South Korea*로 답을 하였다. 이후 연구 대상을 사회보장이 유럽보다 덜 발달한 일본과 미국으로 확장하였다. Edward Elgar에서 나온 *The Small Welfare State: Rethinking Welfare in the US, Japan and South Korea*에서 인과 관계를 확인하는 비교사례 연구를, Large-N 통계분석은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에 출판된 논문, “Union Structure, bounded solidarity and support for redistribution: Implications for building a welfare state”에 담았다.

필자는 ‘큰정부(big government)-작은정부(small government)’의 개념에 착안해, 유럽의 큰복지국가(big welfare state)에 대비된다는 뜻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

아시아와 영·미 자유주의 국가들을 작은복지국가(small welfare state)라고 명명하고, 작은복지국가 연구에 매달렸다. 작은복지국가 연구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더 예외주의적인 사례가 되는 한국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단일사례 연구지만 예외적 사례(outlier case)에 대한 탐구는 풍부한 가설 설정을 가능하게 했다. 이후 한국을 사례로 제시되었던 주요 가설(노동운동의 양식과 노조 구조, 다수대표제, 공공복지에 앞선 기능적 등가물의 발전 등)을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의 3개국 비교사례 연구에 적용하여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제한된 일반화의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많은 관측치 확보가 가능한 노조 구조(union structure)의 경우는 독립적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²⁾ 한국적 특수 사례를 토대로 한 이론적 보편화의 필요성과 이후 작은복지국가라는 개념 하에 진행된 생애 연구의 결과를 시간 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I. 복지국가이론의 유럽중심주의와 작은복지국가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정치·경제·사회 제도의 대부분은 우리보다 앞서 근대화를 경험한 서구에서 왔다. 학문의 세계도 마찬가지이다. 자연과학은 물론 사회과학도 그러하다. 복지국가 연구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동안 복지국가 연구는 스웨덴과 독일 같은 유럽의 ‘큰’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이 발달되어

* 제68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사회과학 부문 수상자

1) 이 글은 한국행정학회에서 2023년에 발간한 「학문의 길」에 담긴 필자의 생애연구 소개 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2) 작은 복지국가 연구는 양재진이 연구책임 맡았던 SSK저발전복지국가연구사업단의 공동연구진들과 협력연구로 이루어졌다. 이 중에 Edward Elgar에서 출판된 *The Small Welfare State* 책에는 김영순(서울과기대), 권순미(한국기술교육대), 정의룡(교통대), Margarita Estevez-Abe(Syracuse University), 김도균(경기연구원),故노정호(국민대)가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IRPS 논문에는 고려대 정치학과 권혁용 교수가 제2저자로 참여했다.

왔다. ‘무엇이 복지국가의 태동을 가져왔는가?’ ‘무슨 요인이 사회지출과 프로그램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는가?’ 등이 주요 연구주제였던 것이다. 그 결과,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과 국가재정능력의 확충을 강조하는 산업화 논리(logic of industrialism), 민주주의와 선거경쟁에 따른 복지제공의 칭찬획득(credit claiming)의 정치, 노동과 친복지 정치세력의 상대적 힘의 크기를 중시하는 권력자원론(power-resources model), 그리고 국가관료제의 독립변수적 역할에 주목하는 국가론적 설명 등이 보편이론으로 탄생되었다.

유럽과 근대화를 함께 경험했으나, 유럽과 달리 복지국가 발전이 더딘 미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예외주의’라는 이름을 붙였다(필자는 이를 ‘작은복지국가’로 명명하며 유럽의 ‘큰’ 복지국가와 대비해서 부르고 있다). 예외주의에 대한 설명은 유럽 복지국가를 낳은 요인의 결핍(예컨대, 강한 노동계급과 강한 좌파정당의 부재) 혹은 지역특수적인 문화적 요인(예컨대, 흑백차별, 유교 및 ‘가족주의’ ‘발전주의’ 등)에 의존하여 설명해 왔다.

유럽의 ‘결핍’으로 예외주의적(작은)복지국가를 단선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유럽과 다른 양태를 보이는 복지정치 양상은 공백으로 처리되고, 이의 인과 메커니즘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블랙박스로 남겨놓는다. 또 반대로 유럽 밖 복지국가의 형성과 특징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에서는 대부분 그 사회의 맥락을 구성하는 문화적 특이점(idiosyncrasy)을 원인으로 하여 설명한다. 유럽 기준에 예외적인 복지국가라는 특이한 현상(결과)을 쉽게 문화적 특질로 환원해 설명하려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접근방식은 인과관계의 특정 맥락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나, 인과관계의 본질은 드러내지 못한다.

복지국가 연구가 ‘과학’이기 위해서는 이론화 작업(theory building)이 필수적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일반화(generalization)는 Skocpol이 비판하는 Parsons류의 역사적 맥락을 벗어난 거대이론(grand theory)의 형성이 아니다. 이보다는 복지국가 발전과 저발전의 부르는 구체적인 구조와 제도적 조건에 대한 탐색을 뜻한다. 즉, 어떠한 조건에서 복지정치의 주요 행위자들이 공공

재(public goods)인 공공복지(public welfare)를 추구하거나 멀리하는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선택을 가능케 하는 힘의 원천은 무엇인지를 탐구해야 한다. 이때, 이러한 조건의 탐색은 해당 사회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특질을 넘어서는, 적어도 비교연구 대상인 OECD국가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제도에 대한 연구여야 한다. 종속변수(이 경우, “예외적” 혹은 “작은” 복지)를 곧바로 예외적 특질을 갖는 독립변수(예를 들어, 가족주의)에 바로 연계시켜 설명하기보다는, 근대화된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와 제도의 다양한 배열(configuration)이 만들어 내는 독특한 현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이론틀로 다양한 변이를 설명할 수 있을 때, 일반화가 가능한 이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복지국가 연구는 그동안 복지국가 연구에서 다소 소홀히 다루어진 이런 ‘예외적’ 케이스를 보편적인 개념과 이론틀을 통해 설명해 내고자 했다. 유럽의 학자들이 전후 크게 성장한 복지국가, 특히 북유럽 복지국가를 이해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고 이론을 만들어 왔다면, 필자는 산업화 이후 한국에서 볼 수 있었던 ‘복지의 저발전’이라는 특이한 현상을 연구주제로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서구 복지국가이론에서 제시하는 요인들의 결핍이나 우리사회의 특이한 문화적 특질로 환원하여 논하기보다는, 유럽복지국가를 설명하던 제도주의적 변수를 통해 복지정치의 양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왜 그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여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던 것이다.

II. 작은복지국가 연구의 태동과 발전

1. 예외주의(exceptionalism) 연구 : 가설 탐색적 Outlier 사례 연구 (한국)

‘왜 한국의 복지국가는 저발전 혹은 작은가?’에 대한 답을 필자는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mall Welfare State in South Korea*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유럽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기존 복지국가 발전이론들, 즉 산업화 논리, 민주주의와 선거경쟁론, 권

력자원론, 그리고 국가론을 받아들이면서도, 이들 이론들이 당연시하였던 전제 조건들(시장경제, 비례대표제와 의원내각제, 초기업적 산별노조, 합리적 관료제)이 한국에는 다른 방식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음을 밝히고, 이의 영향을 추적하였다.

첫째, 복지의 수요측면(supply-side)에서, 필자는 유럽의 노동운동과 한국의 노동운동이 다른 점에 주목했다. 유럽은 산별수준 혹은 중앙수준에서 임금협상을 벌이고 단체협약을 맺는다. 한국의 노동은 기업별로 조직화되고 기업노조가 단체협약권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조직노동은 이익집단처럼 ‘공공재’인 공공복지보다는 ‘사유재’에 가까운 임금/기업복지 향상을 위해 힘을 소진한다. 노동운동의 제도화 양태(즉, 기업별노조, 산별노조, 중앙노조 등)에 따라 노조지도부의 정책선호가 바뀐다. 이러한 조직노동의 행태가 한국복지국가의 저발전에서 미친 영향을 추적하였다.

둘째, 복지의 공급측면(supply-side)에서, 필자는 민주주의 한국의 정치제도가 유럽과 다른 점을 주목했다. 유럽과 달리 한국은 다수대표제를 통해 국회의원을 뽑는다. 민주화 이후에도 소선거구제는 비례대표제와 달리 복지국가 건설에 친화적인 신생 좌파정당의 의회진출을 어렵게 했다. 또 중산층이 보수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성을 낳게 했다. 그리고 소선거구제에서 개개 의원들은 마치 기업노조처럼 전국적 수준의 공공재 공급보다 지역구에 혜택이 집중되는 사업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

한편, 지역구 의원과 달리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지지를 동원해야 한다. 공공재인 복지의 공급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1표라도 더 얻은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는 승자독식구조에서, 비인기 정책인 복지증세를 주장하기 어렵다. 51%를 획득한 1등 앞에 49%의 지지를 받은 2등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대통령과 집권당은 증세에 대해 책임을 홀로 다 짊어진다. 유럽 복지국가의 상황은 다르다. 많은 유럽국가들은 의원내각제 하에서 책임을 나눠지는 연립정부를 운영한다. 그리고 비례대표제이기에 증세 때문에 10%의 지지가 빠져도 국회 의석이 10% 줄어들고 만다. 한국에서는 10%의 지지가 상대편으로 넘어가면 승리 가능성은 다

사라진다고 봐야 한다. 어느 나라에서나 비인기정책인 증세를 정치인들은 회피하려 한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비례대표제 하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증세가 ‘정치적 자해’라면, 다수대표제 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정치적 자살’이 된다. 훨씬 패널티가 크다.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문재인 대통령이 보편증세는 회피하고 ‘부자증세’에 머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재원대책 없이 복지가 클 수는 없다.

셋째, 한국의 산업화 패턴이 유럽과 다른 점에도 주목했다. 한국이 채택한 수출지향산업화 초기,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이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지탱해주었다. 노동비용 상승을 불러오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은 최대한 늦춰졌다. 1974년에 도입하기로 법까지 만든 국민연금이 제1차 오일쇼크로 세계경제가 침체되자 무기한 연기된 것도 이 때의 일이다. 1977년 의료보험이 도입될 때도, 기업의 부담능력에 발맞추어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비용부담을 고려해 급여 수준이 낮았음은 물론이다.

넷째, 산업화 시기 권위주의 국가는 경제발전을 이끌 경제기획원과 상공부 같은 경제부처의 위상과 능력을 크게 높였다. 경제기획원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기획과 예산권을 부여해 여타 사회부처를 통제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이름을 달리하고 있으나, 경제기획원은 재정원(김영삼 정부), 기획예산처(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쳐 기획재정부(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로 한국관료제의 정점에서 있다. 친복지적 대통령이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강력하게 통제하지 않는 한, 한국의 관료제는 복지확대의 거부점으로 작용해 왔다.

종합하면, 한국의 작은 복지국가라는 현상(종속변수)을 설명하기 위해 복지정치의 3대 행위자(노동, 기업, 정치가)와 관료의 권력자원과 정책선호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구조’와 ‘제도’ 변수(노조 구조, 대기업체제, 다수대표제, 대통령제, 경제부처 우위의 국가관료제)를 추출하였다(독립변수의 추출). 이들 독립변수는 문화적으로 특이한 변수들이 아니다. 기존 복지국가 이론의 주요 변수들이다. 권력자원론의 노동과 자본 변수, 민주주의 이론에서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변수, 국가론에서 관료제 변수, 그리고 산업화 논리에서 산업화 변수가 그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주목한 것은 한국과 유럽과 제도

적 특성과 배열이 다르다는 것이다. 산업별 노조가 아닌 기업별 노조, 성공적 수출지향산업화와 지불능력이 큰 대기업 중심 경제, 비례대표제가 아닌 소선거구제, 의원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 동일한 실적제 관료제이나 경제부총리가 지휘하는 관료제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작은 복지국가를 형성, 지속시키고 있는지를 사례연구를 통해 조명하였다.

2. 중범위 이론화 : 한국, 일본, 미국의 비교사례 연구

앞서 언급했듯이, 복지국가 연구에서 예외주의 사례로 거론되던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다. 한국도 예외주의의 한 사례인데, 이들 예외주의 3국은 서로 유사할까? 유사하다면 왜 그럴까?

이들은 국민부담율과 실효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고, 전반적으로 사회지출이 낮으나 노인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이 높고 가족정책이나 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은 낮은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공공사회지출이 낮은 만큼, 민간보험에 대한 의존도는 높고, 빈곤율이나 소득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3국이 서로 언어나 역사·문화·종교적으로 다른 나라이나, 복지국가적 특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른 OECD국가에 비해 3국이 동질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미국, 일본, 한국을 유럽의 복지국가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작은 복지국가로 명명한 후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던졌다. “산업화된 민주국가인 미국, 일본, 한국이 유럽의 큰 복지국가와 달리 작은 복지국가를 형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작은 복지국가’라는 3국의 공통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라마다 다양한 원인이 상호작용하여 작은복지국가라는 현상을 낳았을 것이다. 모든 원인변수의 수많은 조합을 다 추적할 수는 없기에, 최대상이체계(Most Different System), 즉 J.S Mill의 일치법의 논리를 따라 독립변수를 추출하였다. 한국,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로서 서구의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일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서구 국가로 동아시아 국가와는 크게 다르다. 서로 크게 다른 사회에서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어떤 유사한 특질 때문이라는 일치법의 논리에 따라, 노동, 자본, 정치가라는 3대 복지정치 행위자의 정책선택에 영향을 주는 공통적인 제도들을 추출했다. 노조 구조(union structure), 대기업 중심 경제, 다수대표제, 그리고 정책도입의 순서(timing and sequence) 등이 그것이다. 일치법의 논리에 따라 3국 모두에서 발견되지 않고 특정 국가에서만 중요한 변수(예컨대, 미국의 인종차별, 연방제)는 독립변수 목록에서 제거되었다. 그리고 작은 복지국가와 큰 복지국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예: 세계화) 또한 제외되었다.

앞의 3개(노조구조, 대기업체제, 다수대표제)는 한국의 작은 복지국가 사례연구에서 이미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변수들이다. 3국 모두 유럽의 큰 복지국가와 달리 기업별노조 혹은 매우 협소한 산별노조(예: 미국 자동차노조)체제로 기업수준에서 단체협상이 이루어진다. 3국 모두 유럽의 나라들보다 대기업이 중심이 된 자본주의 체제로, 기업노조의 분배욕구를 기업 수준에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지불능력을 갖추고 있다. 세 나라 모두 유럽의 큰 복지국가와 달리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기업노조의 분배 욕구가 기업에서 충족되기에 기업복지를 매개로 기업수준에서 계급타협이 이루어졌다. 이는 국가 수준에서 계급타협을 이뤄 복지국가를 탄생시킨 유럽과 다른 패턴이다. 정치가들은 자기 지역구 개발에 열심이며, 중세가 정치적으로 어려워 3국 모두 국민부담율이 낮고, 정부부채는 높다.

정책도입의 순서도 주요하게 보았다. 이들 3국에서는 사적복지(기업복지, 민간보험), 사회복지성 조세지출(조세감면), 농업보조금, 토목사업 같은 공공복지의 기능적 등가물(functional equivalent)들이 일찍이 발달하여 공공복지 프로그램의 도입과 성장을 구축하거나 방해하였다. 일본과 한국은 중소기업 보호, 영세사업장 보호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유사 적극적노동시장정책도 구사하기도 하였다.

3개국 비교 연구는 필자의 이론가 연구설계에 따라 국가별 전문가들과 국제협력연구를 진행되었고 그 결과가 2020년 Edward Elgar에서 출간된 *The Small Welfare State: Rethinking Welfare in the US, Japan, and South Korea*이다.

3. 일반화의 모색 : 노조 구조(Union Structure)의 26개국 Large-N Study

작은복지국가론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기업별 노조체제인 한·미·일은 유럽의 일반적인 산별노동운동과는 다른 양태를 보였고, 이런 차이가 오랜기간 유럽의 큰 복지국가와 작은복지국가간의 간극을 만들어 낸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노조의 조직구조의 독립적 영향력을 Large-N 통계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일반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첫 번째 결과물이 2021년 *IPSR*에 실린 논문, “Union Structure, bounded solidarity and support for redistribution: Implications for building a welfare state”이다. 노조 구조를 노동운동 내 단체협상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나누고, 중앙, 산별, 그리고 기업별 노조체제로 구분하여 보았다. 중앙노조의 지도부는 산별노조보다, 산별노조의 지도부는 기업노조보다 노조원에게 연대의식을 심어주는 데 더 노력할 것으로 가정했다.

노조지도부는 조직원의 지지를 통해 리더십을 획득하고 유지한다. 이때 어느 조직이나 다수를 차지하는 조직 내 중하층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 연대임금제와 복지확대가 노조운동의 기본목표가 되는 이유이다. 그런데, 연대임금제는 중향평준화 하후상박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층부 노조원의 희생을 의미한다. 노조원의 구성이 비교적 동질적인 기업노조보다 산별노조와 중앙노조의 구성원이 보다 더 이질적이다.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 실업자 등 노동시장 내 약자를 더 많이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노조와 산별노조가 추진하는 연대임금제는 상층노조원의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게 된다. 노조 지도부는 상층 노동자들의 불만을 도덕적 호소와 연대성의 배양을 통해 누그러뜨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필요성은 기업노조보다 산별노조에서 높고, 산별노조보다 중앙노조에서 더 크다. 유사한 논리가 복지에도 적용이 된다. 중앙노조나 산별노조 지도부는 하층 노동자에게도 복지혜택이 전해질 수 있도록 공공복지의 확대를 지행하는 반면에 기업노조는 클럽재인 기업복지를 선호한다. 전자의 경우보다 후자는 연대성의 범위가 기업내로 한정되고, 노동계급내 연대의식을 배양시킬

필요성이 적다. 따라서 노조원의 연대성 의식(혹은 재분배 성향)은 초기업 노조의 노조원이 기업노조의 노조원보다 높을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가설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권력자원론에서 통상 널리 쓰이는 노조조직률 변수보다 노조구조가 재분배 성향에 더 결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난 점이다. 단순히 노조조직률이 높은 것보다 어떻게 노동운동이 조직화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노조조직률은 권력자원론에서 노동의 힘을 상징하는 변수이다. 반면 작은복지국가론의 노조 구조 변수는 조직노동의 힘이 발산되는 정책방향에 대한 함의가 크다. 노동은 어느 나라나 산업화된 사회에서 가장 힘 있는 사회세력이다. 한국이나 미국과 일본에서 조직노동이 복지국가 건설의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가지고 있는 힘을 다른 데 소진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필자는 한국에 대한 관찰에서부터 시작된 작은복지국가 연구를 통해, 비교 복지국가 연구에 제도론적 시각에서 새로운 이해를 더하고자 하였다. 필자의 연구는 맥락기속이론(context-bound theory)에서 시작되어, 맥락특화이론(context-specific theory)으로 발전하였고, 일부 노조 구조 변수는 맥락자유이론(context-free theory)에 다가섰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밖에 학술연구 활동과 더불어 교양서인 『복지의 원리』(한겨레출판, 2020)를 집필해 이론지향의 학문적 연구로 축적된 한국복지국가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를 널리 일반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복지국가의 발전을 저해할 기본소득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회보장 강화의 필요성을 논하는 연구결과들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사각지대 등 한국 사회보장의 취약성 때문에 기본소득론이 한국사회에서 호소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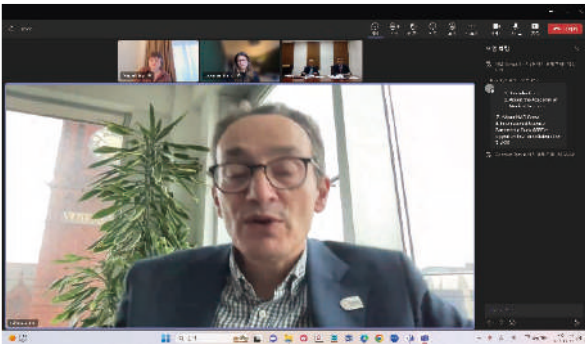
학술원 소식

◆ 제8차 임원회 및 제2차 개원 7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개최

2023년 10월 6일(금) 14시 학술원 중회의실에서 제8차 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촉위원 추천결과, 2023년도 특정연구과제 학술토론회 개최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그리고 2024년도 학술원 신입 회원 선출계획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제69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요강 공고(안)을 심의하여 일부 수정 가결하였다. 이어서 제2차 개원 7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행사일정을 협의하였다.



◆ 영국의학학술원과의 양자간 화상회의 진행



영국의학학술원(The UK Academy of Medical Sciences)측이 지난 8월 우리 학술원과 보건(Health) 관련 잠재적 협력 방안을 요청하면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양자간 화상회의가 10월 11일(수) 개최되었다. 학술원에서는 박성현 자연과학부회장과 신희섭 회원(자연4)이, 영국의학 학술원에서는 Tom Solomon 국제교류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양국의 기관 소개 및 보건 관련한 학술연구 우선순위 활동영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제22차 아시아학술회의(SCA)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2023년 10월 19일(목)부터 10월 20일(금)까지 양일간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대한민국학술원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공동주관으로 제22차 아시아학술회의(Science Council of Asia, SCA) 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속가능성, 회복탄력성과 인류복지를 위한 과학’을 주제로 학술원 회원, 국내외 연구자 및 외부관계자 등 총 250여 명이 참가하여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SCA 현 회장인 이장무 회장의 주관으로 특별히 아시아학술회의 총회 및 이사회 회의가 운영되어, 차기 학술대회 운영계획 등을 위한 이사회 기관 대표들과의 협의도 진행되었다. 10월 21일(토)에는 해외 연구자들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각각 경복궁과 롯데타워를 탐방하였다.



〈이장무 회장 개회사〉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기조강연〉



〈김경동 회원 초청강연〉

회의 및 행사 안내

▣ 제9차 임원회 개최

- 일시 : 2023년 11월 3일(금) 14시
- 장소 : 학술원 중회의실(3층)

▣ 2023년 특정연구과제 학술토론회 개최

- 일시 : 2023년 11월 10일(금) 10시~13시
- 장소 : 학술원 대회의실(2층)
- 발표자 및 주제

주 제	발 표 자
나치 독일의 황제법학자들	김효전(인·사4)
천연물의약품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	김영중(자연4)

▣ 제7차 분과회 개최

인문·사회과학부		자연과학부	
분과	회 의 일 시	분과	회 의 일 시
1	11.24.(금) 11:00	1	11.23.(목) 11:00
2	11.24.(금) 11:00	2	11.21.(화) 11:00
3	11.24.(금) 14:00	3	11.23.(목) 11:00
4	11.24.(금) 11:00	4	11.23.(목) 11:00
5	11.23.(목) 11:00	5	11.22.(수) 11:00
6	11.21.(화) 14:00		

▣ 제4회 학술원 집담회 개최

구 분	내 용
발표자/주제	안진흥(자연2) / 식물의 감각, 청각
사회자/토론자	김상구(자연2) / 최양도(자연5), 김홍우(인·사5)
일시/장소	2023년 11월 29일(수) 10:30~12:30 / 학술원 중회의실(3층)
참석대상	학술원 회원 중 희망자 ※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은 유근재 연구사(02-3400-5253, yountw9285@korea.kr)에게 11월 22일(수)까지 연락 요망

회원 동정

◆제19회 경암상 수상

임현진 회원(인문사회 제5분과)이 경암교육문화재단에서 수여하는 제19회 경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임현진 회원은 다양한 이론적 개념으로 사회과학의 통섭과 융합을 실천해왔으며, 이를 현실에서 적용해 한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11월 3일(금) 오후 3시 30분 경암교육문화재단 경암홀에서 개최되며, 수상자에게는 2억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 회원 별세

• **이충웅(李忠雄) 회원(자연 제3분과)**

– 별세일 : 2023.10.15. (향년 88세)

– 주요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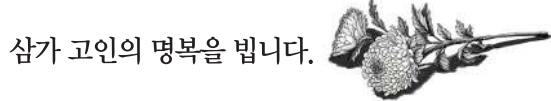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공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학석사, 일본동경대학 대학원 공학박사

– 주요 경력

서울대학교 교수 ·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 소장 · 전 명예교수
 한국방송공학회 회장, 미국전기전자공학회(IEEE) 한국지부 회장
 대한의용생체공학회 회장, 대한전자공학회 회장, 한국전기전자공학회 회장
 위성통신산업연구회 회장, 한국정신과학학회 회장
 대한민국학술원 회원(2005.7.15. ~ 2023.10.15.)

– 주요 서훈

서울대학교 이공계 논문상(1970), 대한전기학회 학술상(1972), 대한전자공학회 학술상(1972), 국민훈장 동백장(1990), 대한전자공학회 해동학술상(1999), 황조근정 훈장(2000)



국제학술기구 및 외국학술원 행사 안내

▣ **The Academy of Medical Sciences & The Lancet International Health Lecture 2023**

- **일시 및 장소** : 11월 28일(화), 하이브리드(온라인 및 영국 런던)
- **주관** : 영국의학학술원(The UK Academy of Medical Sciences), 영국의학전문저널 랜싯(Lancet)
- **주제** : 남쪽의 성공: 로타바이러스 백신이야기와 그 교훈 (Success from the South: the rotavirus vaccine story and its lessons)
- **내용** : 로타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5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병하는 급성위장염의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중저소득 국가에서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도는 2016년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현지에서 개발하고 전국적으로 도입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되었습니다. 본 강연에서는 인도의 로타바이러스 백신 여정에서 얻은 성공과 교훈을 되돌아보고, 글로벌 보건 개선을 위해 향후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설명 및 논의할 예정입니다.



※ 관심 있으신 회원님께서서는 담당자(안혜진 nas5257@korea.kr)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